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1930-01



2022년 심사정책 고객평가조사

2023. 4.



[이용자를 위한 안내]

1. 이 보고서는 출원인 427명, 대리인 105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2. 사례수가 크지 않은 집단 혹은 분석 단위의 결과 해석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3.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비율 및 점수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문

□ 조사 목적 및 방법

- 본 조사는 특허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심사정책에 대한 외부 고객(출원인 및 대리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1년 동안 심사서비스를 받은 출원인·대리인을 대상으로 심사 정책별로 인지도, 인지경로, 지속운영 필요성에 대한 평가 진행 및 정책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수집하였음
 - 지난 1년간(21.7.1.~22.6.30.) 3인 협의심사 통지서를 수령한 출원인 200명, 대리인 50명, 3인 협의심사 통지서를 수령한 경험이 없는 출원인 200명, 대리인 50명을 목표 표본으로 설정함
- 조사 방법으로는 3인 협의심사제도 등 심사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지를 설계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이메일, 전화설문 병행)함
 - 조사 항목 : 3인 협의심사, 심사유예 제도, 임시명세서 제도 등 9개 심사정책 및 항목에 대한 인지도, 운영 필요성, 향후 제도 이용 의향, 개선 의견 등을 조사함

□ 정책평가 결과

- 최근 1년간 3인 협의심사의 통지서가 발송된 출원인과 대리인을 대상으로 본인이 3인 협의심사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낮음(23.6%). 출원인(18.0%) 대비 대리인(41.9%)의 인지 비율이 높음
- 3인 협의심사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n=63)는 심사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편임. 만족도는 전체 64.7점으로 출원인이 68.2점, 대리인이 59.6점으로 나타나 60점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심사유예 제도, 임시명세서 제도, 개선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중 인지도는 심사유예 제도가 81.4%로 가장 높았으며, 임시명세서 제도는 47.6%, 개선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는 64.4% 수준으로 조사됨
- 다만, 심사유예 제도 인지자 81.4% 중 51.9%가 '들어는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는 단순 인지자임을 감안하면, 제도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도 있음
- 심사유예 제도, 임시명세서 제도, 개선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인지자들을 대상으로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도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제도는

임시명세서(45.8%) 제도로 나타났고, 심사유예 제도(21.2%)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았음

- 심사유예제도 및 개선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의 경우 활용 의향이 경험률보다 20%P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활용을 원하는 고객들이 각 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심사유예 제도, 임시명세서 제도, 개선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향후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개선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활용 의향(77.6%)이 가장 높았으며, 향후 활용 의향이 가장 낮은 제도는 심사유예 제도이지만 절반에 가까운 42.9%가 향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구분	심사유예 제도	임시명세서 제도	개선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도	81.4%	47.6%	64.4%
경험 여부 (‘예’ 선택)	21.2%	45.8%	44.0%
활용 의향 여부 (‘예’ 선택)	42.9%	59.2%	77.6%

*인지도: ‘들어 봤고, 내용도 잘 안다’ + ‘들어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르다 선택

- 심사관과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던 출원인과 대리인 중 면담에 대한 만족도는 73.8점으로 심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효율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심사관 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에 대하여 ‘심사대기 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향상을 동시에 할 수 없다면 1인당 심사업무량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관리한다’와 ‘심사대기기간이 보다 지연되더라도 1인당 심사업무량을 줄여 심사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의견제출통지 및 결정이 빠른 심사를 가장 선호하면서도 향후 출원 건수는 현재와 유사하거나 늘어날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이에 심사관의 증원 없이는 심사처리 기간의 과도한 지연이 예상됨

□ 3인 협의심사 제도 관련 제언

- 3인 협의심사 제도는 심사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신속한 특허 권리화를 지원하며,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 간의 심사판단기준 편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시행되었음
- 3인 협의심사의 대상 기술분야를 확대하는 등 운영 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전 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관별 심사판단기준 편차 개선을 통해 심사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3인 협의심사 확대는 전체적인 심사처리 기간 지연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됨. 심사처리 기간 지연을 방지하면서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심사품질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관 증원이 필수적임. 공무원 증원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식재산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특허청의 신속하고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위해 심사관 증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기대해봄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1
2. 주요 조사 내용	1
3. 실사설계	3
1) 조사방법	3
2) 실사 진행 절차	4
4. 자료처리 절차	4
5. 응답자 특성	5

제2장. 조사 결과

1. 조사 결과	9
1) 3인 협의심사 제도	9
(1) 3인 협의심사 통지서 수령 경험	10
(2)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등록 여부	12
(3) 단독심사 대비 3인 협의심사 전반적 만족도	14
(4) 3인 협의심사 만족이유	16
(5) 3인 협의심사 불만족 이유	18
(6) 3인 협의심사 확대에 대한 의견	20
(7) 3인 협의심사 선택 의향	22
(8) 3인 협의심사 개선 의견	24
2) 심사유예 제도	25
(1) 심사유예 제도 인지도	26
(2) 심사유예 제도 인지 경로	28
(3) 심사유예 제도 경험 여부	30
(4)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32
(5) 향후 심사유예 제도 활용 의향	34
(6) 심사유예 제도 개선 의견	36

3) 임시명세서 제도	37
(1)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도	38
(2)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 경로	40
(3) 임시명세서 제도 경험 여부	42
(4)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44
(5) 향후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 의향	46
(6) 임시명세서 제도 개선 의견	48
4)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49
(1)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도	50
(2)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 경로	52
(3)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경험 여부	54
(4)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56
(5) 향후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활용 의향	58
(6)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개선 의견	60
5) 통지서 간소화	61
(1) 의견제출통지서 간소화에 대한 동의 여부	62
(2) 의견제출통지서 간소화 동의 이유	64
(3) 적절한 통지서 간소화 방안	66
6) 심사관 소통(심층면담)	68
(1)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경험 여부	68
(2)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전반적 만족도	70
(3)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만족 이유	72
(4)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불만족 이유	74
(5) 특허청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76

7) 심사 정책 방향성	77
(1) 가장 선호하는 심사 방향	78
(2)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에 대한 의견	80
(3) 우선심사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82
(4) 분할출원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84
(5) 출원 및 등록 전략	86
(6) 향후 출원 건수	88
2. 3인 협의심사 제도 제언	90
부록 1. 통계표	91
부록 2. 질문지	133

■ 표 목차

< 제2장. 조사결과 >

<표 2-1> 3인 협의심사 통지서 수령 경험	11
<표 2-2>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등록 여부	13
<표 2-3> 단독심사 대비 3인 협의심사 전반적 만족도	15
<표 2-4> 3인 협의심사 만족이유	17
<표 2-5> 3인 협의심사 불만족이유	19
<표 2-6> 3인 협의심사 확대에 대한 의견	21
<표 2-7> 3인 협의심사 선택 의향	23
<표 2-8> 3인 협의심사 개선 의견	24
<표 2-9> 심사유예 제도 인지도	27
<표 2-10> 심사유예 제도 인지 경로	29
<표 2-11> 심사유예 제도 경험 여부	31
<표 2-12>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33
<표 2-13> 향후 심사유예 제도 활용 의향	35
<표 2-14> 심사유예 제도 개선 의견	36
<표 2-15>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도	39
<표 2-16>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 경로	41
<표 2-17> 임시명세서 제도 경험 여부	43
<표 2-18>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45
<표 2-19> 향후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 의향	47
<표 2-20> 임시명세서 제도 개선 의견	48
<표 2-21>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도	51
<표 2-22>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 경로	53
<표 2-23>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경험 여부	55
<표 2-24>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57
<표 2-25> 향후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활용 의향	59

〈표 2-26〉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개선 의견	60
〈표 2-27〉 의견제출통지서 간소화에 대한 동의 여부	63
〈표 2-28〉 의견제출통지서 간소화 동의 이유	65
〈표 2-29〉 적절한 통지서 간소화 방안	67
〈표 2-30〉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경험 여부	69
〈표 2-31〉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전반적 만족도	71
〈표 2-32〉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만족 이유	73
〈표 2-33〉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불만족 이유	75
〈표 2-34〉 특허청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76
〈표 2-35〉 가장 선호하는 심사 방향	79
〈표 2-36〉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에 대한 의견	81
〈표 2-37〉 우선심사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83
〈표 2-38〉 분할출원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85
〈표 2-39〉 출원 및 등록 전략	87
〈표 2-40〉 향후 출원 건수	89

〈 부록 1. 통계표 〉

표 1. 3인 협의심사 통지서 수령 경험	93
표 2.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등록 여부	94
표 3. 단독심사 대비 3인 협의심사 전반적 만족도	95
표 4. 3인 협의심사 만족이유	96
표 5. 3인 협의심사 불만족이유	97
표 6. 3인 협의심사 확대에 대한 의견	98
표 7. 3인 협의심사 선택 의향	99
표 8. 3인 협의심사 개선 의견(10순위)	100
표 9. 심사유예 제도 인지도	101
표 10. 심사유예 제도 인지 경로	102
표 11. 심사유예 제도 경험 여부	103

표 12.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104
표 13. 향후 심사유예 제도 활용 의향	105
표 14. 심사유예 제도 개선 의견(10순위)	106
표 15.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도	107
표 16.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 경로	108
표 17. 임시명세서 제도 경험 여부	109
표 18.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110
표 19. 향후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 의향	111
표 20. 임시명세서 제도 개선 의견(10순위)	112
표 21.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도	113
표 22.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 경로	114
표 23.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경험 여부	115
표 24.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116
표 25. 향후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활용 의향	117
표 26.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개선 의견(10순위)	118
표 27. 의견제출통지서 간소화에 대한 동의 여부	119
표 28. 통지서 간소화 동의 이유	120
표 29. 적절한 통지서 간소화 방안	121
표 30.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경험 여부	122
표 31.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전반적 만족도	123
표 32.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만족 이유	124
표 33.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불만족 이유	125
표 34. 특허청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126
표 35. 가장 선호하는 심사 방향	127
표 36.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에 대한 의견	128
표 37. 우선심사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129
표 38. 분할출원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130
표 39. 출원 및 등록 전략	131
표 40. 향후 출원 건수	132

제 1 장. 조사개요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특허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심사정책에 대한 외부 고객(출원인 및 대리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 품질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조사 내용

- 정책별로 인지도, 인지 경로, 지속 운영 필요성에 대한 평가 진행 및 정책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수집

구 분	내 용
3인 협의심사	- 3인 협의심사 경험 여부
	- 등록 및 거절 여부
	- 단독심사 대비 전반적 만족도
	- 좋았던 부분/불만족스러운 부분
	- 지속/확대 운영 필요성
	- 3인 협의심사 선택 의향
	- 3인 협의심사 관련 개선 의견
심사유예 제도	- 인지도/인지 경로
	- 심사유예 제도 경험 여부
	- 심사유예 제도 활용 의향
	- 심사유예 제도 관련 개선 의견
임시명세서 제도	- 인지도/인지 경로
	- 임시명세서 제도 경험 여부
	-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 의향
	- 임시명세서 제도 관련 개선 의견

구 분	내 용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 인지도/인지 경로
	- 변경된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경험 여부
	- 변경된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활용 의향
	- 변경된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관련 개선 의견
통지서 간소화 관련	- 통지서 간소화 동의 여부
	- 적절한 간소화 방안
심사관 소통 관련	- 심층 면담 관련 경험 및 전반적 만족도
	- 심층 면담 만족/불만족 이유
	- 적절한 고객과의 소통강화 방안
심사 정책 방향성	- 선호하는 심사 방향
	-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에 대한 의견
	- 우선심사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 분할출원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 출원 및 등록 전략
	- 향후 출원 건수 예측

3. 실사설계

1)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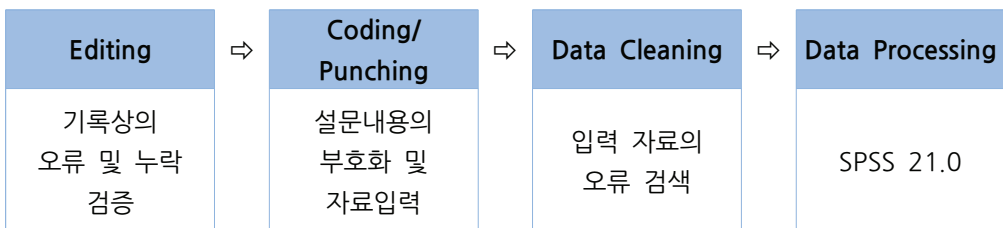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 협의심사 대상자 최근 1년간('21.7.1.~'22.6.30.) 3인 협의심사를 포함하여 특허·실용신안 심사서비스를 받은 출원인과 대리인 - 3인 협의심사 비대상자 최근 1년간('21.7.1.~'22.6.30.) 3인 협의심사 이외의 특허·실용신안 심사서비스를 받은 출원인, 대리인
목표 표본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 협의심사 대상자: 출원인 200명, 대리인 50명 - 3인 협의심사 비대상자: 출원인 200명, 대리인 50명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조사(E-mail 및 Mobile) - 응답 독려를 위한 CATI에 의한 전화조사 병행
조사기간	2022년 10월 ~ 11월 (약 2달)

2) 실사 진행 절차

절 차	세 부 내 용
조사 대상자 리스트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 동안('21.7.1.~'22.6.30.) 3인 협의심사 종결 받은 출원인, 대리인 리스트 수집 및 정리 ○ 최근 1년 동안('21.7.1.~'22.6.30.)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를 통지받은 출원인 및 대리인 리스트 정리
온라인 조사 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질문지를 바탕으로 온라인 조사 시스템 구축 및 링크 개발
조사 링크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대상자에게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조사링크 발송 ○ 특허청 홈페이지 배너 게시하여 조사 참여 안내
전화 컨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링크 1차 발송 이후 진행 경과 살핀 후 응답률이 저조한 출원인, 대리인 유형은 전화 컨택 병행

4. 자료처리 절차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 하였음



5. 응답자 특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명)	%
전 체		(532)	100.0
유형	출원인	(427)	80.3
	대리인	(105)	19.7
대표 출원인 유형 ¹⁾	개인	(138)	32.3
	기타	(289)	67.7
대표 출원인 유형 ²⁾	대기업/중견기업	(30)	7.0
	중소기업	(201)	47.1
	외국법인/개인	(7)	1.6
	대학/연구기관	(47)	11.0
	개인	(138)	32.3
	기타	(4)	0.9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50.2
	비대상	(265)	49.8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49.2
	5개 이상	(217)	50.8
심사유예 제도 인지여부	숙지	(157)	29.5
	단순인지	(276)	51.9
	비인지	(99)	18.6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여부	숙지	(145)	27.3
	단순인지	(108)	20.3
	비인지	(279)	52.4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 여부	숙지	(171)	32.1
	단순인지	(172)	32.3
	비인지	(189)	35.5
심층면담 경험 여부	있다	(160)	30.1
	없다	(372)	69.9
향후 출원 건수 예측 ²⁾	증가	(229)	53.6
	유사	(169)	39.6
	감소	(29)	6.8

1) 출원인 유형을 '개인'과 개인이 아닌 '기타' 유형으로 분류함

2) 향후 출원 건수 예측에 대한 질문은 출원인을 대상으로만 조사함

제 2장. 조사 결과

제2장. 조사 결과

1. 조사 결과

1) 3인 협의심사 제도

※ 3인 협의심사 제도란?

4차 산업혁명으로 신기술 등장 및 관련 기술들이 융·복합됨에 따라 심사관이 단독으로 기술 내용을 파악하고 정확한 심사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특허출원이 증대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정확성을 제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담당 심사관이 타 심사관들과 협의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

제도	주요 설문 내용
3인 협의심사	- 3인 협의심사 통지서 수령 경험
	- 등록 및 거절 여부
	- 단독심사 대비 전반적 만족도
	- 좋았던 부분/불만족스러운 부분
	- 지속/확대 운영 필요성
	- 3인 협의심사 선택 의향
	- 3인 협의심사 관련 개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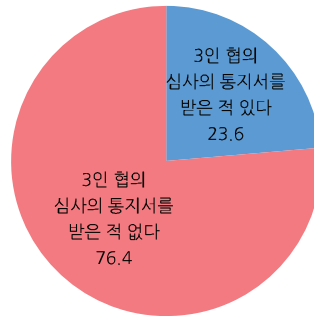
(1) 3인 협의심사 통지서 수령 경험

- 최근 1년간 3인 협의심사의 통지서가 발송된 응답자(n=267)를 대상으로 응답자 본인이 3인 협의심사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23.6%로 나타남
- 대리인이 출원인에 비해 본인이 3인 협의심사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것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편임(출원인: 18.0%, 대리인: 41.9%)
- 출원인 유형을 크게 '개인'과 개인이 아닌 '기타'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개인 출원인의 '받은 적 있다'(24.4%)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3인 협의심사 통지서 수령 인지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님
- 출원인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 결과, 대기업/중견기업(26.3%), 개인(24.4%), 외국법인/개인(20.0%) 등의 순으로 '3인 협의심사의 통지서를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그림 2-1> 3인 협의심사 통지서 수령 경험

문) (3인 협의심사 대상자만) 3인 협의심사를 통한 통지서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단위 : %)



〈표 2-1〉 3인 협의심사 통지서 수령 경험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명)	3인 협의심사의 통지서를 받은 적 있다	3인 협의심사의 통지서를 받은 적 없다
전체		(267)	23.6 (63)	76.4 (204)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205)	18.0 (37)	82.0 (168)
	대리인	(62)	41.9 (26)	58.1 (36)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45)	24.4 (11)	75.6 (34)
	기타	(160)	16.3 (26)	83.8 (134)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19)	26.3 (5)	73.7 (14)
	중소기업	(98)	14.3 (14)	85.7 (84)
	외국법인/개인	(5)	20.0 (1)	80.0 (4)
	대학/연구기관	(35)	17.1 (6)	82.9 (29)
	개인	(45)	24.4 (11)	75.6 (34)
	기타	(3)	0.0 (0)	100.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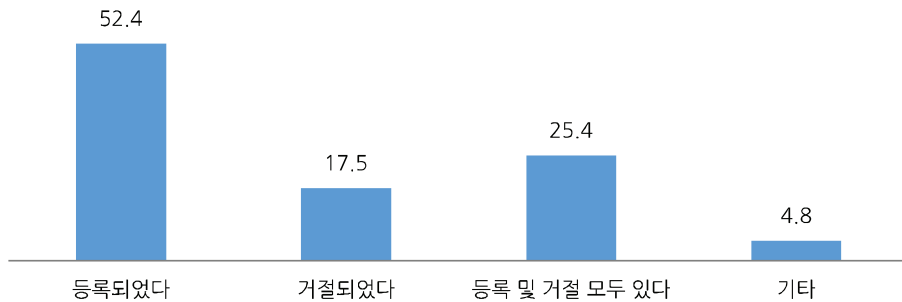
(2)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등록 여부

- 3인 협의심사 통지서를 수령한 적 있다고 인지한 응답자(n=63)를 대상으로 3인 협의심사를 통해 출원이 등록되었는지 묻은 결과, '등록되었다'(52.4%)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출원인(56.8%)이 대리인(46.2%)에 비해 '등록되었다'는 응답이 높으며, '등록 및 거절 모두 있다'는 응답은 대리인(34.6%)이 출원인(18.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출원인 유형을 크게 '개인'과 개인이 아닌 '기타'로 구분하여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기타 출원인의 '등록되었다'(61.5%)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개인 출원인은 '거절되었다'(45.5%)는 응답이 기타 출원인(7.7%)에 비해 월등히 높음
- 대기업/중견기업 출원인의 '등록되었다'(40.0%) 응답은 중소기업(78.6%)의 응답 보다 낮았으나, 사례수가 크지 않아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그림 2-2>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등록 여부

문) 3인 협의심사를 통해 출원이 등록되었습니까? 거절되었습니까?

(단위 : %)



〈표 2-2〉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등록 여부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명)	등록 되었다	거절 되었다	등록 및 거절 모두 있다	기타
전체		(63)	52.4 (33)	17.5 (11)	25.4 (16)	4.8 (3)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37)	56.8 (21)	18.9 (7)	18.9 (7)	5.4 (2)
	대리인	(26)	46.2 (12)	15.4 (4)	34.6 (9)	3.8 (1)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1)	45.5 (5)	45.5 (5)	9.1 (1)	0.0 (0)
	기타	(26)	61.5 (16)	7.7 (2)	23.1 (6)	7.7 (2)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5)	40.0 (2)	40.0 (2)	20.0 (1)	0.0 (0)
	중소기업	(14)	78.6 (11)	0.0 (0)	14.3 (2)	7.1 (1)
	외국법인/개인	(1)	0.0 (0)	0.0 (0)	100.0 (1)	0.0 (0)
	대학/연구기관	(6)	50.0 (3)	0.0 (0)	33.3 (2)	16.7 (1)
	개인	(11)	45.5 (5)	45.5 (5)	9.1 (1)	0.0 (0)
	기타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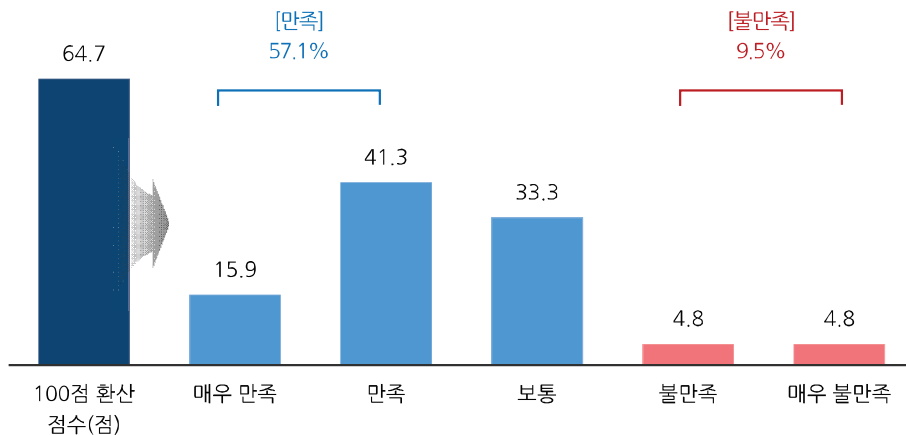
(3) 단독심사 대비 3인 협의심사 전반적 만족도

- 3인 협의심사 통지서를 수령한 적 있다고 인지한 응답자(n=63)에게 단독심사와 비교한 3인 협의심사의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만족한다'(매우 만족 + 만족)는 응답이 57.1%,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 + 불만족)는 응답이 9.5%로 나타남
- 3인 협의심사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심사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출원인과 대리인을 비교한 결과, '만족한다' 비율은 출원인(62.2%)이 대리인(5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출원인 유형을 크게 '개인'과 개인이 아닌 '기타' 출원인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매우 만족 + 만족)는 응답은 출원인 유형별 차이가 크지 않음 (개인: 63.6%, 기타 출원인: 61.5%)
- 대기업/중견기업 출원인의 '만족한다'(매우 만족 + 만족) 비율은 40.0%, 중소기업은 85.7%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크지 않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 등록여부에 따라서는 '등록되었다'는 응답자의 점수가 74.2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음

<그림 2-3> 단독심사 대비 3인 협의심사 전반적 만족도

문) 경험하셨던 3인 협의심사는 단독심사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단위 : %)



〈표 2-3〉 단독심사 대비 3인 협의심사 전반적 만족도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 만족			보통	◎ 불만족			100점 평균	
		매우 만족 한다	만족 한다	매우 불만족 한다						
전체	(63)	57.1 (36)	15.9 (10)	41.3 (26)	33.3 (21)	9.5 (6)	4.8 (3)	4.8 (3)	64.7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37)	62.2 (23)	21.6 (8)	40.5 (15)	29.7 (11)	8.1 (3)	5.4 (2)	2.7 (1)	68.2
	대리인	(26)	50.0 (13)	7.7 (2)	42.3 (11)	38.5 (10)	11.5 (3)	3.8 (1)	7.7 (2)	59.6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1)	63.6 (7)	27.3 (3)	36.4 (4)	27.3 (3)	9.1 (1)	0.0 (0)	9.1 (1)	68.2
	기타	(26)	61.5 (16)	19.2 (5)	42.3 (11)	30.8 (8)	7.7 (2)	7.7 (2)	0.0 (0)	68.3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5)	40.0 (2)	0.0 (0)	40.0 (2)	40.0 (2)	20.0 (1)	20.0 (1)	0.0 (0)	55.0
	중소기업	(14)	85.7 (12)	35.7 (5)	50.0 (7)	7.1 (1)	7.1 (1)	7.1 (1)	0.0 (0)	78.6
	외국법인/개인	(1)	100.0 (1)	0.0 (0)	100.0 (1)	0.0 (0)	0.0 (0)	0.0 (0)	0.0 (0)	75.0
	대학/연구기관	(6)	16.7 (1)	0.0 (0)	16.7 (1)	83.3 (5)	0.0 (0)	0.0 (0)	0.0 (0)	54.2
	개인	(11)	63.6 (7)	27.3 (3)	36.4 (4)	27.3 (3)	9.1 (1)	0.0 (0)	9.1 (1)	68.2
	기타	-	-	-	-	-	-	-	-	-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여부	등록	(33)	75.8 (25)	24.2 (8)	51.5 (17)	21.2 (7)	3.0 (1)	3.0 (1)	0.0 (0)	74.2
	거절	(11)	36.4 (4)	0.0 (0)	36.4 (4)	36.4 (4)	27.3 (3)	9.1 (1)	18.2 (2)	47.7
	등록 및 거절 모두	(16)	43.8 (7)	12.5 (2)	31.3 (5)	43.8 (7)	12.5 (2)	6.3 (1)	6.3 (1)	59.4
	기타	(3)	0.0 (0)	0.0 (0)	0.0 (0)	100.0 (3)	0.0 (0)	0.0 (0)	0.0 (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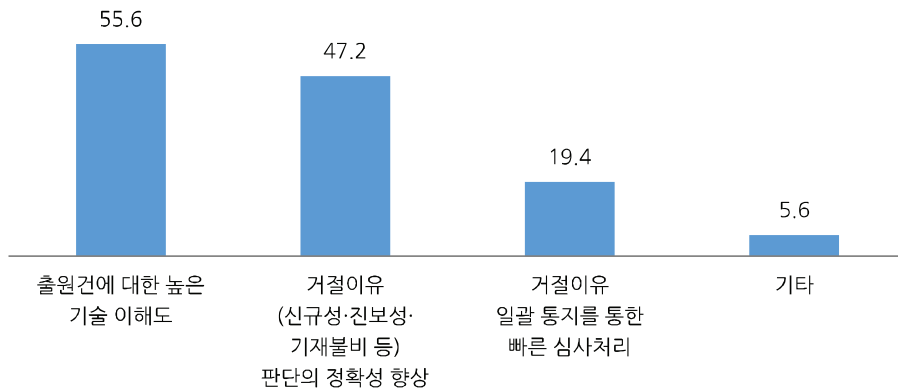
(4) 3인 협의심사 만족이유

- 3인 협의심사가 만족스러웠다는 응답자(n=36)³⁾를 대상으로 어떠한 점이 만족스러웠는지 중복 선택할 수 있게 묻은 결과, ‘출원건에 대한 높은 기술 이해도’(55.6%)가 가장 높았으며, ‘거절이유(신규성·진보성·기재불비 등) 판단의 정확성 향상’(47.2%)가 뒤를 이음
- 출원인은 ‘출원건에 대한 높은 기술 이해도’(60.9%)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리인은 ‘거절이유(신규성·진보성·기재불비 등) 판단의 정확성 향상’(53.8%)이 가장 높게 나타남. 출원인의 경우 ‘거절이유 일괄 통지를 통한 빠른 심사처리’(13.0%)가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2-4> 3인 협의심사 만족이유

문) 어떠한 점이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단위 : %)



3) '경험하셨던 3인 협의심사는 단독심사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질문에 '매우 만족', '만족' 선택한 응답자

〈표 2-4〉 3인 협의심사 만족이유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출원건에 대한 높은 기술 이해도	거절이유 (신규성·진보성· 기재불비 등) 판단의 정확성 향상	거절이유 일괄 통지를 통한 빠른 심사처리	기타
전체		(36)	55.6 (20)	47.2 (17)	19.4 (7)	5.6 (2)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23)	60.9 (14)	43.5 (10)	13.0 (3)	4.3 (1)
	대리인	(13)	46.2 (6)	53.8 (7)	30.8 (4)	7.7 (1)
대표출원인 유형	개인	(7)	57.1 (4)	42.9 (3)	14.3 (1)	0.0 (0)
	기타	(16)	62.5 (10)	43.8 (7)	12.5 (2)	6.3 (1)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2)	50.0 (1)	100.0 (2)	0.0 (0)	0.0 (0)
	중소기업	(12)	66.7 (8)	41.7 (5)	8.3 (1)	8.3 (1)
	외국법인/개인	(1)	0.0 (0)	0.0 (0)	100.0 (1)	0.0 (0)
	대학/연구기관	(1)	100.0 (1)	0.0 (0)	0.0 (0)	0.0 (0)
	개인	(7)	57.1 (4)	42.9 (3)	14.3 (1)	0.0 (0)
	기타	-	-	-	-	-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여부	등록	(25)	64.0 (16)	48.0 (12)	12.0 (3)	8.0 (2)
	거절	(4)	25.0 (1)	50.0 (2)	50.0 (2)	0.0 (0)
	등록 및 거절 모두	(7)	42.9 (3)	42.9 (3)	28.6 (2)	0.0 (0)
	기타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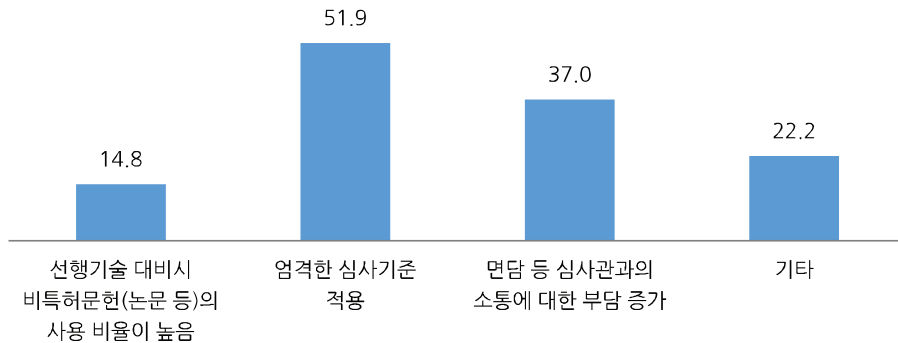
(5) 3인 협의심사 불만족 이유

- 3인 협의심사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응답자(n=27)⁴⁾를 대상으로 어떠한 이유로 불만족하였는지 중복 선택할 수 있게 물은 결과,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51.9%)이 가장 높았으며, ‘면담 등 심사관과의 소통에 대한 부담 증가’(37.0%)가 뒤를 이음
- 출원인과 대리인 모두 ‘엄격한 심사 기준 적용’을 1순위로 꼽았으며, 출원인의 경우 ‘선행기술 대비 시 비특허문헌(논문 등)의 사용 비율이 높음’ 응답이 21.4%로 대리인(7.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그림 2-5> 3인 협의심사 불만족이유

문) 어떠한 점이 불만족스러우셨습니까?

(단위 : %)



4) '경험하셨던 3인 협의심사는 단독심사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질문에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선택한 응답자

〈표 2-5〉 3인 협의심사 불만족이유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선행 기술 대비시 비특허문헌 (논문 등)의 사용 비율이 높음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면담 등 심사관과의 소통에 대한 부담 증가	기타
전체		(27)	14.8 (4)	51.9 (14)	37.0 (10)	22.2 (6)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14)	21.4 (3)	57.1 (8)	42.9 (6)	21.4 (3)
	대리인	(13)	7.7 (1)	46.2 (6)	30.8 (4)	23.1 (3)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4)	75.0 (3)	75.0 (3)	25.0 (1)	25.0 (1)
	기타	(10)	0.0 (0)	50.0 (5)	50.0 (5)	20.0 (2)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	0.0 (0)	33.3 (1)	66.7 (2)	33.3 (1)
	중소기업	(2)	0.0 (0)	50.0 (1)	50.0 (1)	0.0 (0)
	외국법인/개인	-	-	-	-	-
	대학/연구기관	(5)	0.0 (0)	60.0 (3)	40.0 (2)	20.0 (1)
	개인	(4)	75.0 (3)	75.0 (3)	25.0 (1)	25.0 (1)
	기타	-	-	-	-	-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여부	등록	(8)	12.5 (1)	37.5 (3)	50.0 (4)	12.5 (1)
	거절	(7)	28.6 (2)	57.1 (4)	28.6 (2)	28.6 (2)
	등록 및 거절 모두	(9)	11.1 (1)	66.7 (6)	44.4 (4)	11.1 (1)
	기타	(3)	0.0 (0)	33.3 (1)	0.0 (0)	66.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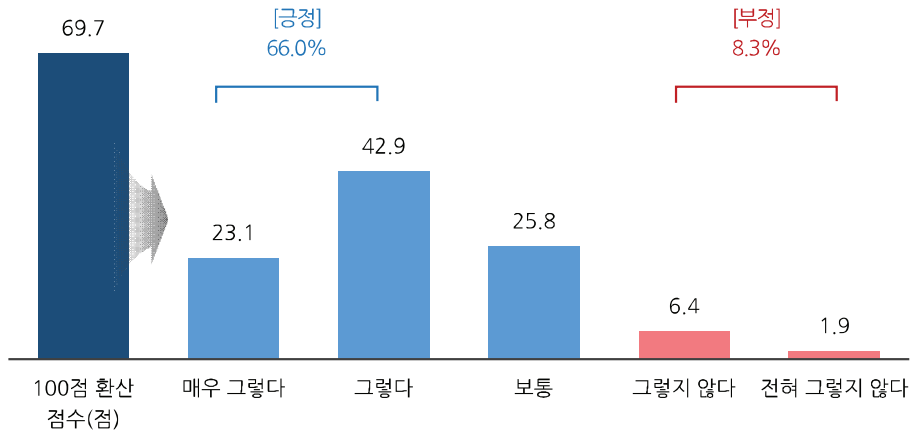
(6) 3인 협의심사 확대에 대한 의견

- 전체 응답자(n=532)에게 3인 협의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 그렇다)이 66.0%, 부정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이 8.3%로 나타남
- 대리인의 경우 부정 응답이 21.9%로 출원인의 부정 응답(4.9%)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출원인이 3인 협의심사 확대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중소기업(n=201) 출원인의 3인 협의심사 확대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73.6%, 대기업/중견기업(n=30) 출원인은 73.3%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두 유형의 긍정 응답이 출원인 전체 유형 중 각각 1, 2순위를 차지함. 다만, 출원인 유형 간 사례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에 따라서는 3인 협의심사 확대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대상자' 긍정 응답: 64.4%, '비대상자' 긍정 응답: 67.5%)

<그림 2-6> 3인 협의심사 확대에 대한 의견

문) 특허청이 3인 협의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표 2-6〉 3인 협의심사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 긍정		보통	◎ 부정			100점 평균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32)	66.0 (351)	23.1 (123)	42.9 (228)	25.8 (137)	8.3 (44)	6.4 (34)	1.9 (10)	69.7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71.0 (303)	25.3 (108)	45.7 (195)	24.1 (103)	4.9 (21)	4.2 (18)	0.7 (3)	72.7
	대리인	(105)	45.7 (48)	14.3 (15)	31.4 (33)	32.4 (34)	21.9 (23)	15.2 (16)	6.7 (7)	57.9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71.7 (99)	29.0 (40)	42.8 (59)	23.9 (33)	4.3 (6)	4.3 (6)	0.0 (0)	74.1
	기타	(289)	70.6 (204)	23.5 (68)	47.1 (136)	24.2 (70)	5.2 (15)	4.2 (12)	1.0 (3)	72.0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73.3 (22)	16.7 (5)	56.7 (17)	20.0 (6)	6.7 (2)	6.7 (2)	0.0 (0)	70.8
	중소기업	(201)	73.6 (148)	27.4 (55)	46.3 (93)	22.4 (45)	4.0 (8)	3.0 (6)	1.0 (2)	74.0
	외국법인/개인	(7)	14.3 (1)	14.3 (1)	0.0 (0)	57.1 (4)	28.6 (2)	14.3 (1)	14.3 (1)	46.4
	대학/연구기관	(47)	66.0 (31)	12.8 (6)	53.2 (25)	29.8 (14)	4.3 (2)	4.3 (2)	0.0 (0)	68.6
	개인	(138)	71.7 (99)	29.0 (40)	42.8 (59)	23.9 (33)	4.3 (6)	4.3 (6)	0.0 (0)	74.1
	기타	(4)	50.0 (2)	25.0 (1)	25.0 (1)	25.0 (1)	25.0 (1)	25.0 (1)	0.0 (0)	62.5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64.4 (172)	22.8 (61)	41.6 (111)	27.7 (74)	7.9 (21)	5.2 (14)	2.6 (7)	69.2
	비대상	(265)	67.5 (179)	23.4 (62)	44.2 (117)	23.8 (63)	8.7 (23)	7.5 (20)	1.1 (3)	70.3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여부	등록	(33)	63.6 (21)	21.2 (7)	42.4 (14)	27.3 (9)	9.1 (3)	3.0 (1)	6.1 (2)	67.4
	거절	(11)	36.4 (4)	0.0 (0)	36.4 (4)	36.4 (4)	27.3 (3)	18.2 (2)	9.1 (1)	50.0
	등록 및 거절 모두	(16)	37.5 (6)	12.5 (2)	25.0 (4)	37.5 (6)	25.0 (4)	12.5 (2)	12.5 (2)	53.1
	기타	(3)	33.3 (1)	0.0 (0)	33.3 (1)	66.7 (2)	0.0 (0)	0.0 (0)	0.0 (0)	5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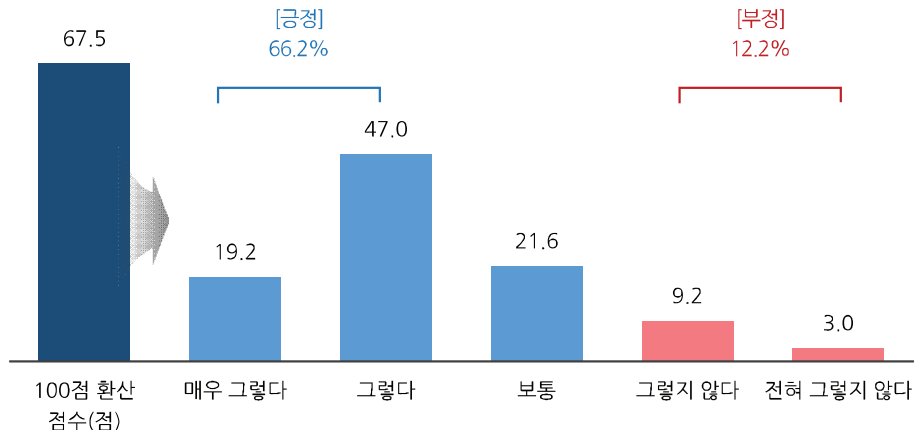
(7) 3인 협의심사 선택 의향

- 전체 응답자에게 향후 3인 협의심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 그렇다)이 66.2%, 부정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이 12.2%로 나타남
- 대리인의 경우 부정 응답이 31.4%로 출원인의 부정 응답(7.5%)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출원인이 향후 3인 협의심사 선택할 의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출원인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핀 결과, 개인(79.0%), 중소기업(71.1%)의 긍정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대기업/중견기업 출원인의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 그렇다) 비율은 60.0%, 중소기업은 71.1%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에 따라서는 향후 3인 협의심사 선택 의향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두 60% 이상의 긍정 비율을 보임(‘대상자’ 긍정 응답: 66.3%, ‘비대상자’ 긍정 응답: 66.0%)

<그림 2-7> 3인 협의심사 선택 의향

문) 3인 협의심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귀하(귀사)는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위 : %)



〈표 2-7〉 3인 협의심사 선택 의향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 긍정		보통	◎ 부정			100점 평균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32)	66.2 (352)	19.2 (102)	47.0 (250)	21.6 (115)	12.2 (65)	9.2 (49)	3.0 (16)	67.5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70.7 (302)	20.8 (89)	49.9 (213)	21.8 (93)	7.5 (32)	6.6 (28)	0.9 (4)	70.8
	대리인	(105)	47.6 (50)	12.4 (13)	35.2 (37)	21.0 (22)	31.4 (33)	20.0 (21)	11.4 (12)	54.3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79.0 (109)	28.3 (39)	50.7 (70)	15.2 (21)	5.8 (8)	5.1 (7)	0.7 (1)	75.2
	기타	(289)	66.8 (193)	17.3 (50)	49.5 (143)	24.9 (72)	8.3 (24)	7.3 (21)	1.0 (3)	68.7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60.0 (18)	10.0 (3)	50.0 (15)	30.0 (9)	10.0 (3)	10.0 (3)	0.0 (0)	65.0
	중소기업	(201)	71.1 (143)	19.9 (40)	51.2 (103)	21.9 (44)	7.0 (14)	5.5 (11)	1.5 (3)	70.7
	외국법인/개인	(7)	42.9 (3)	14.3 (1)	28.6 (2)	14.3 (1)	42.9 (3)	42.9 (3)	0.0 (0)	53.6
	대학/연구기관	(47)	59.6 (28)	10.6 (5)	48.9 (23)	34.0 (16)	6.4 (3)	6.4 (3)	0.0 (0)	66.0
	개인	(138)	79.0 (109)	28.3 (39)	50.7 (70)	15.2 (21)	5.8 (8)	5.1 (7)	0.7 (1)	75.2
	기타	(4)	25.0 (1)	25.0 (1)	0.0 (0)	50.0 (2)	25.0 (1)	25.0 (1)	0.0 (0)	56.3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66.3 (177)	18.7 (50)	47.6 (127)	21.7 (58)	12.0 (32)	8.6 (23)	3.4 (9)	67.4
	비대상	(265)	66.0 (175)	19.6 (52)	46.4 (123)	21.5 (57)	12.5 (33)	9.8 (26)	2.6 (7)	67.6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여부	등록	(33)	66.7 (22)	21.2 (7)	45.5 (15)	18.2 (6)	15.2 (5)	9.1 (3)	6.1 (2)	66.7
	거절	(11)	54.5 (6)	0.0 (0)	54.5 (6)	18.2 (2)	27.3 (3)	18.2 (2)	9.1 (1)	54.6
	등록 및 거절 모두	(16)	43.8 (7)	12.5 (2)	31.3 (5)	18.8 (3)	37.5 (6)	18.8 (3)	18.8 (3)	50.0
	기타	(3)	33.3 (1)	0.0 (0)	33.3 (1)	66.7 (2)	0.0 (0)	0.0 (0)	0.0 (0)	58.3

(8) 3인 협의심사 개선 의견

- 전체 응답자 중 15.8%는 3인 협의심사 개선 의견으로 ‘심사 처리 속도가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꼽음
- 그 다음으로 ‘심사관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9%, ‘제도의 활성화 바란다’는 응답이 3.2% 등으로 나타남

<표 2-8> 3인 협의심사 개선 의견

(단위 : %)

구 분 (상위 10위, N=532)	사례수 (명)	%
없다	158	29.7
심사 처리 속도가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84	15.8
심사관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42	7.9
제도의 활성화 바란다	17	3.2
3인 간 협의/의견수렴이 잘 되어야 한다 ⁵⁾	16	3.0
3인 각각의 의견/심사 내용을 알 수 있으면 한다	14	2.6
심사의 일관성 및 정확성이 향상되었으면 한다	14	2.6
3인 심사관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바란다	13	2.4
심사의 객관성 확대 바란다	13	2.4
1인 주심과 2인 부심사관 제도가 있으면 한다	12	2.3

5) 구체적인 응답으로는 ‘위계에 따른 심사 결과가 반복될 수 있어 소신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 바람’, ‘합의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수행되도록 할 수 있는 운영제도 확립이 필요함’, ‘1인 개인 의견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함’ 등이 조사됨

2) 심사유예 제도

※ **심사유예 제도란?**

심사청구일로부터 24개월~출원일로부터 5년까지 심사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로, 출원인이 희망하는 시점에 심사 결과를 제공받아 출원 관리가 쉬우며, 조기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제도	주요 설문 내용
심사유예 제도	- 인지도/인지 경로
	- 심사유예 제도 경험 여부
	- (미경험자)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심사유예 제도 활용 의향
	- 심사유예 제도 관련 개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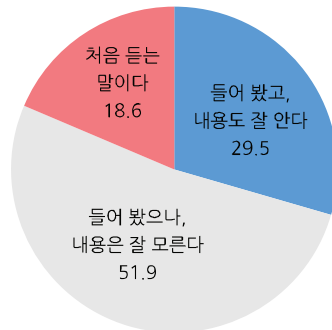
(1) 심사유예 제도 인지도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심사유예 제도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들어봤으나 내용은 잘 모르다’는 응답이 51.9%, ‘들어봤고 내용도 잘 안다’는 응답이 29.5%로 나타남. 비인지자는 18.6%로 80% 이상의 응답자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음
- 숙지자(‘들어봤고, 내용도 잘 안다’)의 비율은 출원인(22.7%)에 비해서 대리인(57.1%)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출원인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 결과, ‘들어봤고 내용도 잘 안다’는 숙지자의 비율은 대학/연구기관(63.8%)이 가장 높고, ‘처음 듣는다’는 비인지자 비율은 개인(28.3%)이 높게 나타남
- 출원인 유형을 기업별로 비교한 결과 대기업/중견기업의 비인지자는 20.0%, 중소기업은 21.9%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2-8> 심사유예 제도 인지도

문) 오늘 이전에 “심사유예 제도”에 대해 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단위 : %)



〈표 2-10〉 심사유예 제도 인지도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들어 봤고, 내용도 잘 안다	들어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처음 듣는 말이다
전체		(532)	29.5 (157)	51.9 (276)	18.6 (99)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22.7 (97)	56.2 (240)	21.1 (90)
	대리인	(105)	57.1 (60)	34.3 (36)	8.6 (9)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17.4 (24)	54.3 (75)	28.3 (39)
	기타	(289)	25.3 (73)	57.1 (165)	17.6 (51)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40.0 (12)	40.0 (12)	20.0 (6)
	중소기업	(201)	13.9 (28)	64.2 (129)	21.9 (44)
	외국법인/개인	(7)	28.6 (2)	71.4 (5)	0.0 (0)
	대학/연구기관	(47)	63.8 (30)	34.0 (16)	2.1 (1)
	개인	(138)	17.4 (24)	54.3 (75)	28.3 (39)
	기타	(4)	25.0 (1)	75.0 (3)	0.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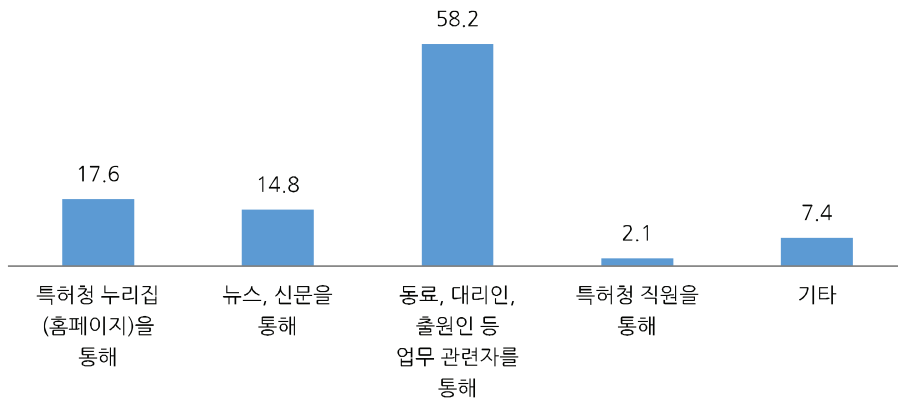
(2) 심사유예 제도 인지 경로

- 심사유예 제도 인지자(n=433)를 대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제도를 알게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동료, 대리인, 출원인 등 업무 관련자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허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17.6%)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음
- 출원인과 대리인 모두 ‘업무 관련자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으나, 출원인의 경우 ‘뉴스, 신문을 통해’(17.2%)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출원인을 세부 유형에 따라 비교해보면, 모든 출원인 유형에서 ‘업무 관련자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개인 출원인의 경우 ‘뉴스, 신문을 통해’(28.3%),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25.3%) 알게 된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대기업/중견기업(62.5%) 출원인과 중소기업(58.0%) 출원인 모두 ‘업무 관련자를 통해’ 심사유예 제도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특허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중소기업(20.4%)이 대기업/중견기업(4.2%) 대비 상대적으로 높으나, 대기업/중견기업 출원인의 사례수가 크지 않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그림 2-9〉 심사유예 제도 인지 경로

문) 어떤 경로를 통해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단위 : %)



〈표 2-11〉 심사유예 제도 인지 경로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특허청 누리집 (홈페이지)을 통해	뉴스, 신문을 통해	동료, 대리인, 출원인 등 업무 관련자를 통해	특허청 직원을 통해	기타
전체		(433)	17.6 (76)	14.8 (64)	58.2 (252)	2.1 (9)	7.4 (32)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337)	19.0 (64)	17.2 (58)	55.2 (186)	2.1 (7)	6.5 (22)
	대리인	(96)	12.5 (12)	6.3 (6)	68.8 (66)	2.1 (2)	10.4 (10)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99)	25.3 (25)	28.3 (28)	38.4 (38)	4.0 (4)	4.0 (4)
	기타	(238)	16.4 (39)	12.6 (30)	62.2 (148)	1.3 (3)	7.6 (18)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24)	4.2 (1)	20.8 (5)	62.5 (15)	0.0 (0)	12.5 (3)
	중소기업	(157)	20.4 (32)	14.6 (23)	58.0 (91)	1.9 (3)	5.1 (8)
	외국법인/개인	(7)	14.3 (1)	14.3 (1)	42.9 (3)	0.0 (0)	28.6 (2)
	대학/연구기관	(46)	10.9 (5)	0.0 (0)	78.3 (36)	0.0 (0)	10.9 (5)
	개인	(99)	25.3 (25)	28.3 (28)	38.4 (38)	4.0 (4)	4.0 (4)
	기타	(4)	0.0 (0)	25.0 (1)	75.0 (3)	0.0 (0)	0.0 (0)
심사유예 제도 인지여부	숙지	(157)	17.8 (28)	4.5 (7)	63.7 (100)	2.5 (4)	11.5 (18)
	단순인지	(276)	17.4 (48)	20.7 (57)	55.1 (152)	1.8 (5)	5.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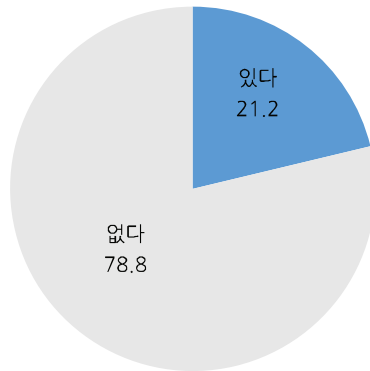
(3) 심사유예 제도 경험 여부

- 심사유예 제도 인지자(n=433) 중 해당 제도를 경험한 사람은 21.2%로 나타남
- 출원인의 세부 유형에 따라서는 대학/연구기관의 심사유예 제도 경험 비율(54.3%)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기업/중견기업 출원인의 경험 비율은 16.7%, 중소기업은 14.6%로 경험 비율이 낮음

<그림 2-10> 심사유예 제도 경험 여부

문) 귀사(귀하)는 심사유예 제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위 : %)



〈표 2-12〉 심사유예 제도 경험 여부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전체		(433)	21.2 (92)	78.8 (341)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337)	19.6 (66)	80.4 (271)
	대리인	(96)	27.1 (26)	72.9 (70)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99)	14.1 (14)	85.9 (85)
	기타	(238)	21.8 (52)	78.2 (186)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24)	16.7 (4)	83.3 (20)
	중소기업	(157)	14.6 (23)	85.4 (134)
	외국법인/개인	(7)	0.0 (0)	100.0 (7)
	대학/연구기관	(46)	54.3 (25)	45.7 (21)
	개인	(99)	14.1 (14)	85.9 (85)
	기타	(4)	0.0 (0)	100.0 (4)
심사유예 제도 인지여부	숙지	(157)	40.8 (64)	59.2 (93)
	단순인지	(276)	10.1 (28)	89.9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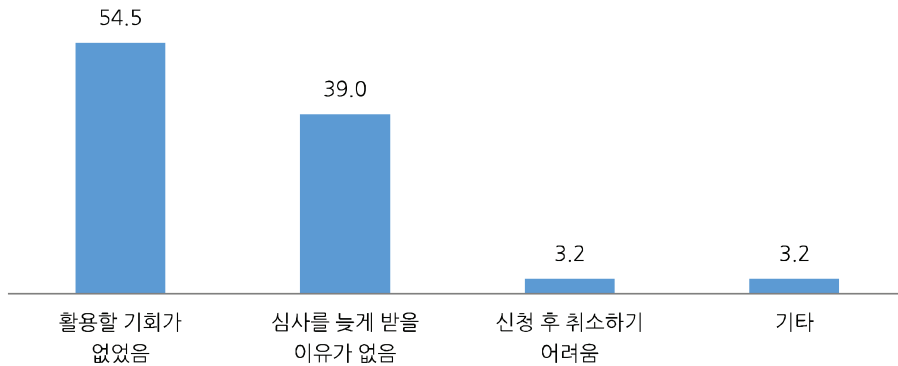
(4)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응답자(n=341)에게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묻은 결과, '활용할 기회가 없었다' 응답이 54.5%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심사를 늦게 받을 이유가 없었다'(39.0%)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음
- 출원인의 세부 유형에 따라서는 대기업/중견기업의 '활용할 기회가 없었다'(60.0%)는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출원인 유형에서 '활용할 기회가 없어서' 활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았음

<그림 2-11>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문)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



〈표 2-13〉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활용할 기회가 없었음	심사를 늦게 받을 이유가 없음	신청 후 취소하기 어려움	기타
전체		(341)	54.5 (186)	39.0 (133)	3.2 (11)	3.2 (11)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271)	54.6 (148)	39.9 (108)	3.3 (9)	2.2 (6)
	대리인	(70)	54.3 (38)	35.7 (25)	2.9 (2)	7.1 (5)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85)	51.8 (44)	41.2 (35)	4.7 (4)	2.4 (2)
	기타	(186)	55.9 (104)	39.2 (73)	2.7 (5)	2.2 (4)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20)	60.0 (12)	35.0 (7)	0.0 (0)	5.0 (1)
	중소기업	(134)	56.7 (76)	38.1 (51)	3.7 (5)	1.5 (2)
	외국법인/개인	(7)	57.1 (4)	42.9 (3)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21)	47.6 (10)	47.6 (10)	0.0 (0)	4.8 (1)
	개인	(85)	51.8 (44)	41.2 (35)	4.7 (4)	2.4 (2)
	기타	(4)	50.0 (2)	50.0 (2)	0.0 (0)	0.0 (0)
심사유예 제도 인지여부	숙지	(93)	46.2 (43)	46.2 (43)	3.2 (3)	4.3 (4)
	단순인지	(248)	57.7 (143)	36.3 (90)	3.2 (8)	2.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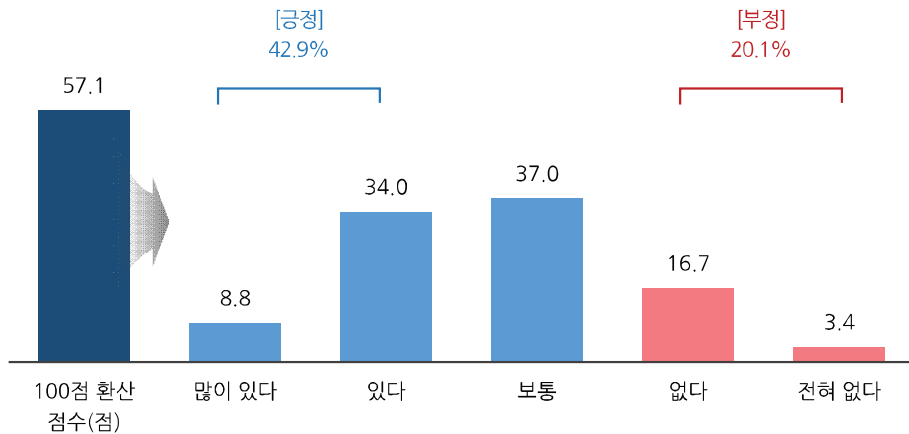
(5) 향후 심사유예 제도 활용 의향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할 의향을 물어본 결과, 긍정 응답(많이 있다 + 있다)이 42.9%, 부정 응답(전혀 없다 + 없다)이 20.1%로 나타남
- 대기업/중견기업 출원인의 활용 의향은 46.7%, 중소기업은 42.3%로 대기업/중견기업 출원인의 향후 심사유예 제도 활용 의향이 소폭 높음
- 출원인 유형 전반적으로 향후 심사유예제도 활용 의향은 40%대로 나타났으나, 외국법인/개인 출원인의 향후 활용 의향은 28.6%로 특히 낮음. 다만, 외국법인/개인 출원인(n=7)의 사례수가 크지 않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 향후 심사유예 제도 활용 의향이 심사유예제도 유경험자(65.2%)가 무경험자(35.8%)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음

<그림 2-12> 향후 심사유예 제도 활용 의향

문) 귀하(귀사)는 향후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실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단위 : %)



〈표 2-14〉 향후 심사유예 제도 활용 의향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 긍정		보통	◎ 부정		100점 평균		
			많이 있다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전체		(532)	42.9 (228)	8.8 (47)	34.0 (181)	37.0 (197)	20.1 (107)	16.7 (89)	3.4 (18)	57.1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43.8 (187)	9.1 (39)	34.7 (148)	36.8 (157)	19.4 (83)	16.2 (69)	3.3 (14)	57.6
	대리인	(105)	39.0 (41)	7.6 (8)	31.4 (33)	38.1 (40)	22.9 (24)	19.0 (20)	3.8 (4)	55.0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46.4 (64)	10.1 (14)	36.2 (50)	31.9 (44)	21.7 (30)	15.2 (21)	6.5 (9)	57.1
	기타	(289)	42.6 (123)	8.7 (25)	33.9 (98)	39.1 (113)	18.3 (53)	16.6 (48)	1.7 (5)	57.8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46.7 (14)	3.3 (1)	43.3 (13)	43.3 (13)	10.0 (3)	10.0 (3)	0.0 (0)	60.0
	중소기업	(201)	42.3 (85)	10.0 (20)	32.3 (65)	36.8 (74)	20.9 (42)	19.4 (39)	1.5 (3)	57.5
	외국법인/개인	(7)	28.6 (2)	0.0 (0)	28.6 (2)	42.9 (3)	28.6 (2)	28.6 (2)	0.0 (0)	50.0
	대학/연구기관	(47)	46.8 (22)	8.5 (4)	38.3 (18)	44.7 (21)	8.5 (4)	6.4 (3)	2.1 (1)	61.2
	개인	(138)	46.4 (64)	10.1 (14)	36.2 (50)	31.9 (44)	21.7 (30)	15.2 (21)	6.5 (9)	57.1
	기타	(4)	0.0 (0)	0.0 (0)	0.0 (0)	50.0 (2)	50.0 (2)	25.0 (1)	25.0 (1)	31.3
심사유예 제도 인지여부	숙지	(157)	46.5 (73)	9.6 (15)	36.9 (58)	31.8 (50)	21.7 (34)	17.8 (28)	3.8 (6)	57.6
	단순인지	(276)	39.5 (109)	6.5 (18)	33.0 (91)	39.1 (108)	21.4 (59)	17.8 (49)	3.6 (10)	55.3
	비인지	(99)	46.5 (46)	14.1 (14)	32.3 (32)	39.4 (39)	14.1 (14)	12.1 (12)	2.0 (2)	61.1
심사유예 제도 경험 여부	있음	(92)	65.2 (60)	14.1 (13)	51.1 (47)	22.8 (21)	12.0 (11)	9.8 (9)	2.2 (2)	66.3
	없음	(341)	35.8 (122)	5.9 (20)	29.9 (102)	40.2 (137)	24.0 (82)	19.9 (68)	4.1 (14)	53.4

(6) 심사유예 제도 개선 의견

- 심사유예 제도 개선 의견 관련하여 ‘홍보 강화 바란다’(7.7%)는 의견이 1순위로 나타났고, ‘제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5.8%), ‘신청기간 연장 및 확대 바란다’(5.3%) 순으로 의견이 제시됨
- 심사유예 제도와 관련하여 홍보, 관련 정보 전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순위권 안에 분포함

<표 2-15> 심사유예 제도 개선 의견

(단위 : %)

구 분 (상위 10위, N=532)	사례수 (명)	%
없다	295	55.5
홍보 강화 바란다	41	7.7
제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31	5.8
신청기간 연장 및 확대 바란다	28	5.3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9	3.6
제도의 차별성/메리트가 없다	16	3.0
기술분야/출원인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1	2.1
전략적으로 이용 및 악용 방지 방안이 필요하다	9	1.7
신속한 심사 처리 바란다	7	1.3
기간 짧았으면 한다	6	1.1

3) 임시명세서 제도

※ 임시명세서 제도란?(’20.3월 시행)

기존의 정해진 명세서 형식을 따르지 않고, 기술 개발을 위해 작성했던 논문, 연구노트, 기술서 등 원본 그대로 출원 가능한 제도로,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기존의 명세서 형식으로 제출 가능

제도	주요 설문 내용
임시명세서 제도	- 인지도/인지 경로
	- 임시명세서 제도 경험 여부
	- (미경험자)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 의향
	- 임시명세서 제도 관련 개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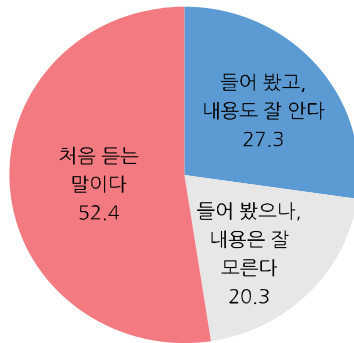
(1)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도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임시명세서 제도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묻은 결과 ‘들어봤고 내용도 잘 안다’는 응답이 27.3%, ‘들어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20.3%로 나타남. 비인지자는 52.4%로 절반 수준의 응답자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음
- 숙지자(‘들어봤고, 내용도 잘 안다’)의 비율은 출원인(18.0%)에 비해 대리인(64.8%)이 월등히 높음
- 출원인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핀 결과, 숙지자의 비율은 대학/연구기관(55.3%)이 가장 높고, 비인지자(‘처음 듣는다’)는 응답 비율은 개인(71.7%) 출원인이 높게 나타남
- 출원인 유형을 기업별로 비교한 결과 대기업/중견기업의 숙지자는 40.0%, 중소기업은 13.4%로 대기업/중견기업의 숙지자 비율이 높음. 비인지자는 중소기업(65.7%) 출원인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음. 다만, 두 유형 간 사례수 차이가 크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그림 2-13>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도

문) 오늘 이전에 “임시명세서 제도”에 대해 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단위 : %)



〈표 2-17〉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도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들어 봤고, 내용도 잘 안다	들어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처음 듣는 말이다
전체		(532)	27.3 (145)	20.3 (108)	52.4 (279)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18.0 (77)	21.1 (90)	60.9 (260)
	대리인	(105)	64.8 (68)	17.1 (18)	18.1 (19)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6.5 (9)	21.7 (30)	71.7 (99)
	기타	(289)	23.5 (68)	20.8 (60)	55.7 (161)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40.0 (12)	26.7 (8)	33.3 (10)
	중소기업	(201)	13.4 (27)	20.9 (42)	65.7 (132)
	외국법인/개인	(7)	14.3 (1)	42.9 (3)	42.9 (3)
	대학/연구기관	(47)	55.3 (26)	14.9 (7)	29.8 (14)
	개인	(138)	6.5 (9)	21.7 (30)	71.7 (99)
	기타	(4)	50.0 (2)	0.0 (0)	50.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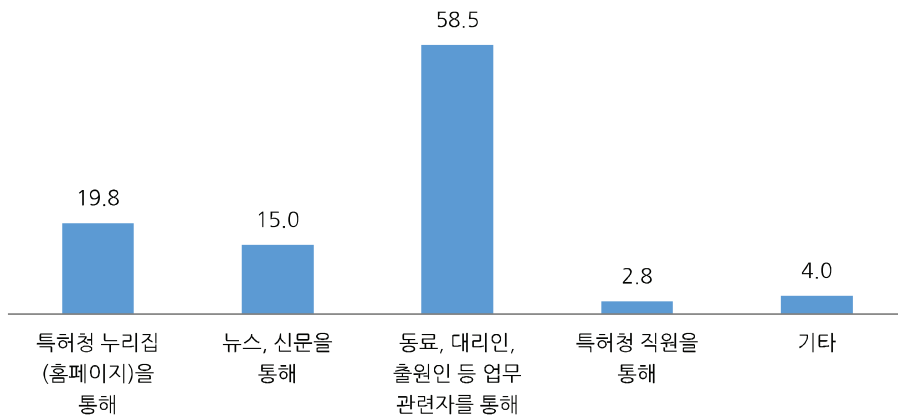
(2)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 경로

-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자(n=253)를 대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제도를 알게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동료, 대리인, 출원인 등 업무 관련자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58.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허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19.8%)라는 응답이 높음
- 출원인과 대리인 모두 ‘업무 관련자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으나, 출원인의 경우 ‘뉴스, 신문을 통해’(16.8%)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출원인을 세부 유형에 따라 비교해보면, 모든 유형에서 ‘업무 관련자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높음. 대기업/중견기업(60.0%)과 중소기업(52.2%) 출원인 또한 업무 관련자를 통해 임시명세서 제도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그림 2-14>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 경로

문) 어떤 경로를 통해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단위 : %)



〈표 2-18〉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 경로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특허청 누리집 (홈페이지)을 통해	뉴스, 신문을 통해	동료, 대리인, 출원인 등 업무 관련자를 통해	특허청 직원을 통해	기타
전체		(253)	19.8 (50)	15.0 (38)	58.5 (148)	2.8 (7)	4.0 (10)
출원인/대 리인	출원인	(167)	20.4 (34)	16.8 (28)	56.3 (94)	4.2 (7)	2.4 (4)
	대리인	(86)	18.6 (16)	11.6 (10)	62.8 (54)	0.0 (0)	7.0 (6)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39)	25.6 (10)	28.2 (11)	41.0 (16)	5.1 (2)	0.0 (0)
	기타	(128)	18.8 (24)	13.3 (17)	60.9 (78)	3.9 (5)	3.1 (4)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20)	20.0 (4)	15.0 (3)	60.0 (12)	0.0 (0)	5.0 (1)
	중소기업	(69)	21.7 (15)	17.4 (12)	52.2 (36)	5.8 (4)	2.9 (2)
	외국법인/개인	(4)	25.0 (1)	25.0 (1)	50.0 (2)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33)	12.1 (4)	3.0 (1)	78.8 (26)	3.0 (1)	3.0 (1)
	개인	(39)	25.6 (10)	28.2 (11)	41.0 (16)	5.1 (2)	0.0 (0)
	기타	(2)	0.0 (0)	0.0 (0)	100.0 (2)	0.0 (0)	0.0 (0)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여부	숙지	(145)	19.3 (28)	7.6 (11)	65.5 (95)	1.4 (2)	6.2 (9)
	단순인지	(108)	20.4 (22)	25.0 (27)	49.1 (53)	4.6 (5)	0.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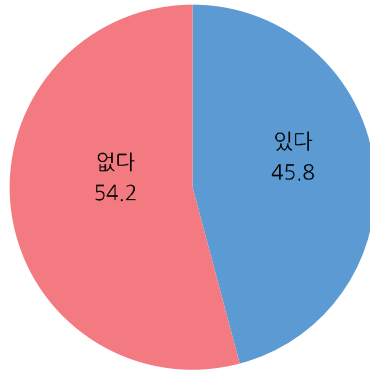
(3) 임시명세서 제도 경험 여부

-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자(n=253) 중 해당 제도를 경험한 사람은 45.8%로 나타남
- 출원인의 세부 유형에 따라서는 대학/연구기관의 임시명세서 제도 경험 비율(81.8%)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출원인의 제도 경험 비율은 31.9%로 대기업/중견기업(50.0%) 출원인의 경험 비율 대비 낮음

<그림 2-15> 임시명세서 제도 경험 여부

문)귀사(귀하)는 임시명세서 제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위 : %)



〈표 2-19〉 임시명세서 제도 경험 여부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전체		(253)	45.8 (116)	54.2 (137)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167)	40.7 (68)	59.3 (99)
	대리인	(86)	55.8 (48)	44.2 (38)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39)	17.9 (7)	82.1 (32)
	기타	(128)	47.7 (61)	52.3 (67)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20)	50.0 (10)	50.0 (10)
	중소기업	(69)	31.9 (22)	68.1 (47)
	외국법인/개인	(4)	25.0 (1)	75.0 (3)
	대학/연구기관	(33)	81.8 (27)	18.2 (6)
	개인	(39)	17.9 (7)	82.1 (32)
	기타	(2)	50.0 (1)	50.0 (1)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여부	숙지	(145)	71.0 (103)	29.0 (42)
	단순인지	(108)	12.0 (13)	88.0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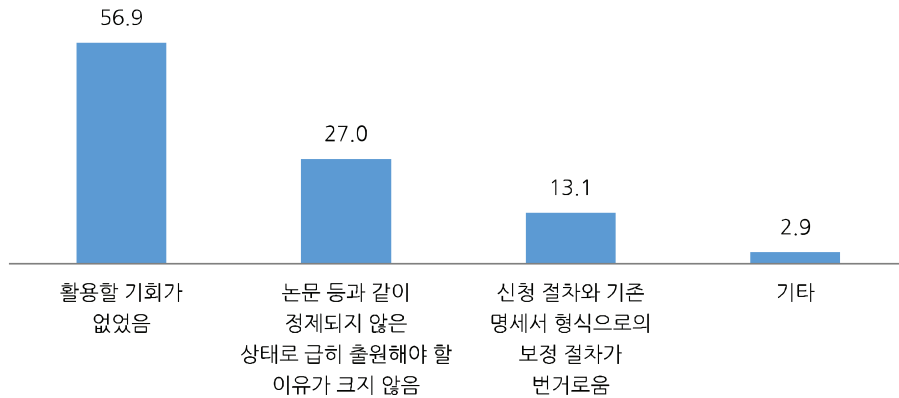
(4)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응답자(n=137)에게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은 결과, ‘활용할 기회가 없었다’는 응답이 56.9%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논문 등과 같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급히 출원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았’다(27.0%)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음
- 출원인 유형별 사례수가 크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대기업/중견기업(40.0%), 외국법인/개인(33.3%), 중소기업(31.9%)은 ‘논문 등과 같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급히 출원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음’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16>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문)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



〈표 2-20〉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활용할 기회가 없었음	논문 등과 같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급히 출원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음	신청 절차와 기존 명세서 형식으로서의 보정 절차가 번거로움	기타
전체		(137)	56.9 (78)	27.0 (37)	13.1 (18)	2.9 (4)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99)	55.6 (55)	28.3 (28)	12.1 (12)	4.0 (4)
	대리인	(38)	60.5 (23)	23.7 (9)	15.8 (6)	0.0 (0)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32)	56.3 (18)	25.0 (8)	12.5 (4)	6.3 (2)
	기타	(67)	55.2 (37)	29.9 (20)	11.9 (8)	3.0 (2)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10)	50.0 (5)	40.0 (4)	10.0 (1)	0.0 (0)
	중소기업	(47)	48.9 (23)	31.9 (15)	14.9 (7)	4.3 (2)
	외국법인/개인	(3)	66.7 (2)	33.3 (1)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6)	100.0 (6)	0.0 (0)	0.0 (0)	0.0 (0)
	개인	(32)	56.3 (18)	25.0 (8)	12.5 (4)	6.3 (2)
	기타	(1)	100.0 (1)	0.0 (0)	0.0 (0)	0.0 (0)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여부	숙지	(42)	64.3 (27)	23.8 (10)	7.1 (3)	4.8 (2)
	단순인지	(95)	53.7 (51)	28.4 (27)	15.8 (15)	2.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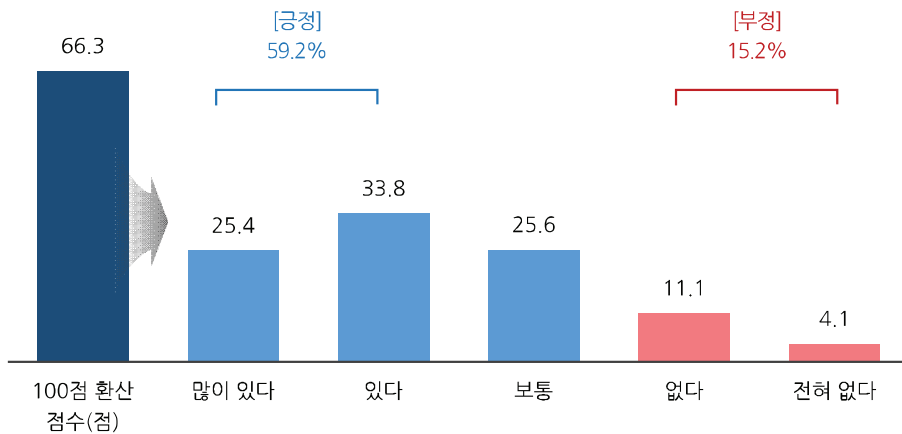
(5) 향후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 의향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할 의향을 물어본 결과, 긍정 응답이 59.2%, 부정 응답이 15.2%로 나타남
- 향후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에 대한 긍정 응답은 출원인(56.9%)에 비해 대리인(68.6%)이 상대적으로 높음
-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중견기업 출원인의 경우 긍정 응답이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중소기업 출원인은 54.2%로 상대적으로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음
- 향후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 의향이 임시명세서 제도 유경험자(91.4%)가 무경험자(48.9%)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2-17> 향후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 의향

문) 귀하(귀사)는 향후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실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단위 : %)



〈표 2-21〉 향후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 의향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 긍정		보통	◎ 부정			100점 평균	
			많이 있다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전체		(532)	59.2 (315)	25.4 (135)	33.8 (180)	25.6 (136)	15.2 (81)	11.1 (59)	4.1 (22)	66.3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56.9 (243)	23.7 (101)	33.3 (142)	26.5 (113)	16.6 (71)	11.9 (51)	4.7 (20)	64.8
	대리인	(105)	68.6 (72)	32.4 (34)	36.2 (38)	21.9 (23)	9.5 (10)	7.6 (8)	1.9 (2)	72.4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58.7 (81)	23.2 (32)	35.5 (49)	21.7 (30)	19.6 (27)	13.8 (19)	5.8 (8)	64.1
	기타	(289)	56.1 (162)	23.9 (69)	32.2 (93)	28.7 (83)	15.2 (44)	11.1 (32)	4.2 (12)	65.1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70.0 (21)	40.0 (12)	30.0 (9)	23.3 (7)	6.7 (2)	6.7 (2)	0.0 (0)	75.8
	중소기업	(201)	54.2 (109)	21.4 (43)	32.8 (66)	27.9 (56)	17.9 (36)	12.9 (26)	5.0 (10)	63.2
	외국법인/개인	(7)	28.6 (2)	0.0 (0)	28.6 (2)	57.1 (4)	14.3 (1)	14.3 (1)	0.0 (0)	53.6
	대학/연구기관	(47)	63.8 (30)	29.8 (14)	34.0 (16)	29.8 (14)	6.4 (3)	4.3 (2)	2.1 (1)	71.3
	개인	(138)	58.7 (81)	23.2 (32)	35.5 (49)	21.7 (30)	19.6 (27)	13.8 (19)	5.8 (8)	64.1
	기타	(4)	0.0 (0)	0.0 (0)	0.0 (0)	50.0 (2)	50.0 (2)	25.0 (1)	25.0 (1)	31.3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여부	숙지	(145)	82.1 (119)	48.3 (70)	33.8 (49)	12.4 (18)	5.5 (8)	4.1 (6)	1.4 (2)	80.9
	단순인지	(108)	50.0 (54)	10.2 (11)	39.8 (43)	36.1 (39)	13.9 (15)	12.0 (13)	1.9 (2)	61.1
	비인지	(279)	50.9 (142)	19.4 (54)	31.5 (88)	28.3 (79)	20.8 (58)	14.3 (40)	6.5 (18)	60.8
임시명세서 제도 경험 여부	있음	(116)	91.4 (106)	49.1 (57)	42.2 (49)	6.9 (8)	1.7 (2)	0.9 (1)	0.9 (1)	84.5
	없음	(137)	48.9 (67)	17.5 (24)	31.4 (43)	35.8 (49)	15.3 (21)	13.1 (18)	2.2 (3)	62.2

(6) 임시명세서 제도 개선 의견

- 임시명세서 제도 개선 의견 관련하여 ‘홍보 강화 바란다’(5.1%)는 의견이 1순위로 나타났고, ‘가이드라인 제공 바란다’(4.9%), ‘제도 효율성 확대 바란다’(4.7%) 순으로 의견이 제시됨
- 임시명세서 제도와 관련하여 홍보, 관련 정보 전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순위권 안에 분포함

<표 2-22> 임시명세서 제도 개선 의견

(단위 : %)

구 분 (상위 10위, N=532)	사례수 (명)	%
없다	315	59.2
홍보 강화 바란다	27	5.1
가이드라인 제공 바란다	26	4.9
제도 효율성 확대 바란다	25	4.7
제도의 간편성 확대 바란다	12	2.3
연구노트/논문/기술서 발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10	1.9
가출원제도와 합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	8	1.5
일정 기간 후 기존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 점 개선 바란다	7	1.3
제도의 차별성/메리트가 없다	6	1.1
제도의 단점이 더 많다	6	1.1

4)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의 변경 관련 특허법 개정(21.11.18. 시행)
 '21.11.18. 시행된 특허법 개정으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전에 취하·포기 시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선행기술조사와 관계없이 심사청구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다 하더라도 처음 통지된 거절이유 제출기한 내에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의 1/3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의 비용 절감과 함께 새로운 출원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

제도	주요 설문 내용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 인지도/인지 경로
	-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경험 여부
	- (미경험자)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활용 의향
	-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관련 개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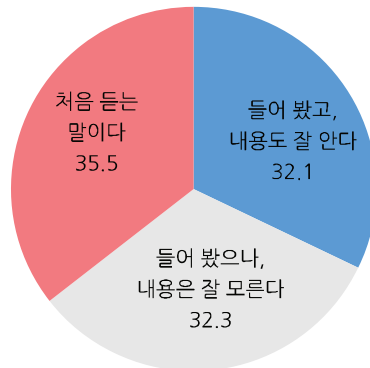
(1)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도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의 변경된 사항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묻은 결과 ‘들어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32.3%, ‘들어봤고 내용도 잘 안다’는 응답이 32.1%로 나타남
- 숙지자(‘들어봤고, 내용도 잘 안다’)의 비율은 출원인(24.4%)에 비해 대리인 (63.8%)이 월등히 높음
- 출원인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 결과, 대기업/중견기업(26.7%) 대비 중소기업(47.3%)의 비인지자 비율이 높음
- 숙지자의 비율은 외국법인/개인(85.7%)에서 가장 높고, 비인지자는 개인(50.0%) 출원인이 높게 나타남. 다만, 외국법인/개인(n=7) 출원인 유형의 사례수가 크지 않아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그림 2-18>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도

문) 오늘 이전에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단위 : %)



〈표 2-23〉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로 반환 제도 인지도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들어 봤고, 내용도 잘 안다	들어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처음 듣는 말이다
전체		(532)	32.1 (171)	32.3 (172)	35.5 (189)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24.4 (104)	33.5 (143)	42.2 (180)
	대리인	(105)	63.8 (67)	27.6 (29)	8.6 (9)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18.8 (26)	31.2 (43)	50.0 (69)
	기타	(289)	27.0 (78)	34.6 (100)	38.4 (111)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40.0 (12)	33.3 (10)	26.7 (8)
	중소기업	(201)	20.9 (42)	31.8 (64)	47.3 (95)
	외국법인/개인	(7)	85.7 (6)	0.0 (0)	14.3 (1)
	대학/연구기관	(47)	36.2 (17)	48.9 (23)	14.9 (7)
	개인	(138)	18.8 (26)	31.2 (43)	50.0 (69)
	기타	(4)	25.0 (1)	75.0 (3)	0.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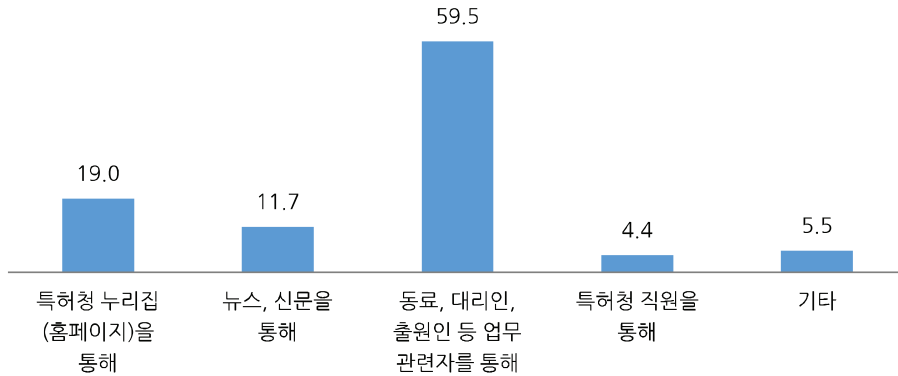
(2)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 경로

-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변경 사항 인지자(n=343)를 대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제도를 알게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동료, 대리인, 출원인 등 업무 관련자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허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19.0%)라는 응답이 많음
- 출원인과 대리인 모두 ‘업무 관련자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으나, 출원인의 경우 ‘특허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21.1%)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출원인을 세부 유형에 따라 비교해보면, 모든 유형에서 ‘업무 관련자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높음

<그림 2-19>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 경로

문) 어떤 경로를 통해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단위 : %)



〈표 2-24〉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 경로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특허청 누리집 (홈페이지)을 통해	뉴스, 신문을 통해	동료, 대리인, 출원인 등 업무 관련자를 통해	특허청 직원을 통해	기타
전체		(343)	19.0 (65)	11.7 (40)	59.5 (204)	4.4 (15)	5.5 (19)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247)	21.1 (52)	12.1 (30)	57.5 (142)	4.0 (10)	5.3 (13)
	대리인	(96)	13.5 (13)	10.4 (10)	64.6 (62)	5.2 (5)	6.3 (6)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69)	23.2 (16)	20.3 (14)	46.4 (32)	2.9 (2)	7.2 (5)
	기타	(178)	20.2 (36)	9.0 (16)	61.8 (110)	4.5 (8)	4.5 (8)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22)	18.2 (4)	9.1 (2)	63.6 (14)	0.0 (0)	9.1 (2)
	중소기업	(106)	23.6 (25)	9.4 (10)	54.7 (58)	7.5 (8)	4.7 (5)
	외국법인/개인	(6)	16.7 (1)	16.7 (1)	66.7 (4)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40)	15.0 (6)	7.5 (3)	75.0 (30)	0.0 (0)	2.5 (1)
	개인	(69)	23.2 (16)	20.3 (14)	46.4 (32)	2.9 (2)	7.2 (5)
	기타	(4)	0.0 (0)	0.0 (0)	100.0 (4)	0.0 (0)	0.0 (0)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여부	숙지	(171)	22.8 (39)	6.4 (11)	57.9 (99)	5.8 (10)	7.0 (12)
	단순인지	(172)	15.1 (26)	16.9 (29)	61.0 (105)	2.9 (5)	4.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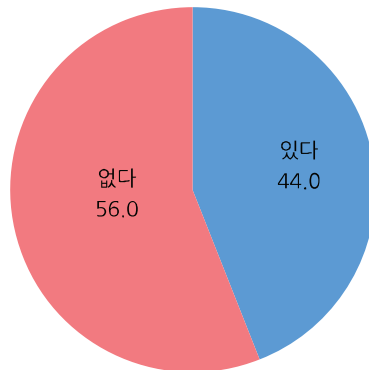
(3)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경험 여부

-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변경 사항 인지자(n=343) 중 해당 제도를 경험한 사람은 44.0%로 나타남
- 경험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대리인(68.8%)이 출원인(34.4%)의 2배인 것으로 조사됨
- 출원인의 세부 유형에 따라서는 외국법인/개인의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경험 비율(83.3%)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다만, 외국법인/개인의 사례수(n=6)가 크지 않아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 중소기업(32.1%)의 제도 경험 비율이 대기업/중견기업(18.2%)에 비해 높지만, 두 유형 간 사례수 차이가 크므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그림 2-20>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경험 여부

문) 귀사(귀하)는 특허법 개정 이후,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통해 심사청구료의 일부를 반환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위 : %)



〈표 2-25〉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경험 여부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전체		(343)	44.0 (151)	56.0 (192)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247)	34.4 (85)	65.6 (162)
	대리인	(96)	68.8 (66)	31.3 (30)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69)	30.4 (21)	69.6 (48)
	기타	(178)	36.0 (64)	64.0 (114)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22)	18.2 (4)	81.8 (18)
	중소기업	(106)	32.1 (34)	67.9 (72)
	외국법인/개인	(6)	83.3 (5)	16.7 (1)
	대학/연구기관	(40)	52.5 (21)	47.5 (19)
	개인	(69)	30.4 (21)	69.6 (48)
	기타	(4)	0.0 (0)	100.0 (4)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여부	숙지	(171)	72.5 (124)	27.5 (47)
	단순인지	(172)	15.7 (27)	84.3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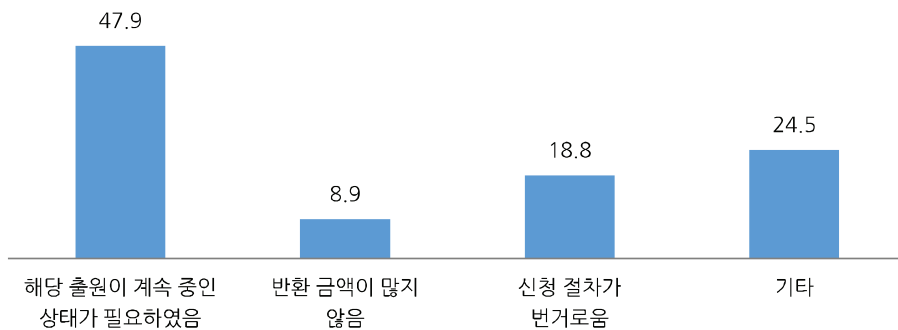
(4)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응답자(n=192)에게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묻은 결과, ‘해당 출원이 계속 중인 상태가 필요했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18.8%)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음
- 출원인의 세부 유형에 따라서는 개인의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응답 비율(35.4%)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다만, 출원인 유형별로 사례수가 크지 않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그림 2-21>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문) 심사청구료의 일부를 반환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



〈표 2-26〉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해당 출원이 계속 중인 상태가 필요하였음	반환 금액이 많지 않음	신청 절차가 번거로움	기타
전체		(192)	47.9 (92)	8.9 (17)	18.8 (36)	24.5 (47)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162)	47.5 (77)	9.3 (15)	19.1 (31)	24.1 (39)
	대리인	(30)	50.0 (15)	6.7 (2)	16.7 (5)	26.7 (8)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48)	27.1 (13)	14.6 (7)	35.4 (17)	22.9 (11)
	기타	(114)	56.1 (64)	7.0 (8)	12.3 (14)	24.6 (28)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18)	77.8 (14)	11.1 (2)	11.1 (2)	0.0 (0)
	중소기업	(72)	52.8 (38)	6.9 (5)	15.3 (11)	25.0 (18)
	외국법인/개인	(1)	100.0 (1)	0.0 (0)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19)	52.6 (10)	0.0 (0)	5.3 (1)	42.1 (8)
	개인	(48)	27.1 (13)	14.6 (7)	35.4 (17)	22.9 (11)
	기타	(4)	25.0 (1)	25.0 (1)	0.0 (0)	50.0 (2)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여부	숙지	(47)	59.6 (28)	6.4 (3)	14.9 (7)	19.1 (9)
	단순인지	(145)	44.1 (64)	9.7 (14)	20.0 (29)	26.2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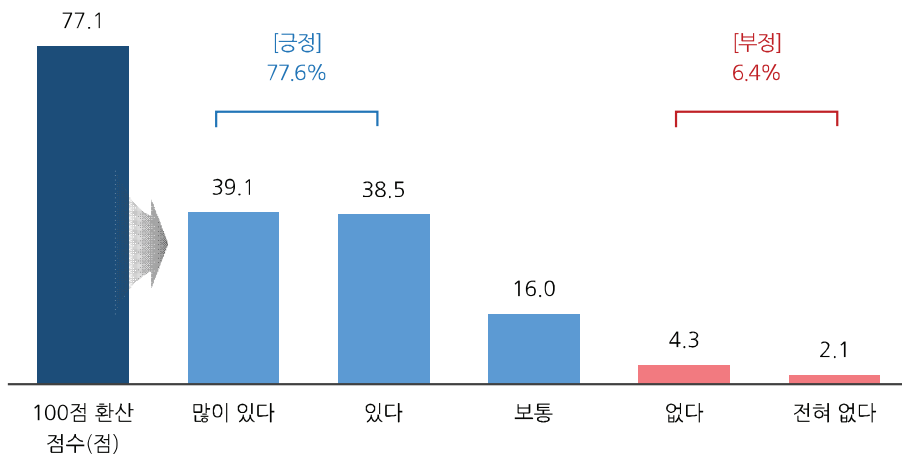
(5) 향후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활용 의향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활용할 의향을 물어본 결과, 긍정 응답(많이 있다 + 있다)이 77.6%, 부정 응답(전혀 없다 + 없다)이 6.4%로 나타남
- 향후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활용에 대한 긍정 응답은 출원인 (74.0%)에 비해 대리인(92.4%)이 상대적으로 높음
- 출원인 유형을 크게 ‘개인’과 개인이 아닌 ‘기타’ 출원인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로는 개인과 기타 출원인 유형 간에 큰 차이가 없음
- 출원인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 출원인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긍정 응답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유경험자(94.0%)가 무경험자(68.2%)에 비해 향후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활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2-22> 향후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활용 의향

문) 귀하(귀사)는 향후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통해 심사청구료의 일부를 반환받으실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단위 : %)



〈표 2-27〉 향후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로 반환 제도 활용 의향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 긍정		보통	◎ 부정			100점 평균	
			많이 있다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전체		(532)	77.6 (413)	39.1 (208)	38.5 (205)	16.0 (85)	6.4 (34)	4.3 (23)	2.1 (11)	77.1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74.0 (316)	34.4 (147)	39.6 (169)	18.5 (79)	7.5 (32)	4.9 (21)	2.6 (11)	74.6
	대리인	(105)	92.4 (97)	58.1 (61)	34.3 (36)	5.7 (6)	1.9 (2)	1.9 (2)	0.0 (0)	87.1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73.2 (101)	30.4 (42)	42.8 (59)	20.3 (28)	6.5 (9)	4.3 (6)	2.2 (3)	73.7
	기타	(289)	74.4 (215)	36.3 (105)	38.1 (110)	17.6 (51)	8.0 (23)	5.2 (15)	2.8 (8)	75.0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70.0 (21)	46.7 (14)	23.3 (7)	20.0 (6)	10.0 (3)	10.0 (3)	0.0 (0)	76.7
	중소기업	(201)	74.1 (149)	35.8 (72)	38.3 (77)	17.9 (36)	8.0 (16)	4.5 (9)	3.5 (7)	74.6
	외국법인/개인	(7)	100.0 (7)	28.6 (2)	71.4 (5)	0.0 (0)	0.0 (0)	0.0 (0)	0.0 (0)	82.1
	대학/연구기관	(47)	78.7 (37)	36.2 (17)	42.6 (20)	17.0 (8)	4.3 (2)	4.3 (2)	0.0 (0)	77.7
	개인	(138)	73.2 (101)	30.4 (42)	42.8 (59)	20.3 (28)	6.5 (9)	4.3 (6)	2.2 (3)	73.7
	기타	(4)	25.0 (1)	0.0 (0)	25.0 (1)	25.0 (1)	50.0 (2)	25.0 (1)	25.0 (1)	37.5
심사청구로 반환 제도 인지여부	숙지	(171)	88.3 (151)	53.2 (91)	35.1 (60)	9.4 (16)	2.3 (4)	2.3 (4)	0.0 (0)	84.8
	단순인지	(172)	70.9 (122)	25.6 (44)	45.3 (78)	23.3 (40)	5.8 (10)	2.9 (5)	2.9 (5)	71.95
	비인지	(189)	74.1 (140)	38.6 (73)	35.4 (67)	15.3 (29)	10.6 (20)	7.4 (14)	3.2 (6)	74.74
심사청구로 반환 제도 경험 여부	있음	(151)	94.0 (142)	54.3 (82)	39.7 (60)	4.6 (7)	1.3 (2)	1.3 (2)	0.0 (0)	86.8
	없음	(192)	68.2 (131)	27.6 (53)	40.6 (78)	25.5 (49)	6.3 (12)	3.6 (7)	2.6 (5)	71.7

(6)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개선 의견

-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개선 의견 관련하여 ‘홍보 강화 바란다’(6.0%) 의견이 1순위로 나타났고, ‘반환 비율을 1/3 보다는 확대해야 한다’(4.7%), ‘안내 제공 바란다’(4.5%) 순으로 의견이 제시됨
-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와 관련하여 홍보, 관련 정보 전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순위권 안에 분포함

<표 2-28>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개선 의견

(단위 : %)

구 분 (상위 10위, N=532)	사례수 (명)	%
없다	328	61.7
홍보 강화 바란다	32	6.0
반환 비율을 1/3 보다는 확대해야 한다	25	4.7
안내 제공 바란다	24	4.5
절차의 간소화 바란다	21	3.9
반환기간 확대 바란다 ⁶⁾	12	2.3
제도 유지 바란다	9	1.7
지금처럼 운영 되었으면 한다	9	1.7
가이드라인 제공 바란다	8	1.5
제도 활성화 바란다	7	1.3

6) 구체적인 응답으로는 ‘반환될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지길 희망’, ‘1개월 초과해서도 반환이 되었으면 함’, ‘반환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렸으면 함’ 등이 조사됨

5) 통지서 간소화

제도	주요 설문 내용
통지서 관련	- 통지서 간소화 의견 동의 여부
	- 통지서 간소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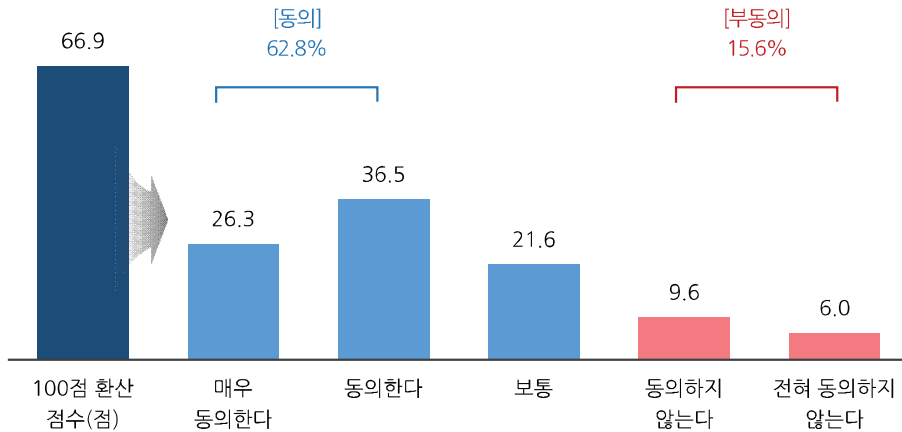
(1) 의견제출통지서 간소화에 대한 동의 여부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긍정 응답(매우 동의한다 + 동의한다)이 62.8%, 부정 응답(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동의하지 않는다)이 15.6%로 나타남
- 대리인의 경우 부정 응답이 34.3%로 출원인의 부정 응답(11.0%)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 출원인의 의견제출통지서 간소화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출원인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핀 결과, 개인(74.6%), 중소기업(71.6%)의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남. 대기업/중견기업(46.7%)의 긍정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사례 수 차이가 크므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그림 2-23> 의견제출통지서 간소화에 대한 동의 여부

문) 현재의 의견제출통지서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단위 : %)



〈표 2-29〉 의견제출통지서 간소화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 동의		보통	◎ 비동의		100점 평균		
			매우 동의 한다	동의 한다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전체		(532)	62.8 (334)	26.3 (140)	36.5 (194)	21.6 (115)	15.6 (83)	9.6 (51)	6.0 (32)	66.9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69.3 (296)	29.5 (126)	39.8 (170)	19.7 (84)	11.0 (47)	6.8 (29)	4.2 (18)	70.9
	대리인	(105)	36.2 (38)	13.3 (14)	22.9 (24)	29.5 (31)	34.3 (36)	21.0 (22)	13.3 (14)	50.5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74.6 (103)	29.7 (41)	44.9 (62)	14.5 (20)	10.9 (15)	5.8 (8)	5.1 (7)	72.1
	기타	(289)	66.8 (193)	29.4 (85)	37.4 (108)	22.1 (64)	11.1 (32)	7.3 (21)	3.8 (11)	70.3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46.7 (14)	10.0 (3)	36.7 (11)	23.3 (7)	30.0 (9)	16.7 (5)	13.3 (4)	53.3
	중소기업	(201)	71.6 (144)	35.8 (72)	35.8 (72)	19.9 (40)	8.5 (17)	6.0 (12)	2.5 (5)	74.1
	외국법인/개인	(7)	42.9 (3)	0.0 (0)	42.9 (3)	28.6 (2)	28.6 (2)	14.3 (1)	14.3 (1)	50.0
	대학/연구기관	(47)	61.7 (29)	19.1 (9)	42.6 (20)	31.9 (15)	6.4 (3)	6.4 (3)	0.0 (0)	68.6
	개인	(138)	74.6 (103)	29.7 (41)	44.9 (62)	14.5 (20)	10.9 (15)	5.8 (8)	5.1 (7)	72.1
	기타	(4)	75.0 (3)	25.0 (1)	50.0 (2)	0.0 (0)	25.0 (1)	0.0 (0)	25.0 (1)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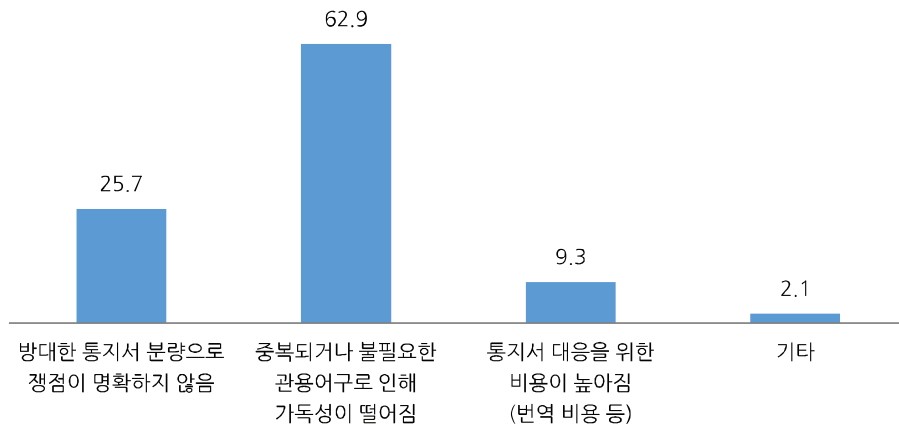
(2) 의견제출통지서 간소화 동의 이유

- 의견제출통지서 간소화 동의자(n=334)를 대상으로, 동의한 이유에 대하여 물은 결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관용어구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62.9%로 가장 많음. 이어서 '방대한 통지서 분량으로 쟁점이 명확하지 않다'(25.7%), '통지서 대응을 위한 비용이 높아진다'(9.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출원인과 대리인 모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관용어구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를 1순위로 꼽았으며, 모든 항목에서 출원인과 대리인 간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음
- 출원인을 세부 유형에 따라 비교해보면,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통지서 대응을 위한 비용이 높아진다' 응답 비율이 21.4%로 타 출원인 유형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2-24> 통지서 간소화 동의 이유

문) 통지서 간소화 방안에 동의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



〈표 2-30〉 의견제출통지서 간소화 동의 이유

(단위:%, (명))

구 분		사례수(명)	방대한 통지서 분량으로 쟁점이 명확하지 않음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관용어구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짐	통지서 대응을 위한 비용이 높아짐 (번역 비용 등)	기타
전체		(334)	25.7 (86)	62.9 (210)	9.3 (31)	2.1 (7)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296)	25.7 (76)	63.2 (187)	9.5 (28)	1.7 (5)
	대리인	(38)	26.3 (10)	60.5 (23)	7.9 (3)	5.3 (2)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03)	24.3 (25)	64.1 (66)	10.7 (11)	1.0 (1)
	기타	(193)	26.4 (51)	62.7 (121)	8.8 (17)	2.1 (4)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14)	14.3 (2)	64.3 (9)	21.4 (3)	0.0 (0)
	중소기업	(144)	27.8 (40)	61.8 (89)	7.6 (11)	2.8 (4)
	외국법인/개인	(3)	0.0 (0)	100.0 (3)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29)	27.6 (8)	62.1 (18)	10.3 (3)	0.0 (0)
	개인	(103)	24.3 (25)	64.1 (66)	10.7 (11)	1.0 (1)
	기타	(3)	33.3 (1)	66.7 (2)	0.0 (0)	0.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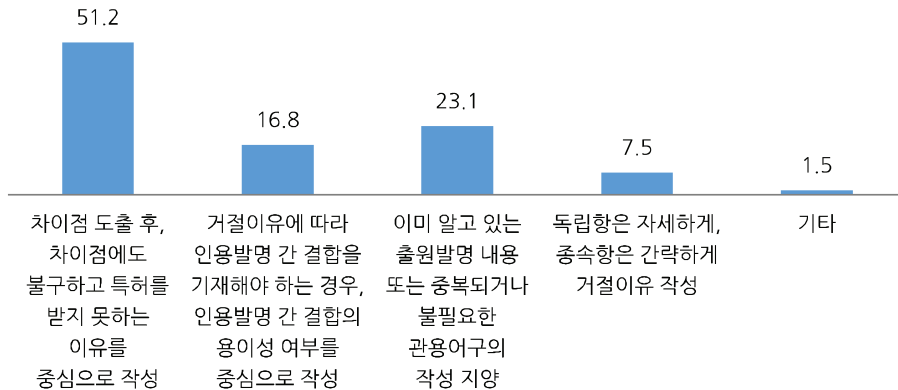
(3) 적절한 통지서 간소화 방안

- 의견제출통지서 간소화에 동의한다는 응답자(n=334)에게 적절한 통지서 간소화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차이점 도출 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작성’ 의견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출원 발명 내용 또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관용어구의 작성 지양(23.1%)’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음
- 출원인과 대리인 모두 ‘차이점 도출 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작성’ 응답이 가장 높으나, 출원인의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출원 발명 내용 또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관용어구의 작성 지양(24.0%)’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출원인의 세부 유형에 따라서는 ‘거절이유에 따라 인용발명 간 결합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 인용발명 간 결합의 용이성 여부를 중심으로 작성’ 응답은 대기업/중견기업(28.6%)에서, ‘독립항은 자세하게, 종속항은 간략하게 거절이유 작성’ 응답은 ‘중소기업’(9.7%)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2-25> 적절한 통지서 간소화 방안

문) 통지서 간소화 방안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단위 : %)



〈표 2-31〉 적절한 통지서 간소화 방안

(단위:%, (명))

구 분		사례수(명)	차이점 도출 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작성	거절 이유에 따라 인용발명 간 결합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 인용발명 간 결합의 용이성 여부를 중심으로 작성	이미 알고 있는 출원 발명 내용 또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관용어구의 작성 지양	독립항은 자세하게, 종속항은 간략하게 거절이유 작성	기타
전체		(334)	51.2 (171)	16.8 (56)	23.1 (77)	7.5 (25)	1.5 (5)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296)	50.3 (149)	16.6 (49)	24.0 (71)	7.4 (22)	1.7 (5)
	대리인	(38)	57.9 (22)	18.4 (7)	15.8 (6)	7.9 (3)	0.0 (0)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03)	48.5 (50)	18.4 (19)	23.3 (24)	7.8 (8)	1.9 (2)
	기타	(193)	51.3 (99)	15.5 (30)	24.4 (47)	7.3 (14)	1.6 (3)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14)	64.3 (9)	28.6 (4)	7.1 (1)	0.0 (0)	0.0 (0)
	중소기업	(144)	49.3 (71)	15.3 (22)	24.3 (35)	9.7 (14)	1.4 (2)
	외국법인/개인	(3)	66.7 (2)	0.0 (0)	33.3 (1)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29)	51.7 (15)	13.8 (4)	31.0 (9)	0.0 (0)	3.4 (1)
	개인	(103)	48.5 (50)	18.4 (19)	23.3 (24)	7.8 (8)	1.9 (2)
	기타	(3)	66.7 (2)	0.0 (0)	33.3 (1)	0.0 (0)	0.0 (0)

6) 심사관 소통(심층면담)

※ **심층면담 제도란?**
 최초 명세서 또는 보정안에 대하여 심사관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제도로 예비심사(심사착수 전), 보정안 리뷰(거절이유 통지 후 보정서 제출 전), 재심사 면담(재심사 신청 전) 등 심사 단계별로 운영 중에 있음

제도	주요 설문 내용
심사관 관련	- 심층 면담 관련 경험 및 전반적 만족도
	- 심층 면담 만족/불만족 이유
	- 적절한 고객과의 소통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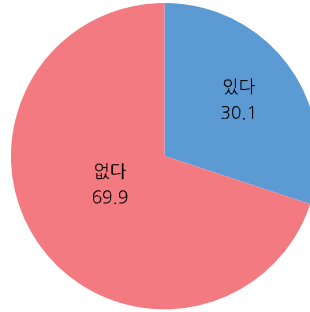
(1)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경험 여부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은 30.1%로 나타남
- 대리인의 경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3.8%로 출원인(21.8%) 대비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출원인 유형을 크게 ‘개인’과 개인이 아닌 ‘기타’ 출원인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로는 개인 출원인 유형의 심층면담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6.7%인데 반해, 기타 유형의 경우 심층면담 경험 비율이 24.2%로 상대적으로 높음
- 출원인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외국법인/개인 출원인의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개인 출원인은 16.7%로 가장 낮게 나타남.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중견기업 출원인의 심층면담 경험률이 50.0%, 중소기업이 17.4%로 중소기업 출원인이 심층면담 경험이 낮음. 다만, 출원인 유형별로 사례수 차이가 커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그림 2-26〉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경험 여부

문) 심사관과의 심층면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단위 : %)



〈표 2-32〉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경험 여부

(단위:%, (명))

구 분		사례수(명)	있다	없다
전체		(532)	30.1 (160)	69.9 (372)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21.8 (93)	78.2 (334)
	대리인	(105)	63.8 (67)	36.2 (38)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16.7 (23)	83.3 (115)
	기타	(289)	24.2 (70)	75.8 (219)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50.0 (15)	50.0 (15)
	중소기업	(201)	17.4 (35)	82.6 (166)
	외국법인/개인	(7)	71.4 (5)	28.6 (2)
	대학/연구기관	(47)	29.8 (14)	70.2 (33)
	개인	(138)	16.7 (23)	83.3 (115)
	기타	(4)	25.0 (1)	75.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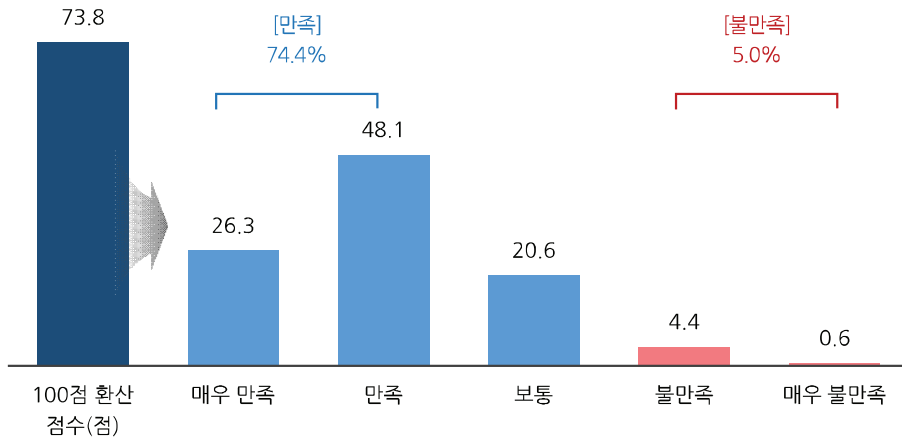
(2)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전반적 만족도

-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경험이 있는 응답자(n=160)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매우 만족 + 만족)이 74.4%, 부정 응답(매우 불만족 + 불만족)이 5.0%로 나타남
- 출원인(74.2%)과 대리인(74.6%)의 긍정 응답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 출원인 유형을 크게 '개인'과 개인이 아닌 '기타' 출원인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타 유형이 심층면담을 만족하였다는 비율이 77.1%로 개인(65.2%) 출원인 유형에 만족했다는 비율이 높음
- 출원인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연구기관'의 긍정 응답은 92.9%로 타 출원인 유형 대비 높은 만족도를 보임

<그림 2-27>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전반적 만족도

문) 경험하셨던 심사관과의 심층면담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단위 : %)



〈표 2-33〉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전반적 만족도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명)	◎ 만족		보통	◎ 불만족			100점 평균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160)	74.4 (119)	26.3 (42)	48.1 (77)	20.6 (33)	5.0 (8)	4.4 (7)	0.6 (1)	73.8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93)	74.2 (69)	26.9 (25)	47.3 (44)	22.6 (21)	3.2 (3)	3.2 (3)	0.0 (0)	74.5
	대리인	(67)	74.6 (50)	25.4 (17)	49.3 (33)	17.9 (12)	7.5 (5)	6.0 (4)	1.5 (1)	72.8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23)	65.2 (15)	21.7 (5)	43.5 (10)	26.1 (6)	8.7 (2)	8.7 (2)	0.0 (0)	69.6
	기타	(70)	77.1 (54)	28.6 (20)	48.6 (34)	21.4 (15)	1.4 (1)	1.4 (1)	0.0 (0)	76.1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15)	73.3 (11)	20.0 (3)	53.3 (8)	26.7 (4)	0.0 (0)	0.0 (0)	0.0 (0)	73.3
	중소기업	(35)	77.1 (27)	34.3 (12)	42.9 (15)	20.0 (7)	2.9 (1)	2.9 (1)	0.0 (0)	77.1
	외국법인/개인	(5)	60.0 (3)	40.0 (2)	20.0 (1)	40.0 (2)	0.0 (0)	0.0 (0)	0.0 (0)	75.0
	대학/연구기관	(14)	92.9 (13)	21.4 (3)	71.4 (10)	7.1 (1)	0.0 (0)	0.0 (0)	0.0 (0)	78.6
	개인	(23)	65.2 (15)	21.7 (5)	43.5 (10)	26.1 (6)	8.7 (2)	8.7 (2)	0.0 (0)	69.6
	기타	(1)	0.0 (0)	0.0 (0)	0.0 (0)	100.0 (1)	0.0 (0)	0.0 (0)	0.0 (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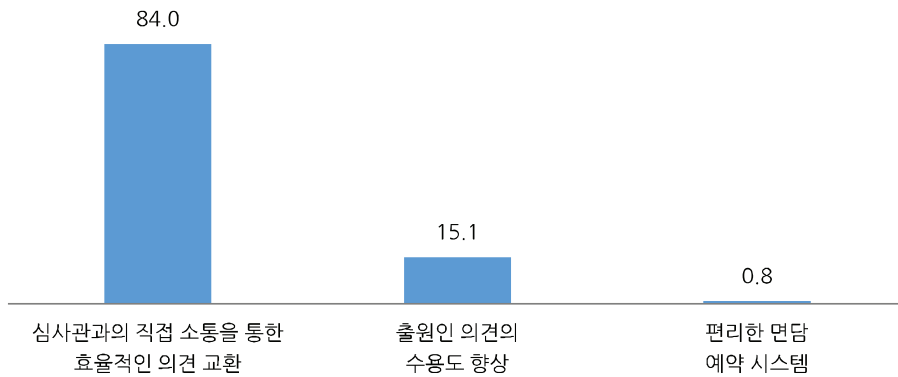
(3)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만족 이유

- 심사관과의 심층면담이 만족스러웠다는 응답자(n=119)에게 어떠한 점이 만족스러웠는지 물어본 결과, '심사관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의견 교환'(84.0%)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출원인 의견의 수용도 향상'(15.1%)이 뒤를 이음
- 출원인(81.2%)과 대리인(88.0%) 모두 '심사관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의견 교환'이 만족스러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출원인을 세부 유형에 따라 비교해보면, 모든 출원인 유형에서 '심사관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의견 교환'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출원인 의견의 수용도 향상'이 만족스러웠다는 응답은 개인 출원인(40.0%)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28>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만족 이유

문) 어떠한 점이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단위 : %)



7) '경험하셨던 심사관과의 심층면담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질문에 '매우 만족', '만족' 선택한 응답자

〈표 2-34〉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만족 이유

(단위:%, (명))

구 분		사례수(명)	심사관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의견 교환	출원인 의견의 수용도 향상	편리한 면담 예약 시스템
전체		(119)	84.0 (100)	15.1 (18)	0.8 (1)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69)	81.2 (56)	17.4 (12)	1.4 (1)
	대리인	(50)	88.0 (44)	12.0 (6)	0.0 (0)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5)	60.0 (9)	40.0 (6)	0.0 (0)
	기타	(54)	87.0 (47)	11.1 (6)	1.9 (1)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11)	90.9 (10)	9.1 (1)	0.0 (0)
	중소기업	(27)	81.5 (22)	14.8 (4)	3.7 (1)
	외국법인/개인	(3)	100.0 (3)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13)	92.3 (12)	7.7 (1)	0.0 (0)
	개인	(15)	60.0 (9)	40.0 (6)	0.0 (0)
	기타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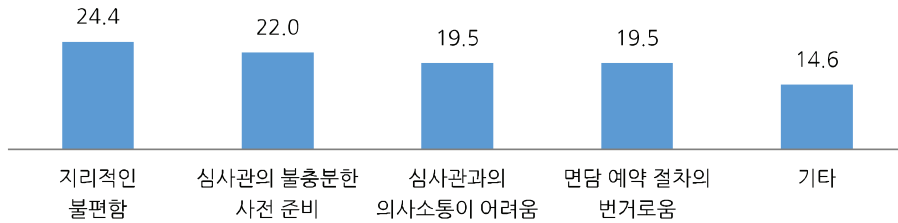
(4)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불만족 이유

- 심사관과의 심층면담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응답자⁸⁾(n=41)에게 어떠한 점이 불만족스러웠는지 물어본 결과, ‘지리적인 불편함’(24.4%)이 가장 높음. 이어서 ‘심사관의 불충분한 사전준비’(22.0%)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출원인은 불만족 이유로 ‘지리적인 불편함’(29.2%)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리인은 ‘심사관의 불충분한 사전 준비’(29.4%)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29>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불만족 이유

문) 어떠한 점이 불만족스러우셨습니까?

(단위 : %)



8) '경험하셨던 심사관과의 심층면담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질문에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선택한 응답자

〈표 2-35〉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 분		사례수(명)	지리적인 불편함	심사관의 불충분한 사건 준비	심사관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면담 예약 절차의 번거로움	기타
전체		(41)	24.4 (10)	22.0 (9)	19.5 (8)	19.5 (8)	14.6 (6)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24)	29.2 (7)	16.7 (4)	20.8 (5)	20.8 (5)	12.5 (3)
	대리인	(17)	17.6 (3)	29.4 (5)	17.6 (3)	17.6 (3)	17.6 (3)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8)	12.5 (1)	0.0 (0)	37.5 (3)	25.0 (2)	25.0 (2)
	기타	(16)	37.5 (6)	25.0 (4)	12.5 (2)	18.8 (3)	6.3 (1)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4)	75.0 (3)	0.0 (0)	0.0 (0)	25.0 (1)	0.0 (0)
	중소기업	(8)	37.5 (3)	37.5 (3)	12.5 (1)	12.5 (1)	0.0 (0)
	외국법인/개인	(2)	0.0 (0)	50.0 (1)	50.0 (1)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1)	0.0 (0)	0.0 (0)	0.0 (0)	100.0 (1)	0.0 (0)
	개인	(8)	12.5 (1)	0.0 (0)	37.5 (3)	25.0 (2)	25.0 (2)
	기타	(1)	0.0 (0)	0.0 (0)	0.0 (0)	0.0 (0)	100.0 (1)

(5) 특허청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 특허청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의견이 29.1%로 1순위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특허청의 고객과의 소통에 대해 만족하는 가운데, ‘심사관과 출원인 간 소통이 원활할 수 있으면 한다’(6.6%), ‘소통 채널의 다양화 바란다’, ‘소통 활성화 바란다’(각각 6.0%) 순으로 의견이 제시됨
- 특허청과 고객과의 소통 강화 관련하여 소통 채널 다양화 및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음

<표 2-36> 특허청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단위:%)

구 분 (상위 10위, N=532)	사례수 (명)	%
없다	155	29.1
심사관과 출원인 간 소통이 원활할 수 있으면 한다	35	6.6
소통 채널의 다양화(SNS, ZOOM 등) 바란다	32	6.0
소통 활성화 바란다	32	6.0
IT 서비스(홈페이지, 이메일, 온라인 등) 강화 바란다	29	5.5
홍보 강화 바란다	11	2.1
고객의 니즈/소리 반영 바란다	11	2.1
이유/사유를 알려 주었으면 한다	10	1.9
절차의 간소화 바란다	10	1.9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으면 한다	9	1.7

7) 심사 정책 방향성

제도	주요 설문 내용
심사 정책 방향성	- 선호하는 심사 방향
	-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에 대한 의견
	- 우선심사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 분할출원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 출원 및 등록 전략
	- 향후 출원 건수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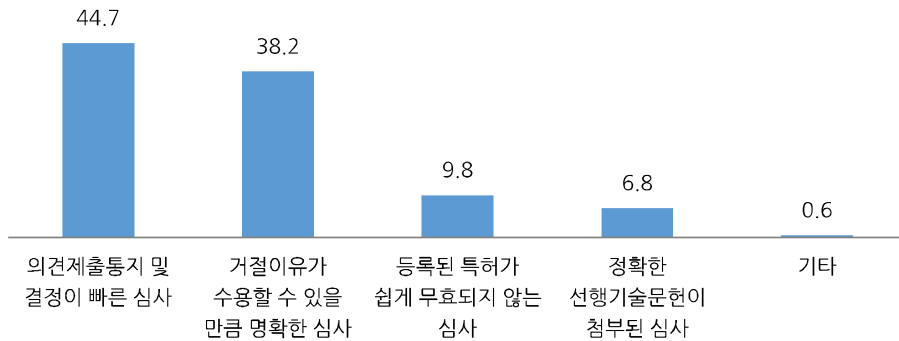
(1) 가장 선호하는 심사 방향

- 전체 응답자에게 가장 선호하는 심사 방향에 대해 물은 결과, 44.7%가 ‘의견제출통지 및 결정이 빠른 심사’를 꼽음. 그 다음으로 ‘거절이유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심사’(38.2%)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음
- 출원인의 경우 ‘의견제출통지 및 결정이 빠른 심사’(46.6%)가, 대리인은 ‘거절이유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심사’(54.3%)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출원인 세부 유형에 따라서는 중소기업(52.7%), 대학/연구기관(53.2%)은 ‘의견제출통지 및 결정이 빠른 심사’를 가장 선호하는 심사방향으로 꼽은 반면, 대기업/중견기업(56.7%) 출원인은 ‘거절이유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심사’에 대하여 50% 이상의 높은 응답을 보임. 다만, 출원인 유형별 사례수 차이가 커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그림 2-30> 가장 선호하는 심사 방향

문) 귀하(귀사)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심사 방향은 무엇입니까?

(단위 : %)



〈표 2-37〉 가장 선호하는 심사 방향

(단위:%, (명))

구 분		사례수(명)	의견제출 통지 및 결정이 빠른 심사	거절이유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심사	등록된 특허가 쉽게 무효되지 않는 심사	정확한 선행기술 문헌이 첨부된 심사	기타
전체		(532)	44.7 (238)	38.2 (203)	9.8 (52)	6.8 (36)	0.6 (3)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46.6 (199)	34.2 (146)	11.5 (49)	7.0 (30)	0.7 (3)
	대리인	(105)	37.1 (39)	54.3 (57)	2.9 (3)	5.7 (6)	0.0 (0)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44.2 (61)	34.1 (47)	10.1 (14)	10.9 (15)	0.7 (1)
	기타	(289)	47.8 (138)	34.3 (99)	12.1 (35)	5.2 (15)	0.7 (2)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13.3 (4)	56.7 (17)	20.0 (6)	6.7 (2)	3.3 (1)
	중소기업	(201)	52.7 (106)	30.3 (61)	11.4 (23)	5.5 (11)	0.0 (0)
	외국법인/개인	(7)	28.6 (2)	71.4 (5)	0.0 (0)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47)	53.2 (25)	34.0 (16)	8.5 (4)	2.1 (1)	2.1 (1)
	개인	(138)	44.2 (61)	34.1 (47)	10.1 (14)	10.9 (15)	0.7 (1)
	기타	(4)	25.0 (1)	0.0 (0)	50.0 (2)	25.0 (1)	0.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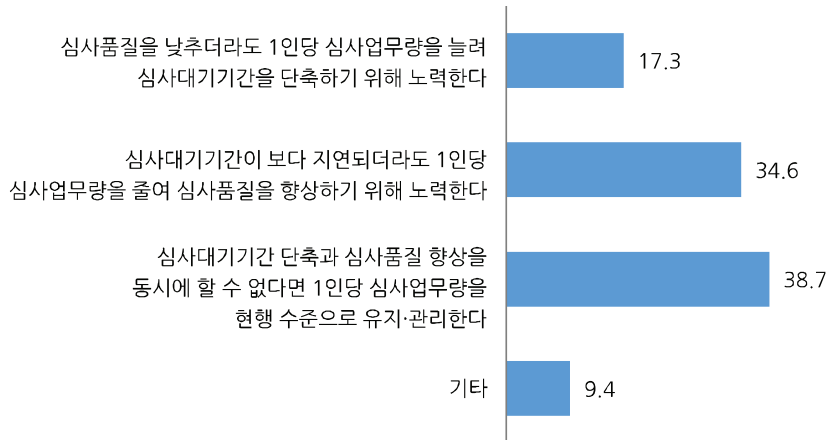
(2)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에 대한 의견

- 전체 응답자에게 심사관 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심사대기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향상을 동시에 할 수 없다면 1인당 심사업무량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관리한다' 응답이 38.7%로 가장 많음
- '심사대기기간이 보다 지연되더라도 1인당 심사업무량을 줄여 심사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응답은 대리인(28.6%)보다 출원인(36.1%)에서, '심사대기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향상을 동시에 할 수 없다면 1인당 심사업무량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관리한다' 응답은 출원인(36.5%)보다 대리인(47.6%)에서 높게 나타남
- 출원인을 세부 유형에 따라 비교해보면, 대기업/중견기업 출원인과 기타 출원인의 경우 '심사대기기간이 보다 지연되더라도 1인당 심사업무량을 줄여 심사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응답이 각각 53.3%, 50.0%로 많음. 다만, 출원인 유형별 사례수 차이가 커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그림 2-31>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에 대한 의견

문) 최근 특허출원의 증가로 인해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을 유지할 경우 심사대기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에 관해 귀하(귀사)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단위 : %)



〈표 2-38〉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사례수(명)	심사품질을 낮추더라도 1인당 심사 업무량을 늘려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심사대기기간이 보다 지연 되더라도 1인당 심사 업무량을 줄여 심사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심사대기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향상을 동시에 할 수 없다면 1인당 심사 업무량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관리한다	기타
전체		(532)	17.3 (92)	34.6 (184)	38.7 (206)	9.4 (50)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18.0 (77)	36.1 (154)	36.5 (156)	9.4 (40)
	대리인	(105)	14.3 (15)	28.6 (30)	47.6 (50)	9.5 (10)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16.7 (23)	35.5 (49)	33.3 (46)	14.5 (20)
	기타	(289)	18.7 (54)	36.3 (105)	38.1 (110)	6.9 (20)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3.3 (1)	53.3 (16)	43.3 (13)	0.0 (0)
	중소기업	(201)	24.4 (49)	32.3 (65)	36.8 (74)	6.5 (13)
	외국법인/개인	(7)	14.3 (1)	42.9 (3)	28.6 (2)	14.3 (1)
	대학/연구기관	(47)	6.4 (3)	40.4 (19)	42.6 (20)	10.6 (5)
	개인	(138)	16.7 (23)	35.5 (49)	33.3 (46)	14.5 (20)
	기타	(4)	0.0 (0)	50.0 (2)	25.0 (1)	25.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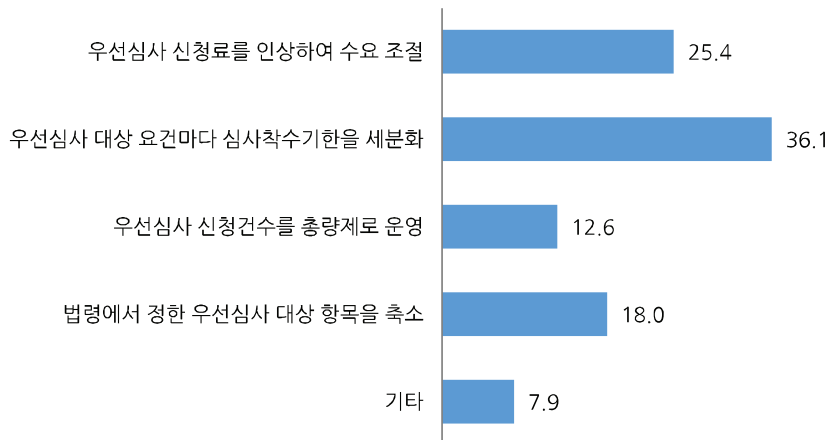
(3) 우선심사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 전체 응답자의 36.1%는 우선심사 관리 방안에 대해 가장 가까운 의견으로 ‘우선심사 대상 요건마다 심사착수기한 세분화’를 꼽음. 이어 ‘우선심사 신청료를 인상하여 수요 조절’(25.4%), ‘법령에서 정한 우선심사 대상 항목을 축소’(18.0%)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출원인은 ‘우선심사 대상 요건마다 심사착수기한을 세분화’(37.9%)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리인은 ‘우선심사 신청료를 인상하여 수요 조절’(31.4%)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출원인 유형을 크게 ‘개인’과 개인이 아닌 ‘기타’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기타 유형의 출원인이 개인에 비하여 ‘법령에서 정한 우선심사 대상 항목을 축소’(18.7%)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대부분의 출원인 유형에서 ‘우선심사 대상 요건마다 심사착수기한을 세분화’가 높게 나타났으나,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심사 대상 항목을 축소’가 23.3%로 다른 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다만, 사례수가 크지 않은 출원인 유형이 있으므로 출원인 유형별 해석 시 주의해야함

〈그림 2-32〉 우선심사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문)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정된 심사인력으로 인한 심사처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다른 일반심사의 심사대기기간이 지연되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우선심사 관리 방안 중 귀하(귀사)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단위 : %)



〈표 2-39〉 우선심사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사례수(명)	우선심사 신청료를 인상하여 수요 조절	우선심사 대상 요건마다 심사착수 기한을 세분화	우선심사 신청건수를 총량제로 운영	법령에서 정한 우선심사 대상 항목을 축소	기타
전체		(532)	25.4 (135)	36.1 (192)	12.6 (67)	18.0 (96)	7.9 (42)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23.9 (102)	37.9 (162)	14.5 (62)	16.4 (70)	7.3 (31)
	대리인	(105)	31.4 (33)	28.6 (30)	4.8 (5)	24.8 (26)	10.5 (11)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24.6 (34)	37.7 (52)	15.9 (22)	11.6 (16)	10.1 (14)
	기타	(289)	23.5 (68)	38.1 (110)	13.8 (40)	18.7 (54)	5.9 (17)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20.0 (6)	43.3 (13)	13.3 (4)	23.3 (7)	0.0 (0)
	중소기업	(201)	24.9 (50)	36.8 (74)	15.4 (31)	17.9 (36)	5.0 (10)
	외국법인/개인	(7)	14.3 (1)	42.9 (3)	0.0 (0)	14.3 (1)	28.6 (2)
	대학/연구기관	(47)	19.1 (9)	42.6 (20)	10.6 (5)	17.0 (8)	10.6 (5)
	개인	(138)	24.6 (34)	37.7 (52)	15.9 (22)	11.6 (16)	10.1 (14)
	기타	(4)	50.0 (2)	0.0 (0)	0.0 (0)	50.0 (2)	0.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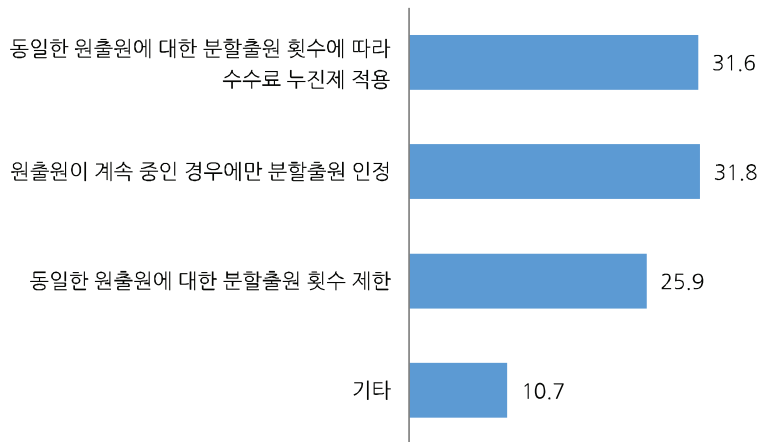
(4) 분할출원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 전체 응답자에게 분할출원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원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에만 분할출원 인정’(31.8%), ‘동일한 원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횟수에 따라 수수료 누진세 적용’(31.6%)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출원인의 경우 ‘원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에만 분할출원 인정’(34.9%)이, 대리인은 ‘동일한 원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횟수에 따라 수수료 누진세 적용’(38.1%) 응답이 가장 많음

<그림 2-33> 분할출원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문) 분할출원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신규 출원건에 대한 심사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분할에 분할이 연속적으로 수회 이루어지면 심사부담이 과중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분할출원 관리 방안 중 귀하(귀사)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단위 : %)



〈표 2-40〉 분할출원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사례수(명)	동일한 원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횟수에 따라 수수료 누진제 적용	원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에만 분할출원 인정	동일한 원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횟수 제한	기타
전체		(532)	31.6 (168)	31.8 (169)	25.9 (138)	10.7 (57)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30.0 (128)	34.9 (149)	27.4 (117)	7.7 (33)
	대리인	(105)	38.1 (40)	19.0 (20)	20.0 (21)	22.9 (24)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34.1 (47)	34.8 (48)	26.1 (36)	5.1 (7)
	기타	(289)	28.0 (81)	34.9 (101)	28.0 (81)	9.0 (26)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36.7 (11)	33.3 (10)	20.0 (6)	10.0 (3)
	중소기업	(201)	26.9 (54)	35.8 (72)	30.3 (61)	7.0 (14)
	외국법인/개인	(7)	28.6 (2)	14.3 (1)	14.3 (1)	42.9 (3)
	대학/연구기관	(47)	25.5 (12)	36.2 (17)	27.7 (13)	10.6 (5)
	개인	(138)	34.1 (47)	34.8 (48)	26.1 (36)	5.1 (7)
	기타	(4)	50.0 (2)	25.0 (1)	0.0 (0)	25.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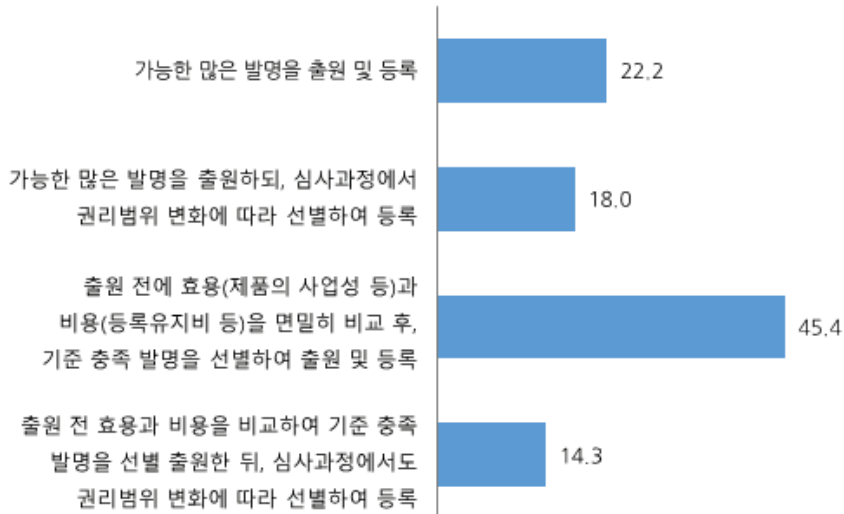
(5) 출원 및 등록 전략

- 출원인(n=427)에게 출원인 또는 출원인이 속한 기관의 출원 및 등록 전략에 대하여 물은 결과, 응답자의 45.4%는 출원 및 등록 전략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출원 전에 효용과 비용을 면밀히 비교 후, 기준 충족 발명을 선별하여 출원 및 등록’을 선택했으며, ‘가능한 많은 발명을 출원 및 등록’(22.2%)이 뒤를 이음
- 출원인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핀 결과, 대부분의 출원인 유형에서 ‘출원 전에 효용과 비용을 면밀히 비교 후, 기준 충족 발명을 선별하여 출원 및 등록’ 응답이 높으나, 개인 출원인의 응답(58.0%)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다만, 출원인 유형별 사례수 차이가 커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그림 2-34> 출원 및 등록 전략

문) 다음중 귀하(귀사)의 출원 및 등록 전략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단위 : %)



〈표 2-41〉 출원 및 등록 전략

(단위:%, (명))

구 분		사례수(명)	가능한 많은 발명을 출원 및 등록	가능한 많은 발명을 출원하되, 심사과정에서 권리범위 변화에 따라 선별하여 등록	출원 전에 효용(제품의 사업성 등)과 비용(등록유지비 등)을 면밀히 비교 후, 기준 충족 발명을 선별하여 출원 및 등록	출원 전 효용과 비용을 비교하여 기준 충족 발명을 선별 출원한 뒤, 심사과정에서도 권리범위 변화에 따라 선별하여 등록
전체		(427)	22.2 (95)	18.0 (77)	45.4 (194)	14.3 (61)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14.5 (20)	12.3 (17)	58.0 (80)	15.2 (21)
	기타	(289)	26.0 (75)	20.8 (60)	39.4 (114)	13.8 (40)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26.7 (8)	20.0 (6)	33.3 (10)	20.0 (6)
	중소기업	(201)	25.9 (52)	19.4 (39)	39.8 (80)	14.9 (30)
	외국법인/개인	(7)	14.3 (1)	42.9 (3)	42.9 (3)	0.0 (0)
	대학/연구기관	(47)	23.4 (11)	25.5 (12)	44.7 (21)	6.4 (3)
	개인	(138)	14.5 (20)	12.3 (17)	58.0 (80)	15.2 (21)
	기타	(4)	75.0 (3)	0.0 (0)	0.0 (0)	25.0 (1)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29)	28.8 (66)	17.5 (40)	37.6 (86)	16.2 (37)
	유사	(169)	14.8 (25)	20.7 (35)	53.8 (91)	10.7 (18)
	감소	(29)	13.8 (4)	6.9 (2)	58.6 (17)	20.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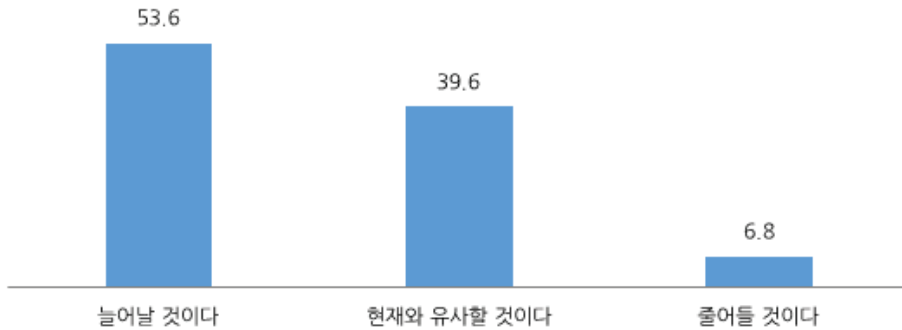
(6) 향후 출원 건수

- 출원인(n=427)에게 향후 출원 건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지 물어본 결과, ‘늘어날 것이다’(53.6%)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이어 ‘현재와 유사할 것이다’(39.6%), ‘줄어들 것이다’(6.8%) 순으로 나타남
- 출원인의 세부 유형에 따라서는 대기업/중견기업 출원인 유형의 ‘늘어날 것이다’ 응답이 73.3%로 타 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에 반해 중소기업의 ‘늘어날 것이다’ 응답은 58.2%에 그침

<그림 2-35> 향후 출원 건수

문) 향후 귀하(귀사)의 출원 건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단위 : %)



〈표 2-42〉 향후 출원 건수

(단위:%, (명))

구 분		사례수(명)	늘어날 것이다	현재와 유사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전체		(427)	53.6 (229)	39.6 (169)	6.8 (29)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45.7 (63)	43.5 (60)	10.9 (15)
	기타	(289)	57.4 (166)	37.7 (109)	4.8 (14)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73.3 (22)	26.7 (8)	0.0 (0)
	중소기업	(201)	58.2 (117)	37.3 (75)	4.5 (9)
	외국법인/개인	(7)	14.3 (1)	57.1 (4)	28.6 (2)
	대학/연구기관	(47)	48.9 (23)	46.8 (22)	4.3 (2)
	개인	(138)	45.7 (63)	43.5 (60)	10.9 (15)
	기타	(4)	75.0 (3)	0.0 (0)	25.0 (1)

2. 3인 협의심사 제도 제언

- 외부고객의 편의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과 심사품질을 주요한 패러다임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특허심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본 조사에서 조사된 3인 협의심사 제도가 있다.
- 3인 협의심사 제도는 2개 이상의 기술분야가 결합된 4차산업 융·복합기술에 해당하거나 단독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출원 등 3인 협의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해 각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3명의 심사관들이 협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신속한 특허 권리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⁹⁾
- 더불어, 3인 협의심사를 통해서 심사판단기준(출원 발명 도출의 용이성 판단 등)을 공유함으로써 동일 기술분야를 심사하는 심사관 간의 심사판단기준 편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심사 형태에서는 심사관 1인이 1건의 출원을 전담하여, 타 심사관의 심사판단기준을 상호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 실제로 특허청의 외부고객은 심사관별 심사기준의 편차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부고객(출원인과 대리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심사서비스 품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2022년 조사결과¹⁰⁾에 따르면, 전반적 심사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21가지 하위 항목 중 심사관별 편차와 관련된 항목¹¹⁾이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역으로 외부고객은 앞으로 특허청이 심사관별 심사편차를 줄여 일관된 심사결과를 제공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 그러나 3인 협의심사 제도 관련 보도자료 등을 살펴보면 그 범위는 4차산업 융·복합 기술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관별 심사판단기준 편차가 크다고 생각하는 외부고객의 소리를 고려한다면, 3인 협의심사 대상 분야를 확대하여 심사관별 심사판단기준 편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 다만, 3인 협의심사 확대는 전체적인 심사처리 기간 지연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심사서비스 고객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객들은 심사처리 기간의 지연을 원하지 않으므로 심사품질을 높이고 심사관별 심사판단기준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3인 협의심사의 기술분야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심사처리 기간 지연을 방지하고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관 증원이 필수적이다. 공무원 증원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식재산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특허청이 신속하고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사관 증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9) 특허청 보도자료, “특허청 3인 협의심사, 특허등록도 빨라져!”, 융복합기술심사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2021. 5. 11.)

10) 2022년 심사서비스 고객 평가 결과 인용

11) ‘발명의 실체(진보성 등) 판단 기준의 심사관별 편차’, ‘기재불비에 대한 시각의 심사관별 편차’, ‘형식적 요건 위반 수준의 심사관별 편차’가 있음

부록 1. 통계표

표 1. 3인 협의심사 통지서 수령 경험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3인 협의심사의 통지서를 받은 적 있다	3인 협의심사의 통지서를 받은 적 없다
전체		(267)	23.6 (63)	76.4 (204)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205)	18.0 (37)	82.0 (168)
	대리인	(62)	41.9 (26)	58.1 (36)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45)	24.4 (11)	75.6 (34)
	기타	(160)	16.3 (26)	83.8 (134)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19)	26.3 (5)	73.7 (14)
	중소기업	(98)	14.3 (14)	85.7 (84)
	외국법인/개인	(5)	20.0 (1)	80.0 (4)
	대학/연구기관	(35)	17.1 (6)	82.9 (29)
	개인	(45)	24.4 (11)	75.6 (34)
	기타	(3)	0.0 (0)	100.0 (3)
출원개수	5개 미만	(182)	18.1 (33)	81.9 (149)
	5개 이상	(23)	17.4 (4)	82.6 (19)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119)	17.6 (21)	82.4 (98)
	유사	(75)	20.0 (15)	80.0 (60)
	감소	(11)	9.1 (1)	90.9 (10)

표 2.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등록 여부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등록되었다	거절되었다	등록 및 거절 모두 있다	기타
전체		(63)	52.4 (33)	17.5 (11)	25.4 (16)	4.8 (3)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37)	56.8 (21)	18.9 (7)	18.9 (7)	5.4 (2)
	대리인	(26)	46.2 (12)	15.4 (4)	34.6 (9)	3.8 (1)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1)	45.5 (5)	45.5 (5)	9.1 (1)	0.0 (0)
	기타	(26)	61.5 (16)	7.7 (2)	23.1 (6)	7.7 (2)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5)	40.0 (2)	40.0 (2)	20.0 (1)	0.0 (0)
	중소기업	(14)	78.6 (11)	0.0 (0)	14.3 (2)	7.1 (1)
	외국법인/개인	(1)	0.0 (0)	0.0 (0)	100.0 (1)	0.0 (0)
	대학/연구기관	(6)	50.0 (3)	0.0 (0)	33.3 (2)	16.7 (1)
	개인	(11)	45.5 (5)	45.5 (5)	9.1 (1)	0.0 (0)
	기타	-	-	-	-	-
출원개수	5개 미만	(33)	54.5 (18)	21.2 (7)	21.2 (7)	3.0 (1)
	5개 이상	(4)	75.0 (3)	0.0 (0)	0.0 (0)	25.0 (1)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1)	57.1 (12)	19.0 (4)	14.3 (3)	9.5 (2)
	유사	(15)	60.0 (9)	13.3 (2)	26.7 (4)	0.0 (0)
	감소	(1)	0.0 (0)	100.0 (1)	0.0 (0)	0.0 (0)

표 3. 단독심사 대비 3인 협의심사 전반적 만족도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 만족		보통	◎ 불만족		매우 불만족	100점 평균 (점)	
			매우 만족 한다	만족한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63)	57.1 (36)	15.9 (10)	41.3 (26)	33.3 (21)	9.5 (6)	4.8 (3)	4.8 (3)	64.7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37)	62.2 (23)	21.6 (8)	40.5 (15)	29.7 (11)	8.1 (3)	5.4 (2)	2.7 (1)	68.2
	대리인	(26)	50.0 (13)	7.7 (2)	42.3 (11)	38.5 (10)	11.5 (3)	3.8 (1)	7.7 (2)	59.6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1)	63.6 (7)	27.3 (3)	36.4 (4)	27.3 (3)	9.1 (1)	0.0 (0)	9.1 (1)	68.2
	기타	(26)	61.5 (16)	19.2 (5)	42.3 (11)	30.8 (8)	7.7 (2)	7.7 (2)	0.0 (0)	68.3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5)	40.0 (2)	0.0 (0)	40.0 (2)	40.0 (2)	20.0 (1)	20.0 (1)	0.0 (0)	55.0
	중소기업	(14)	85.7 (12)	35.7 (5)	50.0 (7)	7.1 (1)	7.1 (1)	7.1 (1)	0.0 (0)	78.6
	외국법인/개인	(1)	100.0 (1)	0.0 (0)	100.0 (1)	0.0 (0)	0.0 (0)	0.0 (0)	0.0 (0)	75.0
	대학/연구기관	(6)	16.7 (1)	0.0 (0)	16.7 (1)	83.3 (5)	0.0 (0)	0.0 (0)	0.0 (0)	54.2
	개인	(11)	63.6 (7)	27.3 (3)	36.4 (4)	27.3 (3)	9.1 (1)	0.0 (0)	9.1 (1)	68.2
	기타	-	-	-	-	-	-	-	-	-
출원개수	5개 미만	(33)	69.7 (23)	24.2 (8)	45.5 (15)	21.2 (7)	9.1 (3)	6.1 (2)	3.0 (1)	70.5
	5개 이상	(4)	0.0 (0)	0.0 (0)	0.0 (0)	100.0 (4)	0.0 (0)	0.0 (0)	0.0 (0)	50.0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1)	66.7 (14)	23.8 (5)	42.9 (9)	23.8 (5)	9.5 (2)	4.8 (1)	4.8 (1)	69.1
	유사	(15)	60.0 (9)	20.0 (3)	40.0 (6)	33.3 (5)	6.7 (1)	6.7 (1)	0.0 (0)	68.3
	감소	(1)	0.0 (0)	0.0 (0)	0.0 (0)	100.0 (1)	0.0 (0)	0.0 (0)	0.0 (0)	50.0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여부	등록	(33)	75.8 (25)	24.2 (8)	51.5 (17)	21.2 (7)	3.0 (1)	3.0 (1)	0.0 (0)	74.2
	거절	(11)	36.4 (4)	0.0 (0)	36.4 (4)	36.4 (4)	27.3 (3)	9.1 (1)	18.2 (2)	47.7
	등록 및 거절 모두	(16)	43.8 (7)	12.5 (2)	31.3 (5)	43.8 (7)	12.5 (2)	6.3 (1)	6.3 (1)	59.4
	기타	(3)	0.0 (0)	0.0 (0)	0.0 (0)	100.0 (3)	0.0 (0)	0.0 (0)	0.0 (0)	50.0

표 4. 3인 협의심사 만족이유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출원건에 대한 높은 기술 이해도	거절이유(신규성· 진보성·기재불비 등) 판단의 정확성 향상	거절이유 일괄 통지를 통한 빠른 심사처리	기타
전체		(36)	55.6 (20)	47.2 (17)	19.4 (7)	5.6 (2)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23)	60.9 (14)	43.5 (10)	13.0 (3)	4.3 (1)
	대리인	(13)	46.2 (6)	53.8 (7)	30.8 (4)	7.7 (1)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7)	57.1 (4)	42.9 (3)	14.3 (1)	0.0 (0)
	기타	(16)	62.5 (10)	43.8 (7)	12.5 (2)	6.3 (1)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2)	50.0 (1)	100.0 (2)	0.0 (0)	0.0 (0)
	중소기업	(12)	66.7 (8)	41.7 (5)	8.3 (1)	8.3 (1)
	외국법인/개인	(1)	0.0 (0)	0.0 (0)	100.0 (1)	0.0 (0)
	대학/연구기관	(1)	100.0 (1)	0.0 (0)	0.0 (0)	0.0 (0)
	개인	(7)	57.1 (4)	42.9 (3)	14.3 (1)	0.0 (0)
	기타	-	-	-	-	-
출원개수	5개 미만	(23)	60.9 (14)	43.5 (10)	13.0 (3)	4.3 (1)
	5개 이상	-	-	-	-	-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14)	71.4 (10)	35.7 (5)	7.1 (1)	0.0 (0)
	유사	(9)	44.4 (4)	55.6 (5)	22.2 (2)	11.1 (1)
	감소	-	-	-	-	-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여부	등록	(25)	64.0 (16)	48.0 (12)	12.0 (3)	8.0 (2)
	거절	(4)	25.0 (1)	50.0 (2)	50.0 (2)	0.0 (0)
	등록 및 거절 모두	(7)	42.9 (3)	42.9 (3)	28.6 (2)	0.0 (0)
	기타	-	-	-	-	-

표 5. 3인 협의심사 불만족이유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선행기술 대비시 비특허문헌 (논문 등)의 사용 비율이 높음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면담 등 심사관과의 소통에 대한 부담 증가	기타
전체		(27)	14.8 (4)	51.9 (14)	37.0 (10)	22.2 (6)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14)	21.4 (3)	57.1 (8)	42.9 (6)	21.4 (3)
	대리인	(13)	7.7 (1)	46.2 (6)	30.8 (4)	23.1 (3)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4)	75.0 (3)	75.0 (3)	25.0 (1)	25.0 (1)
	기타	(10)	0.0 (0)	50.0 (5)	50.0 (5)	20.0 (2)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	0.0 (0)	33.3 (1)	66.7 (2)	33.3 (1)
	중소기업	(2)	0.0 (0)	50.0 (1)	50.0 (1)	0.0 (0)
	외국법인/개인	-	-	-	-	-
	대학/연구기관	(5)	0.0 (0)	60.0 (3)	40.0 (2)	20.0 (1)
	개인	(4)	75.0 (3)	75.0 (3)	25.0 (1)	25.0 (1)
기타	-	-	-	-	-	
출원개수	5개 미만	(10)	30.0 (3)	60.0 (6)	40.0 (4)	20.0 (2)
	5개 이상	(4)	0.0 (0)	50.0 (2)	50.0 (2)	25.0 (1)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7)	14.3 (1)	57.1 (4)	28.6 (2)	42.9 (3)
	유사	(6)	16.7 (1)	66.7 (4)	66.7 (4)	0.0 (0)
	감소	(1)	100.0 (1)	0.0 (0)	0.0 (0)	0.0 (0)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여부	등록	(8)	12.5 (1)	37.5 (3)	50.0 (4)	12.5 (1)
	거절	(7)	28.6 (2)	57.1 (4)	28.6 (2)	28.6 (2)
	등록 및 거절 모두	(9)	11.1 (1)	66.7 (6)	44.4 (4)	11.1 (1)
	기타	(3)	0.0 (0)	33.3 (1)	0.0 (0)	66.7 (2)

표 6. 3인 협의심사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 긍정			보통	◎ 부정			100점 평균 (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32)	66.0 (351)	23.1 (123)	42.9 (228)	25.8 (137)	8.3 (44)	6.4 (34)	1.9 (10)	69.7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71.0 (303)	25.3 (108)	45.7 (195)	24.1 (103)	4.9 (21)	4.2 (18)	0.7 (3)	72.7
	대리인	(105)	45.7 (48)	14.3 (15)	31.4 (33)	32.4 (34)	21.9 (23)	15.2 (16)	6.7 (7)	57.9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71.7 (99)	29.0 (40)	42.8 (59)	23.9 (33)	4.3 (6)	4.3 (6)	0.0 (0)	74.1
	기타	(289)	70.6 (204)	23.5 (68)	47.1 (136)	24.2 (70)	5.2 (15)	4.2 (12)	1.0 (3)	72.0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73.3 (22)	16.7 (5)	56.7 (17)	20.0 (6)	6.7 (2)	6.7 (2)	0.0 (0)	70.8
	중소기업	(201)	73.6 (148)	27.4 (55)	46.3 (93)	22.4 (45)	4.0 (8)	3.0 (6)	1.0 (2)	74.0
	외국법인/개인	(7)	14.3 (1)	14.3 (1)	0.0 (0)	57.1 (4)	28.6 (2)	14.3 (1)	14.3 (1)	46.4
	대학/연구기관	(47)	66.0 (31)	12.8 (6)	53.2 (25)	29.8 (14)	4.3 (2)	4.3 (2)	0.0 (0)	68.6
	개인	(138)	71.7 (99)	29.0 (40)	42.8 (59)	23.9 (33)	4.3 (6)	4.3 (6)	0.0 (0)	74.1
	기타	(4)	50.0 (2)	25.0 (1)	25.0 (1)	25.0 (1)	25.0 (1)	25.0 (1)	0.0 (0)	62.5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64.4 (172)	22.8 (61)	41.6 (111)	27.7 (74)	7.9 (21)	5.2 (14)	2.6 (7)	69.2
	비대상	(265)	67.5 (179)	23.4 (62)	44.2 (117)	23.8 (63)	8.7 (23)	7.5 (20)	1.1 (3)	70.3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72.4 (152)	26.7 (56)	45.7 (96)	23.3 (49)	4.3 (9)	3.3 (7)	1.0 (2)	73.5
	5개 이상	(217)	69.6 (151)	24.0 (52)	45.6 (99)	24.9 (54)	5.5 (12)	5.1 (11)	0.5 (1)	71.9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29)	74.2 (170)	30.6 (70)	43.7 (100)	22.3 (51)	3.5 (8)	3.1 (7)	0.4 (1)	75.2
	유사	(169)	66.9 (113)	17.8 (30)	49.1 (83)	26.6 (45)	6.5 (11)	5.9 (10)	0.6 (1)	69.4
	감소	(29)	69.0 (20)	27.6 (8)	41.4 (12)	24.1 (7)	6.9 (2)	3.4 (1)	3.4 (1)	71.6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여부	등록	(33)	63.6 (21)	21.2 (7)	42.4 (14)	27.3 (9)	9.1 (3)	3.0 (1)	6.1 (2)	67.4
	거절	(11)	36.4 (4)	0.0 (0)	36.4 (4)	36.4 (4)	27.3 (3)	18.2 (2)	9.1 (1)	50.0
	등록 및 거절 모두	(16)	37.5 (6)	12.5 (2)	25.0 (4)	37.5 (6)	25.0 (4)	12.5 (2)	12.5 (2)	53.1
	기타	(3)	33.3 (1)	0.0 (0)	33.3 (1)	66.7 (2)	0.0 (0)	0.0 (0)	0.0 (0)	58.3

표 7. 3인 협의심사 선택 의향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 긍정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 부정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0점 평균 (점)	
전체	(532)	66.2 (352)	19.2 (102)	47.0 (250)	21.6 (115)	12.2 (65)	9.2 (49)	3.0 (16)	67.5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70.7 (302)	20.8 (89)	49.9 (213)	21.8 (93)	7.5 (32)	6.6 (28)	0.9 (4)	70.8
	대리인	(105)	47.6 (50)	12.4 (13)	35.2 (37)	21.0 (22)	31.4 (33)	20.0 (21)	11.4 (12)	54.3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79.0 (109)	28.3 (39)	50.7 (70)	15.2 (21)	5.8 (8)	5.1 (7)	0.7 (1)	75.2
	기타	(289)	66.8 (193)	17.3 (50)	49.5 (143)	24.9 (72)	8.3 (72)	7.3 (21)	1.0 (3)	68.7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60.0 (18)	10.0 (3)	50.0 (15)	30.0 (9)	10.0 (3)	10.0 (3)	0.0 (0)	65.0
	중소기업	(201)	71.1 (143)	19.9 (40)	51.2 (103)	21.9 (44)	7.0 (14)	5.5 (11)	1.5 (3)	70.7
	외국법인/개인	(7)	42.9 (3)	14.3 (1)	28.6 (2)	14.3 (1)	42.9 (3)	42.9 (3)	0.0 (0)	53.6
	대학/연구기관	(47)	59.6 (28)	10.6 (5)	48.9 (23)	34.0 (16)	6.4 (3)	6.4 (3)	0.0 (0)	66.0
	개인	(138)	79.0 (109)	28.3 (39)	50.7 (70)	15.2 (21)	5.8 (8)	5.1 (7)	0.7 (1)	75.2
	기타	(4)	25.0 (1)	25.0 (1)	0.0 (0)	50.0 (2)	25.0 (1)	25.0 (1)	0.0 (0)	56.3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66.3 (177)	18.7 (50)	47.6 (127)	21.7 (58)	12.0 (32)	8.6 (23)	3.4 (9)	67.4
	비대상	(265)	66.0 (175)	19.6 (52)	46.4 (123)	21.5 (57)	12.5 (33)	9.8 (26)	2.6 (7)	67.6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72.9 (153)	21.9 (46)	51.0 (107)	20.0 (42)	7.1 (15)	6.2 (13)	1.0 (2)	71.7
	5개 이상	(217)	68.7 (149)	19.8 (43)	48.8 (106)	23.5 (51)	7.8 (17)	6.9 (15)	0.9 (2)	69.9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29)	74.2 (170)	24.9 (57)	49.3 (113)	17.9 (41)	7.9 (18)	6.6 (15)	1.3 (3)	72.5
	유사	(169)	65.7 (111)	16.0 (27)	49.7 (84)	26.6 (45)	7.7 (13)	7.7 (13)	0.0 (0)	68.5
	감소	(29)	72.4 (21)	17.2 (5)	55.2 (16)	24.1 (7)	3.4 (1)	0.0 (0)	3.4 (1)	70.7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여부	등록	(33)	66.7 (22)	21.2 (7)	45.5 (15)	18.2 (6)	15.2 (5)	9.1 (3)	6.1 (2)	66.7
	거절	(11)	54.5 (6)	0.0 (0)	54.5 (6)	18.2 (2)	27.3 (3)	18.2 (2)	9.1 (1)	54.6
	등록 및 거절 모두	(16)	43.8 (7)	12.5 (2)	31.3 (5)	18.8 (3)	37.5 (6)	18.8 (3)	18.8 (3)	50.0
	기타	(3)	33.3 (1)	0.0 (0)	33.3 (1)	66.7 (2)	0.0 (0)	0.0 (0)	0.0 (0)	58.3

표 8. 3인 협의심사 개선 의견(10순위)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없다	심사 처리 속도가 길어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심사관의 전문성이 강화 되어야 한다	제도의 활성화 바란다	3인 간 협의/ 의견 수렴이 잘 되어야 한다	3인 각각의 의견/ 심사 내용을 알 수 있으면 한다	심사의 일관성 및 정확성이 향상되었 으면 한다	3인 심사관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바란다	심사의 객관성 확대 바란다	1인 주심과 2인 부심 사관 제도가 있으면 한다	
전체	(532)	29.7 (158)	15.8 (84)	7.9 (42)	3.2 (17)	3.0 (16)	2.6 (14)	2.6 (14)	2.4 (13)	2.4 (13)	2.3 (12)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32.3 (138)	14.8 (63)	9.4 (40)	3.5 (15)	3.0 (13)	2.3 (10)	2.3 (10)	2.8 (12)	2.3 (10)	1.6 (7)
	대리인	(105)	19.0 (20)	20.0 (21)	1.9 (2)	1.9 (2)	2.9 (3)	3.8 (4)	3.8 (4)	1.0 (1)	2.9 (3)	4.8 (5)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29.0 (40)	15.2 (21)	11.6 (16)	2.2 (3)	4.3 (6)	3.6 (5)	0.7 (1)	4.3 (6)	2.2 (3)	1.4 (2)
	기타	(289)	33.9 (98)	14.5 (42)	8.3 (24)	4.2 (12)	2.4 (7)	1.7 (5)	3.1 (9)	2.1 (6)	2.4 (7)	1.7 (5)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26.7 (8)	16.7 (5)	10.0 (3)	10.0 (3)	0.0 (0)	3.3 (1)	3.3 (1)	0.0 (0)	0.0 (0)	10.0 (3)
	중소기업	(201)	33.3 (67)	13.9 (28)	9.5 (19)	4.0 (8)	2.0 (4)	1.0 (2)	3.5 (7)	2.0 (4)	3.5 (7)	1.0 (2)
	외국법인/개인	(7)	28.6 (2)	14.3 (1)	0.0 (0)	0.0 (0)	0.0 (0)	14.3 (1)	0.0 (0)	0.0 (0)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47)	42.6 (20)	17.0 (8)	2.1 (1)	2.1 (1)	4.3 (2)	2.1 (1)	2.1 (1)	4.3 (2)	0.0 (0)	0.0 (0)
	개인	(138)	29.0 (40)	15.2 (21)	11.6 (16)	2.2 (3)	4.3 (6)	3.6 (5)	0.7 (1)	4.3 (6)	2.2 (3)	1.4 (2)
	기타	(4)	25.0 (1)	0.0 (0)	25.0 (1)	0.0 (0)	25.0 (1)	0.0 (0)	0.0 (0)	0.0 (0)	0.0 (0)	0.0 (0)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31.5 (84)	13.9 (37)	8.6 (23)	3.4 (9)	4.1 (11)	1.9 (5)	3.7 (10)	1.9 (5)	1.9 (5)	2.2 (6)
	비대상	(265)	27.9 (74)	17.7 (47)	7.2 (19)	3.0 (8)	1.9 (5)	3.4 (9)	1.5 (4)	3.0 (8)	3.0 (8)	2.3 (6)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34.3 (72)	11.0 (23)	11.0 (23)	4.8 (10)	4.3 (9)	1.4 (3)	3.3 (7)	1.9 (4)	2.9 (6)	1.4 (3)
	5개 이상	(217)	30.4 (66)	18.4 (40)	7.8 (17)	2.3 (5)	1.8 (4)	3.2 (7)	1.4 (3)	3.7 (8)	1.8 (4)	1.8 (4)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29)	33.6 (77)	16.2 (37)	10.5 (24)	4.4 (10)	1.7 (4)	1.7 (4)	1.7 (4)	2.6 (6)	2.2 (5)	2.2 (5)
	유사	(169)	27.8 (47)	14.8 (25)	7.1 (12)	2.4 (4)	5.3 (9)	3.0 (5)	3.6 (6)	3.0 (5)	3.0 (5)	1.2 (2)
	감소	(29)	48.3 (14)	3.4 (1)	13.8 (4)	3.4 (1)	0.0 (0)	3.4 (1)	0.0 (0)	3.4 (1)	0.0 (0)	0.0 (0)
3인 협의심사를 통한 출원 여부	등록	(33)	30.3 (10)	21.2 (7)	3.0 (1)	0.0 (0)	3.0 (1)	6.1 (2)	3.0 (1)	3.0 (1)	0.0 (0)	3.0 (1)
	거절	(11)	63.6 (7)	0.0 (0)	0.0 (0)	0.0 (0)	0.0 (0)	9.1 (1)	9.1 (1)	0.0 (0)	0.0 (0)	9.1 (1)
	등록 및 거절 모두	(16)	18.8 (3)	25.0 (4)	6.3 (1)	6.3 (1)	6.3 (1)	0.0 (0)	0.0 (0)	0.0 (0)	0.0 (0)	0.0 (0)
	기타	(3)	66.7 (2)	33.3 (1)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표 9. 심사유예 제도 인지도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들어 봤고, 내용도 잘 안다	들어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처음 듣는 말이다
전체		(532)	29.5 (157)	51.9 (276)	18.6 (99)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22.7 (97)	56.2 (240)	21.1 (90)
	대리인	(105)	57.1 (60)	34.3 (36)	8.6 (9)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17.4 (24)	54.3 (75)	28.3 (39)
	기타	(289)	25.3 (73)	57.1 (165)	17.6 (51)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40.0 (12)	40.0 (12)	20.0 (6)
	중소기업	(201)	13.9 (28)	64.2 (129)	21.9 (44)
	외국법인/개인	(7)	28.6 (2)	71.4 (5)	0.0 (0)
	대학/연구기관	(47)	63.8 (30)	34.0 (16)	2.1 (1)
	개인	(138)	17.4 (24)	54.3 (75)	28.3 (39)
	기타	(4)	25.0 (1)	75.0 (3)	0.0 (0)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34.8 (93)	49.8 (133)	15.4 (41)
	비대상	(265)	24.2 (64)	54.0 (143)	21.9 (58)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21.9 (46)	58.6 (123)	19.5 (41)
	5개 이상	(217)	23.5 (51)	53.9 (117)	22.6 (49)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29)	24.0 (55)	57.2 (131)	18.8 (43)
	유사	(169)	21.3 (36)	55.6 (94)	23.1 (39)
	감소	(29)	20.7 (6)	51.7 (15)	27.6 (8)

표 10. 심사유예 제도 인지 경로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특허청 누리집 (홈페이지)을 통해	뉴스, 신문을 통해	동료, 대리인, 출원인 등 업무 관련자를 통해	특허청 직원을 통해	기타
전체		(433)	17.6 (76)	14.8 (64)	58.2 (252)	2.1 (9)	7.4 (32)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337)	19.0 (64)	17.2 (58)	55.2 (186)	2.1 (7)	6.5 (22)
	대리인	(96)	12.5 (12)	6.3 (6)	68.8 (66)	2.1 (2)	10.4 (10)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99)	25.3 (25)	28.3 (28)	38.4 (38)	4.0 (4)	4.0 (4)
	기타	(238)	16.4 (39)	12.6 (30)	62.2 (148)	1.3 (3)	7.6 (18)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24)	4.2 (1)	20.8 (5)	62.5 (15)	0.0 (0)	12.5 (3)
	중소기업	(157)	20.4 (32)	14.6 (23)	58.0 (91)	1.9 (3)	5.1 (8)
	외국법인/개인	(7)	14.3 (1)	14.3 (1)	42.9 (3)	0.0 (0)	28.6 (2)
	대학/연구기관	(46)	10.9 (5)	0.0 (0)	78.3 (36)	0.0 (0)	10.9 (5)
	개인	(99)	25.3 (25)	28.3 (28)	38.4 (38)	4.0 (4)	4.0 (4)
	기타	(4)	0.0 (0)	25.0 (1)	75.0 (3)	0.0 (0)	0.0 (0)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26)	15.0 (34)	10.6 (24)	65.0 (147)	2.7 (6)	6.6 (15)
	비대상	(207)	20.3 (42)	19.3 (40)	50.7 (105)	1.4 (3)	8.2 (17)
출원개수	5개 미만	(169)	16.0 (27)	15.4 (26)	60.4 (102)	2.4 (4)	5.9 (10)
	5개 이상	(168)	22.0 (37)	19.0 (32)	50.0 (84)	1.8 (3)	7.1 (12)
심사유예 제도 인지여부	숙지	(157)	17.8 (28)	4.5 (7)	63.7 (100)	2.5 (4)	11.5 (18)
	단순인지	(276)	17.4 (48)	20.7 (57)	55.1 (152)	1.8 (5)	5.1 (14)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186)	23.1 (43)	14.5 (27)	54.8 (102)	1.6 (3)	5.9 (11)
	유사	(130)	13.8 (18)	20.8 (27)	56.2 (73)	2.3 (3)	6.9 (9)
	감소	(21)	14.3 (3)	19.0 (4)	52.4 (11)	4.8 (1)	9.5 (2)

표 11. 심사유예 제도 경험 여부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전체		(433)	21.2 (92)	78.8 (341)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337)	19.6 (66)	80.4 (271)
	대리인	(96)	27.1 (26)	72.9 (70)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99)	14.1 (14)	85.9 (85)
	기타	(238)	21.8 (52)	78.2 (186)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24)	16.7 (4)	83.3 (20)
	중소기업	(157)	14.6 (23)	85.4 (134)
	외국법인/개인	(7)	0.0 (0)	100.0 (7)
	대학/연구기관	(46)	54.3 (25)	45.7 (21)
	개인	(99)	14.1 (14)	85.9 (85)
	기타	(4)	0.0 (0)	100.0 (4)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26)	24.3 (55)	75.7 (171)
	비대상	(207)	17.9 (37)	82.1 (170)
출원개수	5개 미만	(169)	16.0 (27)	84.0 (142)
	5개 이상	(168)	23.2 (39)	76.8 (129)
심사유예 제도 인지여부	숙지	(157)	40.8 (64)	59.2 (93)
	단순인지	(276)	10.1 (28)	89.9 (248)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186)	20.4 (38)	79.6 (148)
	유사	(130)	18.5 (24)	81.5 (106)
	감소	(21)	19.0 (4)	81.0 (17)

표 12.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활용할 기회가 없었음	심사를 늦게 받을 이유가 없음	신청 후 취소하기 어려움	기타
전체		(341)	54.5 (186)	39.0 (133)	3.2 (11)	3.2 (11)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271)	54.6 (148)	39.9 (108)	3.3 (9)	2.2 (6)
	대리인	(70)	54.3 (38)	35.7 (25)	2.9 (2)	7.1 (5)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85)	51.8 (44)	41.2 (35)	4.7 (4)	2.4 (2)
	기타	(186)	55.9 (104)	39.2 (73)	2.7 (5)	2.2 (4)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20)	60.0 (12)	35.0 (7)	0.0 (0)	5.0 (1)
	중소기업	(134)	56.7 (76)	38.1 (51)	3.7 (5)	1.5 (2)
	외국법인/개인	(7)	57.1 (4)	42.9 (3)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21)	47.6 (10)	47.6 (10)	0.0 (0)	4.8 (1)
	개인	(85)	51.8 (44)	41.2 (35)	4.7 (4)	2.4 (2)
	기타	(4)	50.0 (2)	50.0 (2)	0.0 (0)	0.0 (0)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171)	54.4 (93)	38.6 (66)	2.9 (5)	4.1 (7)
	비대상	(170)	54.7 (93)	39.4 (67)	3.5 (6)	2.4 (4)
출원개수	5개 미만	(142)	55.6 (79)	39.4 (56)	2.1 (3)	2.8 (4)
	5개 이상	(129)	53.5 (69)	40.3 (52)	4.7 (6)	1.6 (2)
심사유예 제도 인지여부	숙지	(93)	46.2 (43)	46.2 (43)	3.2 (3)	4.3 (4)
	단순인지	(248)	57.7 (143)	36.3 (90)	3.2 (8)	2.8 (7)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148)	54.7 (81)	39.2 (58)	2.7 (4)	3.4 (5)
	유사	(106)	51.9 (55)	43.4 (46)	3.8 (4)	0.9 (1)
	감소	(17)	70.6 (12)	23.5 (4)	5.9 (1)	0.0 (0)

표 13. 향후 심사유예 제도 활용 의향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 긍정	◎ 부정		보통	◎ 부정	없다	전혀 없다	100점 평균 (점)	
			많이 있다	있다						
전체	(532)	42.9 (228)	8.8 (47)	34.0 (181)	37.0 (197)	20.1 (107)	16.7 (89)	3.4 (18)	57.1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43.8 (187)	9.1 (39)	34.7 (148)	36.8 (157)	19.4 (83)	16.2 (69)	3.3 (14)	57.6
	대리인	(105)	39.0 (41)	7.6 (8)	31.4 (33)	38.1 (40)	22.9 (24)	19.0 (20)	3.8 (4)	55.0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46.4 (64)	10.1 (14)	36.2 (50)	31.9 (44)	21.7 (30)	15.2 (21)	6.5 (9)	57.1
	기타	(289)	42.6 (123)	8.7 (25)	33.9 (98)	39.1 (113)	18.3 (53)	16.6 (48)	1.7 (5)	57.8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46.7 (14)	3.3 (1)	43.3 (13)	43.3 (13)	10.0 (3)	10.0 (3)	0.0 (0)	60.0
	중소기업	(201)	42.3 (85)	10.0 (20)	32.3 (65)	36.8 (74)	20.9 (42)	19.4 (39)	1.5 (3)	57.5
	외국법인/개인	(7)	28.6 (2)	0.0 (0)	28.6 (2)	42.9 (3)	28.6 (2)	28.6 (2)	0.0 (0)	50.0
	대학/연구기관	(47)	46.8 (22)	8.5 (4)	38.3 (18)	44.7 (21)	8.5 (4)	6.4 (3)	2.1 (1)	61.2
	개인	(138)	46.4 (64)	10.1 (14)	36.2 (50)	31.9 (44)	21.7 (30)	15.2 (21)	6.5 (9)	57.1
	기타	(4)	0.0 (0)	0.0 (0)	0.0 (0)	50.0 (2)	50.0 (2)	25.0 (1)	25.0 (1)	31.3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41.9 (112)	7.5 (20)	34.5 (92)	38.2 (102)	19.9 (53)	16.5 (44)	3.4 (9)	56.6
	비대상	(265)	43.8 (116)	10.2 (27)	33.6 (89)	35.8 (95)	20.4 (54)	17.0 (45)	3.4 (9)	57.6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41.0 (86)	7.1 (15)	33.8 (71)	38.1 (80)	21.0 (44)	17.1 (36)	3.8 (8)	55.8
	5개 이상	(217)	46.5 (101)	11.1 (24)	35.5 (77)	35.5 (77)	18.0 (39)	15.2 (33)	2.8 (6)	59.2
심사유예 제도 인지여부	숙지	(157)	46.5 (73)	9.6 (15)	36.9 (58)	31.8 (50)	21.7 (34)	17.8 (28)	3.8 (6)	57.6
	단순인지	(276)	39.5 (109)	6.5 (18)	33.0 (91)	39.1 (108)	21.4 (59)	17.8 (49)	3.6 (10)	55.3
	비인지	(99)	46.5 (46)	14.1 (14)	32.3 (32)	39.4 (39)	14.1 (14)	12.1 (12)	2.0 (2)	61.1
심사유예 제도 경험 여부	있음	(92)	65.2 (60)	14.1 (13)	51.1 (47)	22.8 (21)	12.0 (11)	9.8 (9)	2.2 (2)	66.3
	없음	(341)	35.8 (122)	5.9 (20)	29.9 (102)	40.2 (137)	24.0 (82)	19.9 (68)	4.1 (14)	53.4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29)	45.0 (103)	10.5 (24)	34.5 (79)	35.4 (81)	19.7 (45)	16.6 (38)	3.1 (7)	58.2
	유사	(169)	46.7 (79)	8.3 (14)	38.5 (65)	35.5 (60)	17.8 (30)	14.8 (25)	3.0 (5)	58.6
	감소	(29)	17.2 (5)	3.4 (1)	13.8 (4)	55.2 (16)	27.6 (8)	20.7 (6)	6.9 (2)	46.6

표 14. 심사유예 제도 개선 의견(10순위)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없다	홍보 강화 바란다	제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 하다	신청기간 연장 및 확대 바란다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	제도의 차별성/ 메리트가 없다	기술 분야/ 출원인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	전략적 으로 이용 및 악용 방지 방안이 필요 하다	신속한 심사 처리 바란다	기간 짧았 으면 한다
전체	(532)	55.5 (295)	7.7 (41)	5.8 (31)	5.3 (28)	3.6 (19)	3.0 (16)	2.1 (11)	1.7 (9)	1.3 (7)	1.1 (6)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56.7 (242)	7.5 (32)	4.9 (21)	5.4 (23)	3.0 (13)	2.3 (10)	2.6 (11)	1.9 (8)	1.2 (5)
	대리인	(105)	50.5 (53)	8.6 (9)	9.5 (10)	4.8 (5)	5.7 (6)	5.7 (6)	0.0 (0)	1.0 (1)	1.9 (2)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57.2 (79)	7.2 (10)	6.5 (9)	3.6 (5)	0.7 (1)	2.2 (3)	3.6 (5)	0.7 (1)	1.4 (2)
	기타	(289)	56.4 (163)	7.6 (22)	4.2 (12)	6.2 (18)	4.2 (12)	2.4 (7)	2.1 (6)	2.4 (7)	1.0 (3)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50.0 (15)	3.3 (1)	3.3 (1)	10.0 (3)	10.0 (3)	3.3 (1)	0.0 (0)	3.3 (1)	0.0 (0)
	중소기업	(201)	56.2 (113)	9.5 (19)	4.5 (9)	5.0 (10)	4.0 (8)	2.0 (4)	1.5 (3)	3.0 (6)	1.5 (3)
	외국법인/개인	(7)	71.4 (5)	0.0 (0)	0.0 (0)	0.0 (0)	0.0 (0)	14.3 (1)	0.0 (0)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47)	57.4 (27)	4.3 (2)	4.3 (2)	10.6 (5)	2.1 (1)	0.0 (0)	6.4 (3)	0.0 (0)	0.0 (0)
	개인	(138)	57.2 (79)	7.2 (10)	6.5 (9)	3.6 (5)	0.7 (1)	2.2 (3)	3.6 (5)	0.7 (1)	1.4 (2)
	기타	(4)	75.0 (3)	0.0 (0)	0.0 (0)	0.0 (0)	0.0 (0)	25.0 (1)	0.0 (0)	0.0 (0)	0.0 (0)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57.7 (154)	7.5 (20)	6.7 (18)	4.9 (13)	2.6 (7)	2.2 (6)	1.5 (4)	1.5 (4)	0.4 (1)
	비대상	(265)	53.2 (141)	7.9 (21)	4.9 (13)	5.7 (15)	4.5 (12)	3.8 (10)	2.6 (7)	1.9 (5)	2.3 (6)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59.5 (125)	6.2 (13)	7.1 (15)	4.8 (10)	2.4 (5)	1.4 (3)	1.4 (3)	1.4 (3)	0.0 (0)
	5개 이상	(217)	53.9 (117)	8.8 (19)	2.8 (6)	6.0 (13)	3.7 (8)	3.2 (7)	3.7 (8)	2.3 (5)	2.3 (5)
심사유예 제도 인지여부	숙지	(157)	58.0 (91)	3.2 (5)	8.9 (14)	7.6 (12)	1.9 (3)	3.8 (6)	1.3 (2)	1.3 (2)	1.9 (3)
	단순인지	(276)	52.2 (144)	9.4 (26)	4.7 (13)	5.1 (14)	4.7 (13)	3.3 (9)	2.2 (6)	1.1 (3)	1.1 (3)
	비인지	(99)	60.6 (60)	10.1 (10)	4.0 (4)	2.0 (2)	3.0 (3)	1.0 (1)	3.0 (3)	4.0 (4)	1.0 (1)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74)	57.2 (131)	4.8 (11)	4.8 (11)	7.0 (16)	3.5 (8)	2.2 (5)	2.6 (6)	2.2 (5)	1.3 (3)
	유사	(219)	53.8 (91)	11.8 (20)	5.3 (9)	4.1 (7)	2.4 (4)	1.8 (3)	3.0 (5)	1.8 (3)	0.6 (1)
	감소	(39)	69.0 (20)	3.4 (1)	3.4 (1)	0.0 (0)	3.4 (1)	6.9 (2)	0.0 (0)	0.0 (0)	3.4 (1)

표 15.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도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들어 봤고, 내용도 잘 안다	들어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처음 듣는 말이다
전체		(532)	27.3 (145)	20.3 (108)	52.4 (279)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18.0 (77)	21.1 (90)	60.9 (260)
	대리인	(105)	64.8 (68)	17.1 (18)	18.1 (19)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6.5 (9)	21.7 (30)	71.7 (99)
	기타	(289)	23.5 (68)	20.8 (60)	55.7 (161)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40.0 (12)	26.7 (8)	33.3 (10)
	중소기업	(201)	13.4 (27)	20.9 (42)	65.7 (132)
	외국법인/개인	(7)	14.3 (1)	42.9 (3)	42.9 (3)
	대학/연구기관	(47)	55.3 (26)	14.9 (7)	29.8 (14)
	개인	(138)	6.5 (9)	21.7 (30)	71.7 (99)
	기타	(4)	50.0 (2)	0.0 (0)	50.0 (2)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28.1 (75)	24.0 (64)	47.9 (128)
	비대상	(265)	26.4 (70)	16.6 (44)	57.0 (151)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16.7 (35)	22.9 (48)	60.5 (127)
	5개 이상	(217)	19.4 (42)	19.4 (42)	61.3 (133)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29)	19.7 (45)	20.1 (46)	60.3 (138)
	유사	(169)	18.9 (32)	21.3 (36)	59.8 (101)
	감소	(29)	0.0 (0)	27.6 (8)	72.4 (21)

표 16.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 경로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특허청 누리집 (홈페이지)을 통해	뉴스, 신문을 통해	동료, 대리인, 출원인 등 업무 관련자를 통해	특허청 직원을 통해	기타
전체		(253)	19.8 (50)	15.0 (38)	58.5 (148)	2.8 (7)	4.0 (10)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167)	20.4 (34)	16.8 (28)	56.3 (94)	4.2 (7)	2.4 (4)
	대리인	(86)	18.6 (16)	11.6 (10)	62.8 (54)	0.0 (0)	7.0 (6)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39)	25.6 (10)	28.2 (11)	41.0 (16)	5.1 (2)	0.0 (0)
	기타	(128)	18.8 (24)	13.3 (17)	60.9 (78)	3.9 (5)	3.1 (4)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20)	20.0 (4)	15.0 (3)	60.0 (12)	0.0 (0)	5.0 (1)
	중소기업	(69)	21.7 (15)	17.4 (12)	52.2 (36)	5.8 (4)	2.9 (2)
	외국법인/개인	(4)	25.0 (1)	25.0 (1)	50.0 (2)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33)	12.1 (4)	3.0 (1)	78.8 (26)	3.0 (1)	3.0 (1)
	개인	(39)	25.6 (10)	28.2 (11)	41.0 (16)	5.1 (2)	0.0 (0)
	기타	(2)	0.0 (0)	0.0 (0)	100.0 (2)	0.0 (0)	0.0 (0)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139)	18.7 (26)	12.2 (17)	63.3 (88)	2.9 (4)	2.9 (4)
	비대상	(114)	21.1 (24)	18.4 (21)	52.6 (60)	2.6 (3)	5.3 (6)
출원개수	5개 미만	(83)	21.7 (18)	16.9 (14)	56.6 (47)	3.6 (3)	1.2 (1)
	5개 이상	(84)	19.0 (16)	16.7 (14)	56.0 (47)	4.8 (4)	3.6 (3)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여부	숙지	(145)	19.3 (28)	7.6 (11)	65.5 (95)	1.4 (2)	6.2 (9)
	단순인지	(108)	20.4 (22)	25.0 (27)	49.1 (53)	4.6 (5)	0.9 (1)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91)	25.3 (23)	12.1 (11)	54.9 (50)	4.4 (4)	3.3 (3)
	유사	(68)	14.7 (10)	17.6 (12)	61.8 (42)	4.4 (3)	1.5 (1)
	감소	(8)	12.5 (1)	62.5 (5)	25.0 (2)	0.0 (0)	0.0 (0)

표 17. 임시명세서 제도 경험 여부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전체		(253)	45.8 (116)	54.2 (137)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167)	40.7 (68)	59.3 (99)
	대리인	(86)	55.8 (48)	44.2 (38)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39)	17.9 (7)	82.1 (32)
	기타	(128)	47.7 (61)	52.3 (67)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20)	50.0 (10)	50.0 (10)
	중소기업	(69)	31.9 (22)	68.1 (47)
	외국법인/개인	(4)	25.0 (1)	75.0 (3)
	대학/연구기관	(33)	81.8 (27)	18.2 (6)
	개인	(39)	17.9 (7)	82.1 (32)
	기타	(2)	50.0 (1)	50.0 (1)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139)	45.3 (63)	54.7 (76)
	비대상	(114)	46.5 (53)	53.5 (61)
출원개수	5개 미만	(83)	33.7 (28)	66.3 (55)
	5개 이상	(84)	47.6 (40)	52.4 (44)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여부	숙지	(145)	71.0 (103)	29.0 (42)
	단순인지	(108)	12.0 (13)	88.0 (95)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91)	41.8 (38)	58.2 (53)
	유사	(68)	42.6 (29)	57.4 (39)
	감소	(8)	12.5 (1)	87.5 (7)

표 18.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활용할 기회가 없었음	논문 등과 같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급히 출원 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음	신청 절차와 기존 명세서 형식으로의 보정 절차가 번거로움	기타
전체		(137)	56.9 (78)	27.0 (37)	13.1 (18)	2.9 (4)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99)	55.6 (55)	28.3 (28)	12.1 (12)	4.0 (4)
	대리인	(38)	60.5 (23)	23.7 (9)	15.8 (6)	0.0 (0)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32)	56.3 (18)	25.0 (8)	12.5 (4)	6.3 (2)
	기타	(67)	55.2 (37)	29.9 (20)	11.9 (8)	3.0 (2)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10)	50.0 (5)	40.0 (4)	10.0 (1)	0.0 (0)
	중소기업	(47)	48.9 (23)	31.9 (15)	14.9 (7)	4.3 (2)
	외국법인/개인	(3)	66.7 (2)	33.3 (1)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6)	100.0 (6)	0.0 (0)	0.0 (0)	0.0 (0)
	개인	(32)	56.3 (18)	25.0 (8)	12.5 (4)	6.3 (2)
	기타	(1)	100.0 (1)	0.0 (0)	0.0 (0)	0.0 (0)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76)	60.5 (46)	25.0 (19)	13.2 (10)	1.3 (1)
	비대상	(61)	52.5 (32)	29.5 (18)	13.1 (8)	4.9 (3)
출원개수	5개 미만	(55)	61.8 (34)	23.6 (13)	12.7 (7)	1.8 (1)
	5개 이상	(44)	47.7 (21)	34.1 (15)	11.4 (5)	6.8 (3)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여부	숙지	(42)	64.3 (27)	23.8 (10)	7.1 (3)	4.8 (2)
	단순인지	(95)	53.7 (51)	28.4 (27)	15.8 (15)	2.1 (2)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53)	64.2 (34)	20.8 (11)	11.3 (6)	3.8 (2)
	유사	(39)	41.0 (16)	41.0 (16)	15.4 (6)	2.6 (1)
	감소	(7)	71.4 (5)	14.3 (1)	0.0 (0)	14.3 (1)

표 19. 향후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 의향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 긍정	◎ 부정		보통	◎ 부정	없다	전혀 없다	100점 평균 (점)	
			많이 있다	있다						
전체	(532)	59.2 (315)	25.4 (135)	33.8 (180)	25.6 (136)	15.2 (81)	11.1 (59)	4.1 (22)	66.3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56.9 (243)	23.7 (101)	33.3 (142)	26.5 (113)	16.6 (71)	11.9 (51)	4.7 (20)	64.8
	대리인	(105)	68.6 (72)	32.4 (34)	36.2 (38)	21.9 (23)	9.5 (10)	7.6 (8)	1.9 (2)	72.4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58.7 (81)	23.2 (32)	35.5 (49)	21.7 (30)	19.6 (27)	13.8 (19)	5.8 (8)	64.1
	기타	(289)	56.1 (162)	23.9 (69)	32.2 (93)	28.7 (83)	15.2 (44)	11.1 (32)	4.2 (12)	65.1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70.0 (21)	40.0 (12)	30.0 (9)	23.3 (7)	6.7 (2)	6.7 (2)	0.0 (0)	75.8
	중소기업	(201)	54.2 (109)	21.4 (43)	32.8 (66)	27.9 (56)	17.9 (36)	12.9 (26)	5.0 (10)	63.2
	외국법인/개인	(7)	28.6 (2)	0.0 (0)	28.6 (2)	57.1 (4)	14.3 (1)	14.3 (1)	0.0 (0)	53.6
	대학/연구기관	(47)	63.8 (30)	29.8 (14)	34.0 (16)	29.8 (14)	6.4 (3)	4.3 (2)	2.1 (1)	71.3
	개인	(138)	58.7 (81)	23.2 (32)	35.5 (49)	21.7 (30)	19.6 (27)	13.8 (19)	5.8 (8)	64.1
	기타	(4)	0.0 (0)	0.0 (0)	0.0 (0)	50.0 (2)	50.0 (2)	25.0 (1)	25.0 (1)	31.3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59.2 (158)	23.6 (63)	35.6 (95)	27.3 (73)	13.5 (36)	11.2 (30)	2.2 (6)	66.8
	비대상	(265)	59.2 (157)	27.2 (72)	32.1 (85)	23.8 (63)	17.0 (45)	10.9 (29)	6.0 (16)	65.9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55.2 (116)	22.9 (48)	32.4 (68)	29.0 (61)	15.7 (33)	13.3 (28)	2.4 (5)	65.0
	5개 이상	(217)	58.5 (127)	24.4 (53)	34.1 (74)	24.0 (52)	17.5 (38)	10.6 (23)	6.9 (15)	64.6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여부	숙지	(145)	82.1 (119)	48.3 (70)	33.8 (49)	12.4 (18)	5.5 (8)	4.1 (6)	1.4 (2)	80.9
	단순인지	(108)	50.0 (54)	10.2 (11)	39.8 (43)	36.1 (39)	13.9 (15)	12.0 (13)	1.9 (2)	61.1
	비인지	(279)	50.9 (142)	19.4 (54)	31.5 (88)	28.3 (79)	20.8 (58)	14.3 (40)	6.5 (18)	60.8
임시명세서 제도 경험 여부	있음	(116)	91.4 (106)	49.1 (57)	42.2 (49)	6.9 (8)	1.7 (2)	0.9 (1)	0.9 (1)	84.5
	없음	(137)	48.9 (67)	17.5 (24)	31.4 (43)	35.8 (49)	15.3 (21)	13.1 (18)	2.2 (3)	62.2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29)	62.9 (144)	29.3 (67)	33.6 (77)	21.0 (48)	16.2 (37)	10.9 (25)	5.2 (12)	67.7
	유사	(169)	52.7 (89)	18.3 (31)	34.3 (58)	32.5 (55)	14.8 (25)	11.8 (20)	3.0 (5)	63.3
	감소	(29)	34.5 (10)	10.3 (3)	24.1 (7)	34.5 (10)	31.0 (9)	20.7 (6)	10.3 (3)	50.9

표 20. 임시명세서 제도 개선 의견(10순위)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없다	홍보 강화 바란다	가이드 라인 제공 바란다	제도 효율성 확대 바란다	제도의 간편성 확대 바란다	연구 노트/ 논문/ 기술서 발명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 하다	가출원 제도와 합의 및 조정이 필요 하다	일정 기간 후 명세서 제출을 해야 하는 점 개선 바란다	제도의 차별성/ 메리트가 없다	제도의 단점이 더 많다
전체	(532)	59.2 (315)	5.1 (27)	4.9 (26)	4.7 (25)	2.3 (12)	1.9 (10)	1.5 (8)	1.3 (7)	1.1 (6)	1.1 (6)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58.5 (250)	4.9 (21)	5.6 (24)	5.6 (24)	2.1 (9)	2.1 (9)	1.4 (6)	1.4 (6)	1.2 (5)
	대리인	(105)	61.9 (65)	5.7 (6)	1.9 (2)	1.0 (1)	2.9 (3)	1.0 (1)	1.9 (2)	1.0 (1)	1.0 (1)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56.5 (78)	2.9 (4)	5.1 (7)	7.2 (10)	2.9 (4)	3.6 (5)	0.0 (0)	0.7 (1)	1.4 (2)
	기타	(289)	59.5 (172)	5.9 (17)	5.9 (17)	4.8 (14)	1.7 (5)	1.4 (4)	2.1 (6)	1.7 (5)	1.0 (3)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50.0 (15)	6.7 (2)	10.0 (3)	3.3 (1)	3.3 (1)	0.0 (0)	3.3 (1)	0.0 (0)	3.3 (1)
	중소기업	(201)	57.7 (116)	6.5 (13)	6.5 (13)	5.5 (11)	1.5 (3)	1.5 (3)	2.5 (5)	2.0 (4)	0.5 (1)
	외국법인/개인	(7)	85.7 (6)	0.0 (0)	0.0 (0)	0.0 (0)	14.3 (1)	0.0 (0)	0.0 (0)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47)	68.1 (32)	4.3 (2)	2.1 (1)	4.3 (2)	0.0 (0)	2.1 (1)	0.0 (0)	2.1 (1)	2.1 (1)
	개인	(138)	56.5 (78)	2.9 (4)	5.1 (7)	7.2 (10)	2.9 (4)	3.6 (5)	0.0 (0)	0.7 (1)	1.4 (2)
	기타	(4)	75.0 (3)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55.8 (149)	4.9 (13)	5.6 (15)	4.9 (13)	3.0 (8)	3.0 (8)	0.7 (2)	1.9 (5)	1.1 (3)
	비대상	(265)	62.6 (166)	5.3 (14)	4.2 (11)	4.5 (12)	1.5 (4)	0.8 (2)	2.3 (6)	0.8 (2)	1.1 (3)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57.1 (120)	4.3 (9)	6.2 (13)	5.7 (12)	2.9 (6)	2.9 (6)	0.5 (1)	1.9 (4)	0.5 (1)
	5개 이상	(217)	59.9 (130)	5.5 (12)	5.1 (11)	5.5 (12)	1.4 (3)	1.4 (3)	2.3 (5)	0.9 (2)	1.8 (4)
임시명세서 제도 인지여부	숙지	(145)	64.8 (94)	2.8 (4)	3.4 (5)	2.8 (4)	3.4 (5)	2.1 (3)	1.4 (2)	0.7 (1)	1.4 (2)
	단순인지	(108)	62.0 (67)	4.6 (5)	3.7 (4)	4.6 (5)	1.9 (2)	2.8 (3)	2.8 (3)	0.9 (1)	1.9 (2)
	비인지	(279)	55.2 (154)	6.5 (18)	6.1 (17)	5.7 (16)	1.8 (5)	1.4 (4)	1.1 (3)	1.8 (5)	0.7 (2)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29)	56.3 (129)	5.2 (12)	7.4 (17)	5.2 (12)	2.6 (6)	3.1 (7)	1.3 (3)	1.3 (3)	0.9 (2)
	유사	(169)	60.9 (103)	5.3 (9)	4.1 (7)	7.1 (12)	1.8 (3)	0.0 (0)	1.2 (2)	1.8 (3)	1.2 (2)
	감소	(29)	62.1 (18)	0.0 (0)	0.0 (0)	0.0 (0)	0.0 (0)	6.9 (2)	3.4 (1)	0.0 (0)	3.4 (1)

표 21.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도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들어 봤고, 내용도 잘 안다	들어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처음 듣는 말이다
전체		(532)	32.1 (171)	32.3 (172)	35.5 (189)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24.4 (104)	33.5 (143)	42.2 (180)
	대리인	(105)	63.8 (67)	27.6 (29)	8.6 (9)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18.8 (26)	31.2 (43)	50.0 (69)
	기타	(289)	27.0 (78)	34.6 (100)	38.4 (111)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40.0 (12)	33.3 (10)	26.7 (8)
	중소기업	(201)	20.9 (42)	31.8 (64)	47.3 (95)
	외국법인/개인	(7)	85.7 (6)	0.0 (0)	14.3 (1)
	대학/연구기관	(47)	36.2 (17)	48.9 (23)	14.9 (7)
	개인	(138)	18.8 (26)	31.2 (43)	50.0 (69)
	기타	(4)	25.0 (1)	75.0 (3)	0.0 (0)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34.8 (93)	32.2 (86)	33.0 (88)
	비대상	(265)	29.4 (78)	32.5 (86)	38.1 (101)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24.8 (52)	32.4 (68)	42.9 (90)
	5개 이상	(217)	24.0 (52)	34.6 (75)	41.5 (90)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29)	26.6 (61)	31.0 (71)	42.4 (97)
	유사	(169)	22.5 (38)	35.5 (60)	42.0 (71)
	감소	(29)	17.2 (5)	41.4 (12)	41.4 (12)

표 22.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 경로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특허청 누리집 (홈페이지)을 통해	뉴스, 신문을 통해	동료, 대리인, 출원인 등 업무 관련자를 통해	특허청 직원을 통해	기타
전체		(343)	19.0 (65)	11.7 (40)	59.5 (204)	4.4 (15)	5.5 (19)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247)	21.1 (52)	12.1 (30)	57.5 (142)	4.0 (10)	5.3 (13)
	대리인	(96)	13.5 (13)	10.4 (10)	64.6 (62)	5.2 (5)	6.3 (6)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69)	23.2 (16)	20.3 (14)	46.4 (32)	2.9 (2)	7.2 (5)
	기타	(178)	20.2 (36)	9.0 (16)	61.8 (110)	4.5 (8)	4.5 (8)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22)	18.2 (4)	9.1 (2)	63.6 (14)	0.0 (0)	9.1 (2)
	중소기업	(106)	23.6 (25)	9.4 (10)	54.7 (58)	7.5 (8)	4.7 (5)
	외국법인/개인	(6)	16.7 (1)	16.7 (1)	66.7 (4)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40)	15.0 (6)	7.5 (3)	75.0 (30)	0.0 (0)	2.5 (1)
	개인	(69)	23.2 (16)	20.3 (14)	46.4 (32)	2.9 (2)	7.2 (5)
기타	(4)	0.0 (0)	0.0 (0)	100.0 (4)	0.0 (0)	0.0 (0)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179)	15.6 (28)	11.7 (21)	64.2 (115)	4.5 (8)	3.9 (7)
	비대상	(164)	22.6 (37)	11.6 (19)	54.3 (89)	4.3 (7)	7.3 (12)
출원개수	5개 미만	(120)	16.7 (20)	12.5 (15)	63.3 (76)	3.3 (4)	4.2 (5)
	5개 이상	(127)	25.2 (32)	11.8 (15)	52.0 (66)	4.7 (6)	6.3 (8)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여부	숙지	(171)	22.8 (39)	6.4 (11)	57.9 (99)	5.8 (10)	7.0 (12)
	단순인지	(172)	15.1 (26)	16.9 (29)	61.0 (105)	2.9 (5)	4.1 (7)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132)	22.7 (30)	11.4 (15)	55.3 (73)	5.3 (7)	5.3 (7)
	유사	(98)	17.3 (17)	12.2 (12)	63.3 (62)	2.0 (2)	5.1 (5)
	감소	(17)	29.4 (5)	17.6 (3)	41.2 (7)	5.9 (1)	5.9 (1)

표 23.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경험 여부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전체		(343)	44.0 (151)	56.0 (192)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247)	34.4 (85)	65.6 (162)
	대리인	(96)	68.8 (66)	31.3 (30)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69)	30.4 (21)	69.6 (48)
	기타	(178)	36.0 (64)	64.0 (114)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22)	18.2 (4)	81.8 (18)
	중소기업	(106)	32.1 (34)	67.9 (72)
	외국법인/개인	(6)	83.3 (5)	16.7 (1)
	대학/연구기관	(40)	52.5 (21)	47.5 (19)
	개인	(69)	30.4 (21)	69.6 (48)
	기타	(4)	0.0 (0)	100.0 (4)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179)	46.4 (83)	53.6 (96)
	비대상	(164)	41.5 (68)	58.5 (96)
출원개수	5개 미만	(120)	31.7 (38)	68.3 (82)
	5개 이상	(127)	37.0 (47)	63.0 (80)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여부	숙지	(171)	72.5 (124)	27.5 (47)
	단순인지	(172)	15.7 (27)	84.3 (145)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132)	37.9 (50)	62.1 (82)
	유사	(98)	27.6 (27)	72.4 (71)
	감소	(17)	47.1 (8)	52.9 (9)

표 24.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해당 출원이 계속 중인 상태가 필요하였음	반환 금액이 많지 않음	신청 절차가 번거로움	기타
전체		(192)	47.9 (92)	8.9 (17)	18.8 (36)	24.5 (47)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162)	47.5 (77)	9.3 (15)	19.1 (31)	24.1 (39)
	대리인	(30)	50.0 (15)	6.7 (2)	16.7 (5)	26.7 (8)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48)	27.1 (13)	14.6 (7)	35.4 (17)	22.9 (11)
	기타	(114)	56.1 (64)	7.0 (8)	12.3 (14)	24.6 (28)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18)	77.8 (14)	11.1 (2)	11.1 (2)	0.0 (0)
	중소기업	(72)	52.8 (38)	6.9 (5)	15.3 (11)	25.0 (18)
	외국법인/개인	(1)	100.0 (1)	0.0 (0)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19)	52.6 (10)	0.0 (0)	5.3 (1)	42.1 (8)
	개인	(48)	27.1 (13)	14.6 (7)	35.4 (17)	22.9 (11)
	기타	(4)	25.0 (1)	25.0 (1)	0.0 (0)	50.0 (2)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96)	49.0 (47)	8.3 (8)	18.8 (18)	24.0 (23)
	비대상	(96)	46.9 (45)	9.4 (9)	18.8 (18)	25.0 (24)
출원개수	5개 미만	(82)	52.4 (43)	11.0 (9)	18.3 (15)	18.3 (15)
	5개 이상	(80)	42.5 (34)	7.5 (6)	20.0 (16)	30.0 (24)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여부	숙지	(47)	59.6 (28)	6.4 (3)	14.9 (7)	19.1 (9)
	단순인지	(145)	44.1 (64)	9.7 (14)	20.0 (29)	26.2 (38)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82)	54.9 (45)	13.4 (11)	12.2 (10)	19.5 (16)
	유사	(71)	42.3 (30)	4.2 (3)	25.4 (18)	28.2 (20)
	감소	(9)	22.2 (2)	11.1 (1)	33.3 (3)	33.3 (3)

표 25. 향후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활용 의향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 긍정	◎ 부정		보통	◎ 부정	없다	전혀 없다	100점 평균 (점)	
			많이 있다	있다						
전체	(532)	77.6 (413)	39.1 (208)	38.5 (205)	16.0 (85)	6.4 (34)	4.3 (23)	2.1 (11)	77.1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74.0 (316)	34.4 (147)	39.6 (169)	18.5 (79)	7.5 (32)	4.9 (21)	2.6 (11)	74.6
	대리인	(105)	92.4 (97)	58.1 (61)	34.3 (36)	5.7 (6)	1.9 (2)	1.9 (2)	0.0 (0)	87.1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73.2 (101)	30.4 (42)	42.8 (59)	20.3 (28)	6.5 (9)	4.3 (6)	2.2 (3)	73.7
	기타	(289)	74.4 (215)	36.3 (105)	38.1 (110)	17.6 (51)	8.0 (23)	5.2 (15)	2.8 (8)	75.0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70.0 (21)	46.7 (14)	23.3 (7)	20.0 (6)	10.0 (3)	10.0 (3)	0.0 (0)	76.7
	중소기업	(201)	74.1 (149)	35.8 (72)	38.3 (77)	17.9 (36)	8.0 (16)	4.5 (9)	3.5 (7)	74.6
	외국법인/개인	(7)	100.0 (7)	28.6 (2)	71.4 (5)	0.0 (0)	0.0 (0)	0.0 (0)	0.0 (0)	82.1
	대학/연구기관	(47)	78.7 (37)	36.2 (17)	42.6 (20)	17.0 (8)	4.3 (2)	4.3 (2)	0.0 (0)	77.7
	개인	(138)	73.2 (101)	30.4 (42)	42.8 (59)	20.3 (28)	6.5 (9)	4.3 (6)	2.2 (3)	73.7
	기타	(4)	25.0 (1)	0.0 (0)	25.0 (1)	25.0 (1)	50.0 (2)	25.0 (1)	25.0 (1)	37.5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74.9 (200)	39.3 (105)	35.6 (95)	19.1 (51)	6.0 (16)	3.4 (9)	2.6 (7)	76.4
	비대상	(265)	80.4 (213)	38.9 (103)	41.5 (110)	12.8 (34)	6.8 (18)	5.3 (14)	1.5 (4)	77.7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70.0 (147)	29.5 (62)	40.5 (85)	21.9 (46)	8.1 (17)	4.3 (9)	3.8 (8)	71.9
	5개 이상	(217)	77.9 (169)	39.2 (85)	38.7 (84)	15.2 (33)	6.9 (15)	5.5 (12)	1.4 (3)	77.2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여부	숙지	(171)	88.3 (151)	53.2 (91)	35.1 (60)	9.4 (16)	2.3 (4)	2.3 (4)	0.0 (0)	84.8
	단순인지	(172)	70.9 (122)	25.6 (44)	45.3 (78)	23.3 (40)	5.8 (10)	2.9 (5)	2.9 (5)	71.95
	비인지	(189)	74.1 (140)	38.6 (73)	35.4 (67)	15.3 (29)	10.6 (20)	7.4 (14)	3.2 (6)	74.74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경험 여부	있음	(151)	94.0 (142)	54.3 (82)	39.7 (60)	4.6 (7)	1.3 (2)	1.3 (2)	0.0 (0)	86.8
	없음	(192)	68.2 (131)	27.6 (53)	40.6 (78)	25.5 (49)	6.3 (12)	3.6 (7)	2.6 (5)	71.7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29)	75.1 (172)	38.0 (87)	37.1 (85)	17.9 (41)	7.0 (16)	4.4 (10)	2.6 (6)	75.9
	유사	(169)	73.4 (124)	29.6 (50)	43.8 (74)	19.5 (33)	7.1 (12)	4.7 (8)	2.4 (4)	73.4
	감소	(29)	69.0 (20)	34.5 (10)	34.5 (10)	17.2 (5)	13.8 (4)	10.3 (3)	3.4 (1)	71.6

표 26.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개선 의견(10순위)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없다	홍보 강화 바란다	반환 비율을 1/3 보다는 확대 해야 한다	안내 제공 바란다	절차의 간소화 바란다	반환기간 확대 바란다	제도 유지 바란다	지금 처럼 운영 되었으면 한다	가이드 라인 제공 바란다	제도 활성화 바란다
전체	(532)	61.7 (328)	6.0 (32)	4.7 (25)	4.5 (24)	3.9 (21)	2.3 (12)	1.7 (9)	1.7 (9)	1.5 (8)	1.3 (7)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59.7 (255)	6.1 (26)	4.7 (20)	5.2 (22)	4.4 (19)	1.2 (5)	2.1 (9)	1.4 (6)	1.6 (7)
	대리인	(105)	69.5 (73)	5.7 (6)	4.8 (5)	1.9 (2)	1.9 (2)	6.7 (7)	0.0 (0)	2.9 (1)	1.0 (0)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63.8 (88)	5.8 (8)	4.3 (6)	7.2 (10)	2.2 (3)	0.0 (0)	2.9 (4)	2.2 (1)	0.7 (3)
	기타	(289)	57.8 (167)	6.2 (18)	4.8 (14)	4.2 (12)	5.5 (16)	1.7 (5)	1.7 (3)	1.0 (6)	2.1 (4)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56.7 (17)	10.0 (3)	0.0 (0)	3.3 (1)	6.7 (2)	0.0 (0)	0.0 (0)	0.0 (0)	0.0 (0)
	중소기업	(201)	55.2 (111)	6.0 (12)	6.5 (13)	4.0 (8)	6.0 (12)	2.5 (5)	2.0 (4)	1.0 (2)	2.5 (3)
	외국법인/개인	(7)	71.4 (5)	0.0 (0)	14.3 (1)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47)	68.1 (32)	6.4 (3)	0.0 (0)	6.4 (3)	4.3 (2)	0.0 (0)	2.1 (1)	2.1 (1)	2.1 (1)
	개인	(138)	63.8 (88)	5.8 (8)	4.3 (6)	7.2 (10)	2.2 (3)	0.0 (0)	2.9 (4)	2.2 (1)	0.7 (3)
	기타	(4)	50.0 (2)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63.7 (170)	6.4 (17)	4.1 (11)	3.7 (10)	3.4 (9)	1.9 (5)	1.5 (4)	1.5 (4)	1.9 (5)
	비대상	(265)	59.6 (158)	5.7 (15)	5.3 (14)	5.3 (14)	4.5 (12)	2.6 (7)	1.9 (5)	1.1 (3)	0.8 (2)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60.5 (127)	5.7 (12)	4.3 (9)	3.8 (8)	4.3 (9)	1.4 (3)	1.4 (3)	1.0 (2)	1.9 (4)
	5개 이상	(217)	59.0 (128)	6.5 (14)	5.1 (11)	6.5 (14)	4.6 (10)	0.9 (2)	2.8 (6)	1.8 (4)	1.4 (3)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인지여부	숙지	(171)	66.1 (113)	2.3 (4)	1.2 (2)	2.3 (4)	3.5 (6)	5.8 (10)	1.8 (3)	4.1 (7)	1.2 (2)
	단순인지	(172)	62.8 (108)	6.4 (11)	5.2 (9)	6.4 (11)	5.8 (10)	0.6 (1)	0.6 (1)	0.6 (1)	2.3 (4)
	비인지	(189)	56.6 (107)	9.0 (17)	7.4 (14)	4.8 (9)	2.6 (5)	0.5 (1)	2.6 (5)	0.5 (1)	1.1 (2)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29)	57.6 (132)	5.7 (13)	4.4 (10)	5.2 (12)	4.4 (10)	1.3 (3)	2.6 (6)	1.7 (4)	2.2 (5)
	유사	(169)	59.8 (101)	7.7 (13)	4.7 (8)	5.3 (9)	5.3 (9)	0.6 (1)	1.8 (3)	0.6 (1)	1.2 (2)
	감소	(29)	75.9 (22)	0.0 (0)	6.9 (2)	3.4 (1)	0.0 (0)	3.4 (1)	0.0 (0)	3.4 (1)	0.0 (0)

표 27. 의견제출통지서 간소화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 동의			보통	◎ 비동의	동의를 하지 않는다		100점 평균 (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체	(532)	62.8 (334)	26.3 (140)	36.5 (194)	21.6 (115)	15.6 (83)	9.6 (51)	6.0 (32)	66.9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69.3 (296)	29.5 (126)	39.8 (170)	19.7 (84)	11.0 (47)	6.8 (29)	4.2 (18)	70.9
	대리인	(105)	36.2 (38)	13.3 (14)	22.9 (24)	29.5 (31)	34.3 (36)	21.0 (22)	13.3 (14)	50.5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74.6 (103)	29.7 (41)	44.9 (62)	14.5 (20)	10.9 (15)	5.8 (8)	5.1 (7)	72.1
	기타	(289)	66.8 (193)	29.4 (85)	37.4 (108)	22.1 (64)	11.1 (32)	7.3 (21)	3.8 (11)	70.3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46.7 (14)	10.0 (3)	36.7 (11)	23.3 (7)	30.0 (9)	16.7 (5)	13.3 (4)	53.3
	중소기업	(201)	71.6 (144)	35.8 (72)	35.8 (72)	19.9 (40)	8.5 (17)	6.0 (12)	2.5 (5)	74.1
	외국법인/개인	(7)	42.9 (3)	0.0 (0)	42.9 (3)	28.6 (2)	28.6 (2)	14.3 (1)	14.3 (1)	50.0
	대학/연구기관	(47)	61.7 (29)	19.1 (9)	42.6 (20)	31.9 (15)	6.4 (3)	6.4 (3)	0.0 (0)	68.6
	개인	(138)	74.6 (103)	29.7 (41)	44.9 (62)	14.5 (20)	10.9 (15)	5.8 (8)	5.1 (7)	72.1
	기타	(4)	75.0 (3)	25.0 (1)	50.0 (2)	0.0 (0)	25.0 (1)	0.0 (0)	25.0 (1)	62.5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59.6 (159)	25.8 (69)	33.7 (90)	25.8 (69)	14.6 (39)	9.4 (25)	5.2 (14)	66.4
	비대상	(265)	66.0 (175)	26.8 (71)	39.2 (104)	17.4 (46)	16.6 (44)	9.8 (26)	6.8 (18)	67.4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67.1 (141)	31.4 (66)	35.7 (75)	21.0 (44)	11.9 (25)	7.1 (15)	4.8 (10)	70.5
	5개 이상	(217)	71.4 (155)	27.6 (60)	43.8 (95)	18.4 (40)	10.1 (22)	6.5 (14)	3.7 (8)	71.3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29)	74.2 (170)	36.2 (83)	38.0 (87)	15.3 (35)	10.5 (24)	6.6 (15)	3.9 (9)	74.0
	유사	(169)	60.9 (103)	20.7 (35)	40.2 (68)	26.0 (44)	13.0 (22)	7.7 (13)	5.3 (9)	65.8
	감소	(29)	79.3 (23)	27.6 (8)	51.7 (15)	17.2 (5)	3.4 (1)	3.4 (1)	0.0 (0)	75.9

표 28. 통지서 간소화 동의 이유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방대한 통지서 분량으로 쟁점이 명확하지 않음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관용어구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짐	통지서 대응을 위한 비용이 높아짐(번역 비용 등)	기타
전체		(334)	25.7 (86)	62.9 (210)	9.3 (31)	2.1 (7)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296)	25.7 (76)	63.2 (187)	9.5 (28)	1.7 (5)
	대리인	(38)	26.3 (10)	60.5 (23)	7.9 (3)	5.3 (2)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03)	24.3 (25)	64.1 (66)	10.7 (11)	1.0 (1)
	기타	(193)	26.4 (51)	62.7 (121)	8.8 (17)	2.1 (4)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14)	14.3 (2)	64.3 (9)	21.4 (3)	0.0 (0)
	중소기업	(144)	27.8 (40)	61.8 (89)	7.6 (11)	2.8 (4)
	외국법인/개인	(3)	0.0 (0)	100.0 (3)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29)	27.6 (8)	62.1 (18)	10.3 (3)	0.0 (0)
	개인	(103)	24.3 (25)	64.1 (66)	10.7 (11)	1.0 (1)
	기타	(3)	33.3 (1)	66.7 (2)	0.0 (0)	0.0 (0)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159)	23.9 (38)	64.8 (103)	9.4 (15)	1.9 (3)
	비대상	(175)	27.4 (48)	61.1 (107)	9.1 (16)	2.3 (4)
출원개수	5개 미만	(141)	24.8 (35)	63.1 (89)	9.9 (14)	2.1 (3)
	5개 이상	(155)	26.5 (41)	63.2 (98)	9.0 (14)	1.3 (2)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170)	28.2 (48)	62.4 (106)	7.6 (13)	1.8 (3)
	유사	(103)	24.3 (25)	64.1 (66)	10.7 (11)	1.0 (1)
	감소	(23)	13.0 (3)	65.2 (15)	17.4 (4)	4.3 (1)

표 29. 적절한 통지서 간소화 방안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차이점 도출 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작성	거절이유에 따라 인용 발명 간 결합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 인용 발명 간 결합의 용이성 여부를 중심으로 작성	이미 알고 있는 출원발명 내용 또는 중복 되거나 불필요한 관용어구의 작성 지양	독립항은 자세하게, 종속항은 간략하게 거절 이유 작성	기타
전체		(334)	51.2 (171)	16.8 (56)	23.1 (77)	7.5 (25)	1.5 (5)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296)	50.3 (149)	16.6 (49)	24.0 (71)	7.4 (22)	1.7 (5)
	대리인	(38)	57.9 (22)	18.4 (7)	15.8 (6)	7.9 (3)	0.0 (0)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03)	48.5 (50)	18.4 (19)	23.3 (24)	7.8 (8)	1.9 (2)
	기타	(193)	51.3 (99)	15.5 (30)	24.4 (47)	7.3 (14)	1.6 (3)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14)	64.3 (9)	28.6 (4)	7.1 (1)	0.0 (0)	0.0 (0)
	중소기업	(144)	49.3 (71)	15.3 (22)	24.3 (35)	9.7 (14)	1.4 (2)
	외국법인/개인	(3)	66.7 (2)	0.0 (0)	33.3 (1)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29)	51.7 (15)	13.8 (4)	31.0 (9)	0.0 (0)	3.4 (1)
	개인	(103)	48.5 (50)	18.4 (19)	23.3 (24)	7.8 (8)	1.9 (2)
	기타	(3)	66.7 (2)	0.0 (0)	33.3 (1)	0.0 (0)	0.0 (0)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159)	50.9 (81)	20.8 (33)	20.1 (32)	6.3 (10)	1.9 (3)
	비대상	(175)	51.4 (90)	13.1 (23)	25.7 (45)	8.6 (15)	1.1 (2)
출원개수	5개 미만	(141)	48.9 (69)	17.0 (24)	24.8 (35)	7.1 (10)	2.1 (3)
	5개 이상	(155)	51.6 (80)	16.1 (25)	23.2 (36)	7.7 (12)	1.3 (2)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170)	51.2 (87)	14.7 (25)	22.9 (39)	8.8 (15)	2.4 (4)
	유사	(103)	47.6 (49)	22.3 (23)	23.3 (24)	5.8 (6)	1.0 (1)
	감소	(23)	56.5 (13)	4.3 (1)	34.8 (8)	4.3 (1)	0.0 (0)

표 30.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경험 여부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전체		(532)	30.1 (160)	69.9 (372)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21.8 (93)	78.2 (334)
	대리인	(105)	63.8 (67)	36.2 (38)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16.7 (23)	83.3 (115)
	기타	(289)	24.2 (70)	75.8 (219)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50.0 (15)	50.0 (15)
	중소기업	(201)	17.4 (35)	82.6 (166)
	외국법인/개인	(7)	71.4 (5)	28.6 (2)
	대학/연구기관	(47)	29.8 (14)	70.2 (33)
	개인	(138)	16.7 (23)	83.3 (115)
	기타	(4)	25.0 (1)	75.0 (3)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32.2 (86)	67.8 (181)
	비대상	(265)	27.9 (74)	72.1 (191)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21.9 (46)	78.1 (164)
	5개 이상	(217)	21.7 (47)	78.3 (170)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29)	22.3 (51)	77.7 (178)
	유사	(169)	22.5 (38)	77.5 (131)
	감소	(29)	13.8 (4)	86.2 (25)

표 31.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전반적 만족도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 만족			보통	◎ 불만족			100점 평균 (점)
			만족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160)	74.4 (119)	26.3 (42)	48.1 (77)	20.6 (33)	5.0 (8)	4.4 (7)	0.6 (1)	73.8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93)	74.2 (69)	26.9 (25)	47.3 (44)	22.6 (21)	3.2 (3)	3.2 (3)	0.0 (0)	74.5
	대리인	(67)	74.6 (50)	25.4 (17)	49.3 (33)	17.9 (12)	7.5 (5)	6.0 (4)	1.5 (1)	72.8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23)	65.2 (15)	21.7 (5)	43.5 (10)	26.1 (6)	8.7 (2)	8.7 (2)	0.0 (0)	69.6
	기타	(70)	77.1 (54)	28.6 (20)	48.6 (34)	21.4 (15)	1.4 (1)	1.4 (1)	0.0 (0)	76.1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15)	73.3 (11)	20.0 (3)	53.3 (8)	26.7 (4)	0.0 (0)	0.0 (0)	0.0 (0)	73.3
	중소기업	(35)	77.1 (27)	34.3 (12)	42.9 (15)	20.0 (7)	2.9 (1)	2.9 (1)	0.0 (0)	77.1
	외국법인/개인	(5)	60.0 (3)	40.0 (2)	20.0 (1)	40.0 (2)	0.0 (0)	0.0 (0)	0.0 (0)	75.0
	대학/연구기관	(14)	92.9 (13)	21.4 (3)	71.4 (10)	7.1 (1)	0.0 (0)	0.0 (0)	0.0 (0)	78.6
	개인	(23)	65.2 (15)	21.7 (5)	43.5 (10)	26.1 (6)	8.7 (2)	8.7 (2)	0.0 (0)	69.6
	기타	(1)	0.0 (0)	0.0 (0)	0.0 (0)	100.0 (1)	0.0 (0)	0.0 (0)	0.0 (0)	50.0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86)	75.6 (65)	27.9 (24)	47.7 (41)	20.9 (18)	3.5 (3)	2.3 (2)	1.2 (1)	74.7
	비대상	(74)	73.0 (54)	24.3 (18)	48.6 (36)	20.3 (15)	6.8 (5)	6.8 (5)	0.0 (0)	72.6
출원개수	5개 미만	(46)	69.6 (32)	21.7 (10)	47.8 (22)	30.4 (14)	0.0 (0)	0.0 (0)	0.0 (0)	72.8
	5개 이상	(47)	78.7 (37)	31.9 (15)	46.8 (22)	14.9 (7)	6.4 (3)	6.4 (3)	0.0 (0)	76.1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51)	80.4 (41)	29.4 (15)	51.0 (26)	17.6 (9)	2.0 (1)	2.0 (1)	0.0 (0)	77.0
	유사	(38)	68.4 (26)	23.7 (9)	44.7 (17)	28.9 (11)	2.6 (1)	2.6 (1)	0.0 (0)	72.4
	감소	(4)	50.0 (2)	25.0 (1)	25.0 (1)	25.0 (1)	25.0 (1)	25.0 (1)	0.0 (0)	62.5

표 32.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만족 이유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심사관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의견 교환	출원인 의견의 수용도 향상	편리한 면담 예약 시스템
전체		(119)	84.0 (100)	15.1 (18)	0.8 (1)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69)	81.2 (56)	17.4 (12)	1.4 (1)
	대리인	(50)	88.0 (44)	12.0 (6)	0.0 (0)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5)	60.0 (9)	40.0 (6)	0.0 (0)
	기타	(54)	87.0 (47)	11.1 (6)	1.9 (1)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11)	90.9 (10)	9.1 (1)	0.0 (0)
	중소기업	(27)	81.5 (22)	14.8 (4)	3.7 (1)
	외국법인/개인	(3)	100.0 (3)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13)	92.3 (12)	7.7 (1)	0.0 (0)
	개인	(15)	60.0 (9)	40.0 (6)	0.0 (0)
	기타	-	-	-	-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65)	81.5 (53)	18.5 (12)	0.0 (0)
	비대상	(54)	87.0 (47)	11.1 (6)	1.9 (1)
출원개수	5개 미만	(32)	78.1 (25)	21.9 (7)	0.0 (0)
	5개 이상	(37)	83.8 (31)	13.5 (5)	2.7 (1)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41)	75.6 (31)	22.0 (9)	2.4 (1)
	유사	(26)	88.5 (23)	11.5 (3)	0.0 (0)
	감소	(2)	100.0 (2)	0.0 (0)	0.0 (0)

표 33. 심사관과의 심층면담 불만족 이유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지리적인 불편함	심사관의 불충분한 사전 준비	심사관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면담 예약 절차의 번거로움	기타
전체		(41)	24.4 (10)	22.0 (9)	19.5 (8)	19.5 (8)	14.6 (6)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24)	29.2 (7)	16.7 (4)	20.8 (5)	20.8 (5)	12.5 (3)
	대리인	(17)	17.6 (3)	29.4 (5)	17.6 (3)	17.6 (3)	17.6 (3)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8)	12.5 (1)	0.0 (0)	37.5 (3)	25.0 (2)	25.0 (2)
	기타	(16)	37.5 (6)	25.0 (4)	12.5 (2)	18.8 (3)	6.3 (1)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4)	75.0 (3)	0.0 (0)	0.0 (0)	25.0 (1)	0.0 (0)
	중소기업	(8)	37.5 (3)	37.5 (3)	12.5 (1)	12.5 (1)	0.0 (0)
	외국법인/개인	(2)	0.0 (0)	50.0 (1)	50.0 (1)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1)	0.0 (0)	0.0 (0)	0.0 (0)	100.0 (1)	0.0 (0)
	개인	(8)	12.5 (1)	0.0 (0)	37.5 (3)	25.0 (2)	25.0 (2)
	기타	(1)	0.0 (0)	0.0 (0)	0.0 (0)	0.0 (0)	100.0 (1)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1)	23.8 (5)	19.0 (4)	14.3 (3)	19.0 (4)	23.8 (5)
	비대상	(20)	25.0 (5)	25.0 (5)	25.0 (5)	20.0 (4)	5.0 (1)
출원개수	5개 미만	(14)	28.6 (4)	14.3 (2)	14.3 (2)	28.6 (4)	14.3 (2)
	5개 이상	(10)	30.0 (3)	20.0 (2)	30.0 (3)	10.0 (1)	10.0 (1)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10)	30.0 (3)	10.0 (1)	20.0 (2)	20.0 (2)	20.0 (2)
	유사	(12)	33.3 (4)	25.0 (3)	16.7 (2)	25.0 (3)	0.0 (0)
	감소	(2)	0.0 (0)	0.0 (0)	50.0 (1)	0.0 (0)	50.0 (1)

표 34. 특허청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없다	심사관과 출원인 간 소통이 원활할 수 있으면 한다	소통 채널의 다양화 (SNS, ZOOM 등 바란다	소통 활성화 바란다	IT서비스 (홈페이지, 이메일, 온라인 등) 강화 바란다	홍보 강화 바란다	고객의 니즈/소리 반영 바란다	이유/사유를 알려 주었으면 한다	절차의 간소화 바란다	진행 상황을 알려 주었으면 한다
전체	(532)	29.1 (155)	6.6 (35)	6.0 (32)	6.0 (32)	5.5 (29)	2.1 (11)	2.1 (11)	1.9 (10)	1.9 (10)	1.7 (9)
출원인/대리인	출원인	(427)	29.5 (126)	5.4 (23)	6.6 (28)	6.6 (28)	5.6 (24)	2.6 (11)	1.9 (8)	2.1 (9)	2.1 (9)
	대리인	(105)	27.6 (29)	11.4 (12)	3.8 (4)	3.8 (4)	4.8 (5)	0.0 (0)	2.9 (3)	1.0 (1)	1.0 (1)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26.8 (37)	7.2 (10)	8.7 (12)	6.5 (9)	2.2 (3)	3.6 (5)	2.2 (3)	2.2 (3)	3.6 (5)
	기타	(289)	30.8 (89)	4.5 (13)	5.5 (16)	6.6 (19)	7.3 (21)	2.1 (6)	1.7 (5)	2.1 (6)	1.4 (4)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33.3 (10)	3.3 (1)	10.0 (3)	0.0 (0)	10.0 (3)	3.3 (1)	0.0 (0)	0.0 (0)	0.0 (0)
	중소기업	(201)	29.4 (59)	4.5 (9)	6.0 (12)	7.5 (15)	6.0 (12)	2.5 (5)	1.5 (3)	2.5 (5)	3.0 (6)
	외국법인/개인	(7)	28.6 (2)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47)	34.0 (16)	6.4 (3)	2.1 (1)	8.5 (4)	12.8 (6)	0.0 (0)	2.1 (1)	0.0 (0)	0.0 (0)
	개인	(138)	26.8 (37)	7.2 (10)	8.7 (12)	6.5 (9)	2.2 (3)	3.6 (5)	2.2 (3)	2.2 (3)	3.6 (5)
	기타	(4)	50.0 (2)	0.0 (0)	0.0 (0)	0.0 (0)	0.0 (0)	0.0 (0)	25.0 (1)	25.0 (1)	0.0 (0)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31.5 (84)	7.1 (19)	5.2 (14)	4.5 (12)	6.0 (16)	1.5 (4)	3.0 (8)	1.5 (4)	1.1 (3)
	비대상	(265)	26.8 (71)	6.0 (16)	6.8 (18)	7.5 (20)	4.9 (13)	2.6 (7)	1.1 (3)	2.3 (6)	2.6 (7)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33.3 (70)	5.2 (11)	7.1 (15)	3.8 (8)	5.2 (11)	2.9 (6)	2.9 (6)	2.4 (5)	1.4 (3)
	5개 이상	(217)	25.8 (56)	5.5 (12)	6.0 (13)	9.2 (20)	6.0 (13)	2.3 (5)	0.9 (2)	1.8 (4)	2.8 (6)
심층면담 경험 여부	있다	(160)	33.8 (54)	8.8 (14)	6.9 (11)	2.5 (4)	7.5 (12)	0.0 (0)	0.6 (1)	0.6 (1)	1.9 (3)
	없다	(372)	27.2 (101)	5.6 (21)	5.6 (21)	7.5 (28)	4.6 (17)	3.0 (11)	2.7 (10)	2.4 (9)	1.9 (7)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29)	27.5 (63)	4.8 (11)	6.1 (14)	7.0 (16)	5.2 (12)	3.1 (7)	2.6 (6)	2.6 (6)	1.7 (4)
	유사	(169)	31.4 (53)	6.5 (11)	7.1 (12)	4.1 (7)	6.5 (11)	1.2 (2)	0.0 (0)	1.2 (2)	3.0 (5)
	감소	(29)	34.5 (10)	3.4 (1)	6.9 (2)	17.2 (5)	3.4 (1)	6.9 (2)	6.9 (2)	3.4 (1)	0.0 (0)

표 35. 가장 선호하는 심사 방향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의견제출통지 및 결정이 빠른 심사	거절이유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심사	등록된 특허가 쉽게 무효되지 않는 심사	정확한 선행 기술문헌이 첨부된 심사	기타
전체		(532)	44.7 (238)	38.2 (203)	9.8 (52)	6.8 (36)	0.6 (3)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46.6 (199)	34.2 (146)	11.5 (49)	7.0 (30)	0.7 (3)
	대리인	(105)	37.1 (39)	54.3 (57)	2.9 (3)	5.7 (6)	0.0 (0)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44.2 (61)	34.1 (47)	10.1 (14)	10.9 (15)	0.7 (1)
	기타	(289)	47.8 (138)	34.3 (99)	12.1 (35)	5.2 (15)	0.7 (2)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13.3 (4)	56.7 (17)	20.0 (6)	6.7 (2)	3.3 (1)
	중소기업	(201)	52.7 (106)	30.3 (61)	11.4 (23)	5.5 (11)	0.0 (0)
	외국법인/개인	(7)	28.6 (2)	71.4 (5)	0.0 (0)	0.0 (0)	0.0 (0)
	대학/연구기관	(47)	53.2 (25)	34.0 (16)	8.5 (4)	2.1 (1)	2.1 (1)
	개인	(138)	44.2 (61)	34.1 (47)	10.1 (14)	10.9 (15)	0.7 (1)
	기타	(4)	25.0 (1)	0.0 (0)	50.0 (2)	25.0 (1)	0.0 (0)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44.6 (119)	36.0 (96)	11.2 (30)	7.5 (20)	0.7 (2)
	비대상	(265)	44.9 (119)	40.4 (107)	8.3 (22)	6.0 (16)	0.4 (1)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44.3 (93)	32.9 (69)	13.3 (28)	9.0 (19)	0.5 (1)
	5개 이상	(217)	48.8 (106)	35.5 (77)	9.7 (21)	5.1 (11)	0.9 (2)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29)	52.4 (120)	30.1 (69)	11.8 (27)	4.8 (11)	0.9 (2)
	유사	(169)	39.1 (66)	40.2 (68)	10.1 (17)	10.1 (17)	0.6 (1)
	감소	(29)	44.8 (13)	31.0 (9)	17.2 (5)	6.9 (2)	0.0 (0)

표 36.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에 대한 의견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심사품질을 낮추더라도 1인당 심사업무량을 늘려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심사대기기간이 보다 지연되더라도 1인당 심사 업무량을 줄여 심사품질을 향상 하기 위해 노력한다	심사대기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향상을 동시에 할 수 없다면 1인당 심사업무량 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관리한다	기타
전체		(532)	17.3 (92)	34.6 (184)	38.7 (206)	9.4 (50)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18.0 (77)	36.1 (154)	36.5 (156)	9.4 (40)
	대리인	(105)	14.3 (15)	28.6 (30)	47.6 (50)	9.5 (10)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16.7 (23)	35.5 (49)	33.3 (46)	14.5 (20)
	기타	(289)	18.7 (54)	36.3 (105)	38.1 (110)	6.9 (20)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3.3 (1)	53.3 (16)	43.3 (13)	0.0 (0)
	중소기업	(201)	24.4 (49)	32.3 (65)	36.8 (74)	6.5 (13)
	외국법인/개인	(7)	14.3 (1)	42.9 (3)	28.6 (2)	14.3 (1)
	대학/연구기관	(47)	6.4 (3)	40.4 (19)	42.6 (20)	10.6 (5)
	개인	(138)	16.7 (23)	35.5 (49)	33.3 (46)	14.5 (20)
	기타	(4)	0.0 (0)	50.0 (2)	25.0 (1)	25.0 (1)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19.1 (51)	37.5 (100)	33.3 (89)	10.1 (27)
	비대상	(265)	15.5 (41)	31.7 (84)	44.2 (117)	8.7 (23)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19.5 (41)	40.0 (84)	31.0 (65)	9.5 (20)
	5개 이상	(217)	16.6 (36)	32.3 (70)	41.9 (91)	9.2 (20)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29)	21.0 (48)	35.4 (81)	32.3 (74)	11.4 (26)
	유사	(169)	14.8 (25)	38.5 (65)	39.1 (66)	7.7 (13)
	감소	(29)	13.8 (4)	27.6 (8)	55.2 (16)	3.4 (1)

표 37. 우선심사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우선심사 신청료를 인상 하여 수요 조절	우선심사 대상 요건마다 심사 착수기한을 세분화	우선심사 신청 건수를 총량 제로 운영	법령에서 정한 우선심사 대상 항목을 축소	기타
전체		(532)	25.4 (135)	36.1 (192)	12.6 (67)	18.0 (96)	7.9 (42)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23.9 (102)	37.9 (162)	14.5 (62)	16.4 (70)	7.3 (31)
	대리인	(105)	31.4 (33)	28.6 (30)	4.8 (5)	24.8 (26)	10.5 (11)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24.6 (34)	37.7 (52)	15.9 (22)	11.6 (16)	10.1 (14)
	기타	(289)	23.5 (68)	38.1 (110)	13.8 (40)	18.7 (54)	5.9 (17)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20.0 (6)	43.3 (13)	13.3 (4)	23.3 (7)	0.0 (0)
	중소기업	(201)	24.9 (50)	36.8 (74)	15.4 (31)	17.9 (36)	5.0 (10)
	외국법인/개인	(7)	14.3 (1)	42.9 (3)	0.0 (0)	14.3 (1)	28.6 (2)
	대학/연구기관	(47)	19.1 (9)	42.6 (20)	10.6 (5)	17.0 (8)	10.6 (5)
	개인	(138)	24.6 (34)	37.7 (52)	15.9 (22)	11.6 (16)	10.1 (14)
	기타	(4)	50.0 (2)	0.0 (0)	0.0 (0)	50.0 (2)	0.0 (0)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22.5 (60)	39.0 (104)	13.9 (37)	17.6 (47)	7.1 (19)
	비대상	(265)	28.3 (75)	33.2 (88)	11.3 (30)	18.5 (49)	8.7 (23)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21.9 (46)	40.5 (85)	16.2 (34)	16.2 (34)	5.2 (11)
	5개 이상	(217)	25.8 (56)	35.5 (77)	12.9 (28)	16.6 (36)	9.2 (20)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29)	27.5 (63)	41.0 (94)	14.8 (34)	10.9 (25)	5.7 (13)
	유사	(169)	21.9 (37)	35.5 (60)	13.0 (22)	21.3 (36)	8.3 (14)
	감소	(29)	6.9 (2)	27.6 (8)	20.7 (6)	31.0 (9)	13.8 (4)

표 38. 분할출원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동일한 원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횟수에 따라 수수료 누진제 적용	원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에만 분할출원 인정	동일한 원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횟수 제한	기타
전체		(532)	31.6 (168)	31.8 (169)	25.9 (138)	10.7 (57)
출원인/ 대리인	출원인	(427)	30.0 (128)	34.9 (149)	27.4 (117)	7.7 (33)
	대리인	(105)	38.1 (40)	19.0 (20)	20.0 (21)	22.9 (24)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34.1 (47)	34.8 (48)	26.1 (36)	5.1 (7)
	기타	(289)	28.0 (81)	34.9 (101)	28.0 (81)	9.0 (26)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36.7 (11)	33.3 (10)	20.0 (6)	10.0 (3)
	중소기업	(201)	26.9 (54)	35.8 (72)	30.3 (61)	7.0 (14)
	외국법인/개인	(7)	28.6 (2)	14.3 (1)	14.3 (1)	42.9 (3)
	대학/연구기관	(47)	25.5 (12)	36.2 (17)	27.7 (13)	10.6 (5)
	개인	(138)	34.1 (47)	34.8 (48)	26.1 (36)	5.1 (7)
	기타	(4)	50.0 (2)	25.0 (1)	0.0 (0)	25.0 (1)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67)	30.0 (80)	36.0 (96)	24.0 (64)	10.1 (27)
	비대상	(265)	33.2 (88)	27.5 (73)	27.9 (74)	11.3 (30)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29.5 (62)	37.6 (79)	25.2 (53)	7.6 (16)
	5개 이상	(217)	30.4 (66)	32.3 (70)	29.5 (64)	7.8 (17)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29)	30.1 (69)	38.4 (88)	24.5 (56)	7.0 (16)
	유사	(169)	29.0 (49)	31.4 (53)	30.8 (52)	8.9 (15)
	감소	(29)	34.5 (10)	27.6 (8)	31.0 (9)	6.9 (2)

표 39. 출원 및 등록 전략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가능한 많은 발명을 출원 및 등록	가능한 많은 발명을 출원하되, 심사과정에서 권리 범위 변화에 따라 선별하여 등록	출원 전에 효용 (제품의 사업성 등) 과 비용(등록유지비 등)을 면밀히 비교 후, 기존 총족 발명을 선별하여 출원 및 등록	출원 전 효용과 비용을 비교하여 기준 충족 발명을 선별 출원한 뒤, 심사과정에서도 권리범위 변화에 따라 선별하여 등록
출원인 전체		(427)	22.2 (95)	18.0 (77)	45.4 (194)	14.3 (61)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14.5 (20)	12.3 (17)	58.0 (80)	15.2 (21)
	기타	(289)	26.0 (75)	20.8 (60)	39.4 (114)	13.8 (40)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26.7 (8)	20.0 (6)	33.3 (10)	20.0 (6)
	중소기업	(201)	25.9 (52)	19.4 (39)	39.8 (80)	14.9 (30)
	외국법인/개인	(7)	14.3 (1)	42.9 (3)	42.9 (3)	0.0 (0)
	대학/연구기관	(47)	23.4 (11)	25.5 (12)	44.7 (21)	6.4 (3)
	개인	(138)	14.5 (20)	12.3 (17)	58.0 (80)	15.2 (21)
	기타	(4)	75.0 (3)	0.0 (0)	0.0 (0)	25.0 (1)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05)	20.5 (42)	20.0 (41)	44.4 (91)	15.1 (31)
	비대상	(222)	23.9 (53)	16.2 (36)	46.4 (103)	13.5 (30)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22.4 (47)	18.6 (39)	42.9 (90)	16.2 (34)
	5개 이상	(217)	22.1 (48)	17.5 (38)	47.9 (104)	12.4 (27)
향후 출원 건수 예측	증가	(229)	28.8 (66)	17.5 (40)	37.6 (86)	16.2 (37)
	유사	(169)	14.8 (25)	20.7 (35)	53.8 (91)	10.7 (18)
	감소	(29)	13.8 (4)	6.9 (2)	58.6 (17)	20.7 (6)

표 40. 향후 출원 건수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명)	늘어날 것이다	현재와 유사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출원인 전체		(427)	53.6 (229)	39.6 (169)	6.8 (29)
대표출원인 유형1	개인	(138)	45.7 (63)	43.5 (60)	10.9 (15)
	기타	(289)	57.4 (166)	37.7 (109)	4.8 (14)
대표출원인 유형2	대기업/중견기업	(30)	73.3 (22)	26.7 (8)	0.0 (0)
	중소기업	(201)	58.2 (117)	37.3 (75)	4.5 (9)
	외국법인/개인	(7)	14.3 (1)	57.1 (4)	28.6 (2)
	대학/연구기관	(47)	48.9 (23)	46.8 (22)	4.3 (2)
	개인	(138)	45.7 (63)	43.5 (60)	10.9 (15)
	기타	(4)	75.0 (3)	0.0 (0)	25.0 (1)
3인 협의심사 대상 여부	대상	(205)	58.0 (119)	36.6 (75)	5.4 (11)
	비대상	(222)	49.5 (110)	42.3 (94)	8.1 (18)
출원개수	5개 미만	(210)	58.1 (122)	35.7 (75)	6.2 (13)
	5개 이상	(217)	49.3 (107)	43.3 (94)	7.4 (16)

부록2. 질문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2항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실사관리)	LIST ID	NO (입력)

정책평가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심사 정책을 펼치고자, 최근 1년간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를 통지받은 출원인 및 대리인을 대상으로 특허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2항과 연구윤리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오니, 심사 정책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쿠폰 2매를 드립니다.

2022년 10월

조사주관기관: 특허청

조사수행기관: (주)한국궤렵조사연구소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행 : (주)한국궤렵조사연구소

〈 작 성 요 령 〉

- 본 조사표는 산업재산권 출원과정의 주요 심사처리 및 품질 정책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본 조사표의 응답은 출원인 본인 또는 기업의 산업재산권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담당자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문은 본인(출원인, 대리인)이 지난 1년(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간 특허정책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 특허등록결정서 또는 특허거절결정서 통지받은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응답자 성명	소속/부서
응답자 휴대전화번호	이메일(E-mail)
- -	

1 다음은 주요 심사제도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1-1. 3인 협의심사 제도

※ 3인 협의심사 제도란?

4차 산업혁명으로 신기술 등장 및 관련 기술들이 융·복합됨에 따라 심사관이 단독으로 기술 내용을 파악하고 정확한 심사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특허출원이 증대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정확성을 제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담당 심사관이 타 심사관들과 협의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 3인 협의심사 여부 확인

3인 협의심사를 진행한 경우 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 등록결정서, 거절결정서 등) 말미에 심사관 3인의 서명이 있습니다.

A1 (3인 협의심사 대상자만) 3인 협의심사제를 통한 통지서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3인 협의심사의 통지서를 받은 적 있다
- ② 3인 협의심사의 통지서를 받은 적 없다

A1-1 (A1에서 ① 선택한 응답자만) 3인 협의심사를 통해 출원이 등록되었습니까? 거절되었습니까?

- ① 등록되었다
- ② 거절되었다
- ③ 등록 및 거절 모두 있다
- ④ 기타(_____)

A1-2 (A1에서 ① 선택한 응답자만) 경험하셨던 3인 협의심사는 단독심사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②	③	④	⑤
(☞A1-3로 이동)			(☞A1-4로 이동)	

A1-3 (A1-2에서 ①, ② 선택한 응답자만) 어떠한 점이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출원건에 대한 높은 기술 이해도
- ② 거절이유(신규성·진보성·기재불비 등) 판단의 정확성 향상
- ③ 거절이유 일괄 통지를 통한 빠른 심사처리
- ④ 기타(_____)

A1-4 (A1-2에서 ③ ~ ⑤ 선택한 응답자만) 어떠한 점이 불만족스러우셨습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선행기술 대비시 비특허문헌(논문 등)의 사용 비율이 높음
- ②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 ③ 면담 등 심사관과의 소통에 대한 부담 증가
- ④ 기타(_____)

→ 전체 응답자 대상

A2 특허청이 3인 협의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A3 3인 협의심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귀하(귀사)는 선택하시겠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A5 3인 협의심사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내용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1-2. 심사유예 제도

B1 오늘 이전에 “심사유예 제도”에 대해 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들어 봤고, 내용도 잘 안다
- ② 들어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 ③ 처음 듣는 말이다 (☞B3으로 이동)

B1-1 (B1에서 ①, ② 선택한 응답자만) 어떤 경로를 통해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특허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 ② 뉴스, 신문을 통해
- ③ 동료, 대리인, 출원인 등 업무 관련자를 통해
- ④ 특허청 직원을 통해
- ⑤ 기타(_____)

(B1에서 ②, ③ 선택한 응답자에게만 보여줄 것)

※ 심사유예 제도란?

심사청구일로부터 24개월~출원일로부터 5년까지 심사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로, 출원인이 희망하는 시점에 심사 결과를 제공받아 출원 관리가 쉬우며, 조기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B2 (B1에서 ①, ② 선택한 응답자만) 귀하(귀하)는 심사유예 제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B2-1 (B2에서 ② 선택한 응답자만)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활용할 기회가 없었음
- ② 심사를 늦게 받을 이유가 없음
- ③ 신청 후 취소하기 어려움
- ④ 기타(_____)

B3 귀하(귀사)는 향후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실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많이 있다	있다	보통	없다	전혀 없다
①	②	③	④	⑤

B4 심사유예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내용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1-3. 임시명세서 제도

C1 오늘 이전에 “임시명세서 제도”에 대해 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들어 봤고, 내용도 잘 안다
- ② 들어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 ③ 처음 듣는 말이다 (☞C3으로 이동)

C1-1 (C1에서 ①, ② 선택한 응답자만) 어떤 경로를 통해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특허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 ② 뉴스, 신문을 통해
- ③ 동료, 대리인, 출원인 등 업무 관련자를 통해
- ④ 특허청 직원을 통해
- ⑤ 기타(_____)

(C1에서 ②, ③ 선택한 응답자에게만 보여줄 것)

※ 임시명세서 제도란?(‘20.3월 시행)

기존의 정해진 명세서 형식을 따르지 않고, 기술 개발을 위해 작성했던 논문, 연구노트, 기술서 등 원본 그대로 출원 가능한 제도로,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기존의 명세서 형식으로 제출 가능

C2 (C1에서 ①, ② 선택한 응답자만) 귀사(귀하)는 임시명세서 제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C2-1 (C2에서 ② 선택한 응답자만)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활용할 기회가 없었음
- ② 논문 등과 같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급히 출원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음
- ③ 신청 절차와 기존 명세서 형식에서의 보정 절차가 번거로움
- ④ 기타(_____)

C3 귀하(귀사)는 향후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실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많이 있다	있다	보통	없다	전혀 없다
①	②	③	④	⑤

C4 임시명세서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내용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1-4.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개선

D1 오늘 이전에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들어 봤고, 내용도 잘 안다
- ② 들어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 ③ 처음 듣는 말이다 (☞D3으로 이동)

D1-1 (D1에서 ①, ② 선택한 응답자만) 어떤 경로를 통해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특허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 ② 뉴스, 신문을 통해
- ③ 동료, 대리인, 출원인 등 업무 관련자를 통해
- ④ 특허청 직원을 통해
- ⑤ 기타(_____)

(D1에서 ②, ③ 선택한 응답자에게만 보여줄 것)

※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의 변경 관련 특허법 개정('21.11.18. 시행)

'21.11.18. 시행된 특허법 개정으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전에 취하·포기 시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선행기술조사와 관계없이 심사청구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다 하더라도 처음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의 1/3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의 비용 절감과 함께 새로운 출원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

D2 (D1에서 ①, ② 선택한 응답자만) 귀사(귀하)는 특허법 개정 이후,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통해 심사청구료의 일부를 반환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D2-1 (D2에서 ② 선택한 응답자만) 심사청구료의 일부를 반환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해당 출원이 계속 중인 상태가 필요하였음
- ② 반환 금액이 많지 않음
- ③ 신청 절차가 번거로움
- ④ 기타(_____)

D3 귀하(귀사)는 향후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통해 심사청구료의 일부를 반환받으실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많이 있다	있다	보통	없다	전혀 없다
①	②	③	④	⑤

D4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내용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② 통지서 간소화 및 심사관 소통 관련 의견입니다.

②-1. 통지서 간소화

E1 현재의 의견제출통지서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E1-1로 이동)			(☞F1으로 이동)	

E1-1 (E1에서 ①, ② 선택한 응답자만) 통지서 간소화 방안에 동의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방대한 통지서 분량으로 쟁점이 명확하지 않음
- ②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관용어구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짐
(예시: 청구항 ○발명은 인용발명 ○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습니다.)
- ③ 통지서 대응을 위한 비용이 높아짐(번역 비용 등)
- ④ 기타(_____)

E1-2 (E1에서 ①, ② 선택한 응답자만) 통지서 간소화 방안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① 차이점 도출 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작성
- ② 거절이유에 따라 인용발명 간 결합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 인용발명 간 결합의 용이성 여부를 중심으로 작성
- ③ 이미 알고 있는 출원발명 내용 또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관용어구의 작성 지양
- ④ 독립항은 자세하게, 종속항은 간략하게 거절이유 작성
- ⑤ 기타(_____)

2-2. 심사관 소통(심층면담)

※ 심층면담 제도

공식심사 전 최초 명세서 또는 보정안에 대해 심사관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제도로 **예비심사(심사착수 전), 보정안 리뷰(거절이유 통지 후 보정서 제출 전), 재심사 면담(재심사 신청 전)** 등 **심사 단계별로 운영 중**

F1 심사관과의 심층면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F1-1로 이동)
- ② 없다 (☞F2로 이동)

F1-1 (F1에서 ① 선택한 응답자만) 경험하셨던 심사관과의 심층면담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②	③	④	⑤
(☞F1-2로 이동)		(☞F1-3으로 이동)		

F1-2 (F1-1에서 ①, ② 선택한 응답자만) 어떠한 점이 만족스러우셨습니까?

- ① 심사관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의견 교환
- ② 출원인 의견의 수용도 향상
- ③ 편리한 면담 예약 시스템
- ④ 기타(_____)

F1-3 (F1-1에서 ③ ~ ⑤ 선택한 응답자만) 어떠한 점이 불만족스러우셨습니까?

- ① 지리적인 불편함
- ② 심사관의 불충분한 사전 준비
- ③ 심사관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 ④ 면담 예약 절차의 번거로움
- ⑤ 기타(_____)

F2 특허청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내용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3] 심사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G1 귀하(귀사)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심사 방향은 무엇입니까?

- ① 의견제출통지 및 결정이 빠른 심사
- ② 거절이유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심사
- ③ 등록된 특허가 쉽게 무효되지 않는 심사
- ④ 정확한 선행기술문헌이 첨부된 심사
- ⑤ 기타(_____)

G2 최근 특허출원의 증가로 인해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을 유지할 경우 심사대기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에 관해 귀하(귀사)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특허 심사대기기간과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의 관계

일반적으로 심사관 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할 경우, 심사관 1인당 심사업무량이 늘어나고, 이는 심사 1건당 투입되는 시간의 감소를 수반하여, 심사품질이 저하(특허 무효율 증가 등)될 가능성이 있음

- ① 심사품질을 낮추더라도 **1인당 심사업무량을 늘려**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심사대기기간이 보다 지연되더라도 **1인당 심사업무량을 줄여** 심사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심사대기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향상을 동시에 할 수 없다면 **1인당 심사업무량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관리**한다.
- ④ 기타(_____)

G3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정된 심사인력으로 인한 심사처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다른 일반심사의 심사대기기간이 지연되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우선심사 관리 방안 중 귀하(귀사)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 우선심사는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출원인에게 신속한 심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지만, 한정된 특허청의 심사인력이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부담에 따라 전체적인 심사품질을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심사의 착수시기를 늦추는 영향이 있음

* 전체 심사청구 중 약 18%가 우선심사를 신청함('21년 기준)

- ① 우선심사 신청료를 인상하여 수요 조절
- ② 우선심사 대상 요건마다 심사착수기한을 세분화
- ③ 우선심사 신청건수를 총량제로 운영
- ④ 법령에서 정한 우선심사 대상 항목을 축소
- ⑤ 기타(_____)

G4 분할출원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신규 출원건에 대한 심사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분할에 분할이 연속적으로 수회 이루어지면 심사부담이 과중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분할출원 관리 방안 중 귀하(귀사)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 분할출원은 특허고객에게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부여하는 효과가 있지만, 원출원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심사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심사의 착수시기를 늦추는 영향이 있음[현재 분할 횟수를 무제한으로 인정: 원출원→분할→분할(2세대)→분할(3세대)… 등]
- * 연도별 분할출원 건수(단위: 건): ('17) 11,388 → ('19) 12,112 → ('21) 15,295
- * 외국인의 분할출원 이용 비율(최근 5년): 49%, 외국인의 3세대 이상 분할출원 이용 비율(최근 5년): 69%

- ① 동일한 원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횟수에 따라 수수료 누진제 적용
- ② 원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에만 분할출원 인정
- ③ 동일한 원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횟수 제한
- ④ 기타(_____)

G5 다음중 귀하(귀사)의 출원 및 등록 전략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가능한 많은 발명을 출원 및 등록
- ② 가능한 많은 발명을 출원하되, 심사과정에서 권리범위 변화에 따라 선별하여 등록
- ③ 출원 전에 효용(제품의 사업성 등)과 비용(등록유지비 등)을 면밀히 비교 후, 기준 충족 발명을 선별하여 출원 및 등록
- ④ 출원 전 효용과 비용을 비교하여 기준 충족 발명을 선별 출원 후, 심사과정에서도 권리범위 변화에 따라 선별하여 등록

G6 향후 귀하(귀사)의 출원 건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 ① 늘어날 것이다
- ② 현재와 유사할 것이다
- ③ 줄어든 것이다

2022년 심사정책 고객평가조사

발행일 | 2023년 04월
발행인 | 특허청장 이인실
발행처 | 특허청 특허심사총괄과(www.kipo.go.kr)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481-5395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2022년 심사정책 고객평가조사



KIPO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481-5395 <http://www.kipo.go.kr>

ISBN : 979-11-6884-109-3 13500
DOI : 10.8080/P9791168841093